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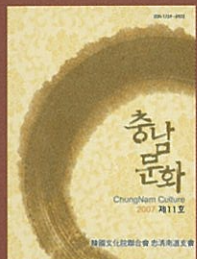
ISSN 1739-8932



충남 문화

ChungNam Culture
2007 제11호

韓國文化院聯合會 忠清南道支會



충남문화 2007 • 제11호

한국문화원연합회충청남도지회의 역할

충남 지역내의 지방문화원 간 공동의 증진을 위한 사업·문화원 회원의 교육 및 친목도모사업·충남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필요한 부대사업·도내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 협력 및 정보교류·도민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남문화

골목길

길일기

무거운 나뭇짐을 지고 쿵쾅거리며 걸어오시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시집간 누나가
매형과 함께 사뿐사뿐 걸어서 지양길 오는 모습이 보인다

6.25 전쟁이 끝나고 푸릇푸릇한 군복을 입고
미제 만년필을 한 다발 가져와서 가족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던
작은아버지의 찌렁찌렁한 목소리도 남아있다

지붕과 지붕이 다정하게 맞바라보고 눈인사를 보내는 골목길
앵두나무 아래 우물이 있던 골목길
봄이면 살구꽃이 피어 환한 골목길
여름이면 호박꽃이 담장을 넘는 골목길
가을이면 빨갛게 익은 감들이 넘실대는 골목길
아기가 태어나면 고추랑 숯이랑 청솔가지를 새끼줄에 꽂아 금줄을 치던 골목길

할머니, 아버지, 호헌네 할머니를 비롯하여 그리운 사람들이
요령소리 치령치령 울리며 그리움만 남겨놓고 간 골목길

길 일 기

1952년 금산 출생, 1988년 금산에서 <좌도시동인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 현재는 고향 금산에서 풀벌을 치며 농사, 시집으로는 "감이 익는 마을"

충남문화

제11호

2007
ChungNam Culture

• 발행일자 2007년 12월 / 연 1회발행

• 발행인 박응진

• 편집인 이준창

• 편집위원 (가나다순)

박응진(도지회장), 김시경, 김호택, 명수남,
송용삼, 유성열, 윤준웅, 이용면, 이준호, 임기석,
임영이, 전용택, 정재권, 정재욱, 정정희, 최영환

•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
320-030 논산시 내동 279-4번지
Tel. (041)730-4632 Fax. (041)732-2394

• 편집디자인

봄커뮤니케이션 042-486-2725

† 『충남문화 제11호』는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Contents

003 권두시

• 길일기 (시인, 시집 『감이 익는 마을』)

006 권두언

• 박응진(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008 축간사

•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010 문화칼럼

• 정정희 (당진문화원장)

012 특별기고

• 문화예술단체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 방안
(유성열 서천문화원장)

027 충남의 꼭 가봐야 할 곳 - 박물관

044 충남의 인물

• 목은 이색(서천문화원)
• 옥파 이중일(태안문화원)

056 충남의 민속

• 선학리 지게놀이(공주문화원)
• 가회리 장군제(부여문화원)

065 충남의 전설

• 형제바위(대천문화원)
• 어금니바위(온양문화원)

071 충남의 문화재

• 신안사(금산문화원)
• 종학원(논산문화원)
• 수덕사(예산문화원)
• 장곡사미륵불괘불탱(청양문화원)

083 충남의 향토문화축제

• 금산인삼축제(금산문화원)
• 서산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서산문화원)
• 기벌포대보름제(서천문화원)
• 아산성웅이순신축제(온양문화원)
• 최영장군 영신굿(홍성문화원)

098 문화원 단신

101 2007년 충남도지회 활동상황

104 2007년 문화원 활동상황 (가나다순)

공 주 문 화 원 활동상황

금 산 문 화 원 활동상황

논 산 문 화 원 활동상황

당 진 문 화 원 활동상황

대 천 문 화 원 활동상황

부 여 문 화 원 활동상황

서 산 문 화 원 활동상황

서 천 문 화 원 활동상황

성 환 문 화 원 활동상황

아 우 내 문 화 원 활동상황

예 산 문 화 원 활동상황

온 양 문 화 원 활동상황

조 치 원 문 화 원 활동상황

청 양 문 화 원 활동상황

태 안 문 화 원 활동상황

홍 성 문 화 원 활동상황

문화적 삶을 위한 설계

박 응 진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문화는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 말입니다. 문화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우리 인간 생활과 공존해왔고, 그러한 「문화적 삶」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되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21세기를 시작하면서 굳이 '문화의 세기'라 명명했던 것일까요? 21세기는 컴퓨터와 IT산업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쉽게 필요한 지식을 얻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무한히 공유되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독점이 곧 힘이며 경쟁력이던 시대는 구시대로 전락하는 대신에 기술력이 평준화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바로 심미적인 요소가 제품의 선택을 결정하는 준거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소비자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자 하나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학자들은 21세기를 가리켜 '문화의 세기'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행복이라면 행복은 물질 생활보다는 내면의 정신으로부터 오는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최첨단의 경제 시스템이 재화의 풍요로운 생산과 소비를 약속하는 시대, 고급스럽고 세련된 삶의 양식이 우선시되는 시대일수록 인간 삶의 기본적인 요구는 그 만큼 더 절실해지는 법입니다. 비유하자면 문화는 사람을 비바람과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반듯한 형태의 집이면서 동시에 그 실용성이라는 일차적 목적을 넘어 사람의 삶에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 생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보편적 요구와 실천의 총화를 가리켜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Culture)라 합니다.

한 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력이 공고해진다는 것은 곧 다른 약소국의 불가피한 희생을 대가로 하지만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은 행복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염원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행복이란 다른 사람과의 유대속에서 형성되고 선조들이 남긴 지적·정신적 유산에 겸손히 귀 기울임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양한 삶의 형식 가운데 「문화적 삶」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화(文化)'라는 말이 거창한 학문과 사유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일상적 삶의 일부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문화의 힘'이 21세기를 선도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충남문화 제11호에 기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문화원 가족 여러분과 충남 문화원의 발전과 활성화에 물질양면으로 지원과 협조하여 주신 이완구 도지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1C 충남문화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이 완 구
충청남도지사



충남문화 제11호의 발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책자발간에 이르기까지 힘써주신 박응진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문화가족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꿈과 감성의 '문화의 세기'입니다. '드림 소사이어티'의 저자인 덴마크의 롤프 안센 코펜하겐 미래학연구소장은 "정보사회 다음은 꿈의 사회이며, 이미 시작되었다. 꿈의 사회에서는 상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든 꿈을 사고팔게 된다. 꿈은 이야기이고 문화다."라고 하여 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문화의 세기는 국가와 기업, 지역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문화가 되는 시대로서 어떤 문화를 창조해 향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의 여부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좌우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커피와 함께 문화를 팔고 있는 세계적인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은 2006년 말 기준으로 박물관 등 문화기반 시설이 177개소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예산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예산대비 2.2%를 차지하며 전국 7위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백제문화와 선비문화 등의 훌륭한 문화자원을 갖추고 있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문화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인프라의 부족과 창

작활동에 대한 지원 미흡, 지역간 문화수혜 불균형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문화예술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11월에 '충남 문화예술 중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충남의 가치창출을 위한 문화의 역할, 그리고 권역별 문화발전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충남문화예술 포럼 운영과 문화예술단체 역량 강화, 가칭 충남 문화재단 설립과 도청 신도시내 문화지구의 조성, 충남문화 명품 콘텐츠 개발과 범 백제권 문화교류 확대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을 문화디자인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충남문화산업 비전 2020'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백제의 역사와 충효문화, 전통문화 등 문화의 상품화가 가능한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25개의 문화산업관련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할 경우에는 우리 도의 문화발전을 크게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020년 경이면 매출 8조원, 일자리 69,000개 정도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고장의 보다 나은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열정'과 '창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무한한 도전정신이 있을 때 우리고장의 문화가 꽃을 활짝 피워갈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룩한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도 도정 운영의 기본 틀을 '일등경제 속에 고품격 문화가 살아있는 충남'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 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도민의 문화향유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가족 여러분의 애정어린 성원을 기대하면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 문화비전 선언”에 즈음하여

정 정 희
당진문화원 원장



지난 10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변화하는 문화 환경에서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문화비전 선언이 있었다. 그것은 지방문화원이 그동안 일궈온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문화의 세기를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당연한 태도일 것이다.

여성 문화원장으로 문화경영의 일선에서 성장과 나눔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일들은 문화비전 선언이 지향하는 바를 담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다가온다. 당진문화원이 그동안 여러 문화 주체들과 힘을 모으고 사업을 수행해 간 부분들은 지방문화원의 역할 확대와 네트워크 시대에 맞게 새로운 열개를 짜는 작업이었다. 문화원에 등지를 틀고 활동을 하는 노인대학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당진도서관, 서부평생학습관, 푸른충남21, 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당진군지부, 건강보험당진지사 등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구축을 통해 공동 주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다문화 시대에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했던 미디어 워크숍은 실버세대와 이주여성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문화매개자 양성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앞으로는 더욱 전문화 된 강좌로 문화 예술가를 육성하고 취미와 교양을 넘어서 질 높은 문화 활동을 통해 성장해가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화예술 향유가 특정한 대상만이 누릴 수 있는 일이었지만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이제는 어린 아이에서 노년까지 그리고 이주 여성을 포함한 문화 소외자들에게 문화 욕구를 충족할만한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선도적 행정을 실현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문화원지원조례’ 제정에 힘쓴 결과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확보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일회성으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긴 호흡으로 내실 있게 꾸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운영체제는 공적인 틀을 갖추지 못해 예산지원에 따라 모든 사업들이 수동적으로 운영되어 온 그간의 형편에서도 나름대로 각 부처 공모 사업에 주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쳐 그 한계를 극복했고, 새롭게 시도된 사업들은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 문화비전 선언’에 즈음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문화경영의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르기만 하다. 지난 2005년부터 서산장학재단(이사장:성완중)의 당진지부를 품고 3차례에 걸친 굴지의 가을음악회와 장학금 수여의 기회를 마련, 문화 복지를 실현하면서, 지방문화원으로는 최초로 이주여성 지원 사업에 도전 열정을 녹아 내면서 보람과 성취를 느꼈고, 마땅한 의지처가 없어 표류할 위기에 선 노인대학을 문화원 품으로 안으면서 지방문화원 역할확대를 꿈꿔왔었다.

지방문화원 모두가 바람직한 변화 앞에서 희망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그 기대가 실현되길 바라며 문화비전 선언 서두에 있는 글로 각오를 다져 본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문화예술단체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 방안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유성열
서천문화원 원장

‘문화예술단체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연구하고 논의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론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문화예술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래에 주요 논거를 제시하여 토론의 자료로 삼고자한다.

01. 문화관광부는 정부재정의 1%를 문화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02.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면 단체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03. 조직의 규모가 크고, 유급관리 직원의 숫자가 많고, 자체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문화관광부의 직접관할에 있는 단체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다.

04. 문화예술단체의 격차는 ‘있음과 적음’과 ‘있음과 없음’의 차이이다.
05. 예술단체의 육성은 인력, 안정성, 인사교류, 규제 해제, 재정지원 등이 필수적이다.
06.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민간기부금에 비하여 자율적 운영을 제약한다.
07. 지방 문화 예술단체의 발전에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08. 문화 인프라가 문화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09. 지역문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0. 문화예술단체는 정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11. 문화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12. 문화행정가는 문화향수자와 문화공급자를 매개하여야 한다.
13. 문화시설은 문화정책과 행정절차가 연계되어 조성되어야 한다.
14. 문화예술인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이다.
15. 주민들 스스로 문화를 추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16. 문화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17. 지역문화의 세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18. 대학과 기업, 시민이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9. 지역문화정책의 법률적 논거는 ‘시민이나 지역의 독자성’ 회복이나 형성을 위한 것이다.

01. 문화관광부는 정부재정의 1%를 문화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내일신문은 11월 12일자에서 “문화부 예산 1,429억 원 탈법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보도내용과 같이 탈법 증액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는 참여정부 문화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마련을 위해 정부재정 중 1%의 문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중략)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 구축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자 정부 재정대비 문화예산 1% 확보를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1) <문화정책 수행 위한 1% 문화예산 확보해야 - 국정브리핑>, 2007. 11. 13, 문화관광부.

02.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면 단체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비영리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립된 쟁점이 있다. 비영리조직에 재원을 제공하는 정부가 비영리조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하여 비영리조직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은 비영리조직의 목표설정이나 자원배분과정에 정부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비영리조직의 자원의존성은 비영리조직의 독창적인 프로그램 선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비영리조직의 운영에 매우 필요한 요소이지만 한편으로는 비영리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영향을 배제하면서 비영리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영리조직의 장점인 자발성, 융통성 그리고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규제정책을 이러한 비영리조직의 장점들을 살리는 방향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²⁾

03. 조직의 규모가 크고, 유급관리 직원의 숫자가 많고, 자체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문화관광부의 직접관할에 있는 단체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다.

첫째,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경제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받는 경향이 있다. 둘째, 유급관리 직원의 숫자가 많은 조직일수록 지난 경제위기의 영향과 상관없이 조직자체의 지속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체 수익사업을 성공적으로 해 온 문화단체들의 경우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익규모를 꾸준히 확장시켜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지방문화원과 같은 문화관광부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우 다른 민간주도의 문화예술단체들보다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난 국제통화기금하의 경제위기에 따른 조직의 수익규모의 변화는 조직의 나이가 오래될수록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본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³⁾

2) <비영리조직의 자율성과 자원의존성에 관한 실증연구 :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권기현 · 정광호, 한국정책학회보 12권 1호 (2003), pp.127-149, 한국행정학회.

3) <IMF 경제위기가 비영리 조직의 재원조달에 미친 영향 :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권기현 · 정광호, 한국행정학회보 제36권 제2호(2002), pp.249-267, 한국행정학회.

04. 문화예술단체의 격차는 '있음과 적음'과 '있음과 없음'의 차이이다.

지역문화란 의미는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심의 문화'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의 진정한 의미는 '외래문화의 영향이나 미디어, 기술정보의 영향을 덜 받아 독자적인 공동체 정서를 지니고 있는 문화'이었어야 했다. 행정구역으로 접근한다면 군 단위 이하의 문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이라 하더라도 문화적 혜택과 무관한 소외계층을 중심에 두고 전개되는 문화 관련 사업들이 당연히 (지역문화의 해를 기점으로) 포함되었어야 했다. 광역시 중심의 문화현실은 서울 중심의 문화구도의 축소판 형식으로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읍 면 단위로 내려갈수록 그 척박함의 편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아마 모르는 해도 서울과 광역도시의 격차가 '있음과 적음'의 차이라면, 광역도시와 읍 단위 문화는 '있음과 없음'의 차이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⁴⁾

05. 예술단체의 육성은 인력, 안정성, 인사교류, 규제 해제, 재정지원 등이 필수적이다.

광주시립무용단이 옛 영화를 되찾고 문화수도의 무용단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 단원의 유인체계를 갖추고 단원 실력향상과 보람 있는 전문 직장으로서의 안정성과 자긍심을 갖고 단원활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급여는 물론, 외국 유명 지도자의 초빙지도, 또 발레 선진국에의 파견 및 단원교류 등을 이루어나야 하며,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해나가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외부의 간섭이 배제되는 단운영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⁵⁾

06.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민간기부금에 비하여 자율적 운영을 제약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민간기부금에 비하여 문화예술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나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개입의 영향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지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초기단계의 자생력 구축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정부지원의 성격을 좀 더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 질적 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4) <제1부 충북 지역문화 발전방안 : 충북지역 문화예술단체 현황과 과제>, 박종관, 2001 지역문화의 해 기념 충북 지역문화의 현실과 과제(2001), 충북개발연구원.

5) <광주시립무용단의 발전 방향>, 전미령, 문화연구 8권(2003), pp.49-63, 한국문화학회.

한편 최근에 들어서면서 문예진흥기금이 운영되기 시작한 초창기에 비해 지원방식이 훨씬 차별화되고 구분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데 문화 향수자 지원 폭의 확대, 새로운 미디어 예술 진흥에 대한 지원 등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문예진흥기금의 운영에 좀 더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의 사업계획이나 운영에 관료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로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강한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상당히 전문화된 조직운영을 해야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화예술단체들은 전문직 문화예술가들을 고용하고 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사업과 관리전략을 마련하여 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 나오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사무국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기획, 고객관리, 홍보기능 등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기부금도 문화예술단체의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단체는 기업의 주요 기부동기인 상업성과 문화예술의 창의성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민간재단의 기부금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창의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이 아닌 민간재단으로부터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원화된 재정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⁶⁾

07. 지방 문화 예술단체의 발전에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는 문화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성찰을 통한 새로운 각오와 올바른 정책 전망이다. 이제 문예진흥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손을 벗어나 지역의 문화예술인에게로 주도권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자각과 노력이다. 문화예술인들 스스로 노력해 준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인 것이다. 그리고 권유착이라는 부조리에서 헤어날 수 없다면 예술인 스스로가 문화예술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정부, 지자체도 잘못된 문화정책의 관행을 바꾸는 노력과 함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

6) <정부보조금과 민간기부금이 비영리조직운영에 미치는 효과분석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정광호, 2003년도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3), pp.705-727, 한국행정학회.

화정책 수단과 과정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자면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구분의 재정립, 중앙 단위의 문예진흥기구 및 문화부와 지역의 문예진흥기구와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정책개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역의 문화행정과 문화예술인들은 문화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좋은 의미의 문화예술의 범주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넓은 문화의 관점으로 전체 행정체계와의 연계 속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진흥을 넘어서 문화유산의 보전, 문화산업, 생활문화진흥, 도시문화환경의 개선 등이 이미 포함되었고, 나아가 미디어, 관광정책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또한 복지, 교육, 여성, 청소년, 체육 등 관련 부문과의 내적 연관 및 접목을 통하여 보다 통합적인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⁷⁾

08. 문화인프라가 문화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지역문화 현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으나 문화의 불균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 즉 서울/수도권의 지역문화에 문화 자원, 인프라, 인력 등이 집중됨으로써 기타 지역의 문화 현황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최근 김석진·김진수의 “문화인프라가 문화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논문 내용에 의하면, 한국 전체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비수도권에 비해 약 7배 높은 문화인프라 집적을 보였으며, 문화인프라의 집적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문화성과의 차이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화산업의 지역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문화성과를 측정 분석한 결과, 전체 문화성과에 있어서 수도권에 97%(서울 91%) 이상이 편중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지역 간 문화생산의 격차가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도입은 문화예술적 측면에서도 절실한 과제이다. 즉, 지역 간의 심각한 문화편차를 해소하고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문화진흥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은 시대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계획은 지역발전의 제도적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⁸⁾

7) <지방 문화 예술단체의 발전방향 : 제2부 논문발표> ; 발제 : 지방 문화 예술단체의 발전방향 :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발전과 예술 단체의 역할, 지금중, 2003년도 학술세미나 자료(2003), 한국문화학회.

8) <지역문화진흥법(안) 시행령 연구>, 2006, 문화관광정책연구원.

09. 지역문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강원도는 지역의 문화인프라를 구성하는 문화인력, 문화기반시설, 문화활동, 문화재정 등에 있어 적어도 다른 광역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비교에 따른 것이지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지역의 문화적 생산-유통-소비의 자생적인 순환구조가 이루어지기에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초문화예술 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전문문화인력과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부족, 문화인력의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인력 교육시스템의 미흡, 관 주도 위주의 문화기반시설 확대에 따른 문화공간 운영의 비효율성, 생활문화시설의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바른 지역문화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문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역문화인력, 문화시설, 문화활동, 문화정책 생산·집행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실태와 문화욕구에 대한 조사도 요구된다. 지역문화에 대한 온전한 이해 없이는 지역문화 정책이 바람직하게 제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때에 보다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⁹⁾

10. 문화예술단체는 정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경상북도 지역 내 활동하고 있는 많은 문화단체 내의 문화예술인들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문화정책의 혜택을 거의 실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당한 수의 문화예술인들은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그러한 예술활동후원기금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단체의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은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활동 지원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독선적이거나 비현실적임을 지적하고 있고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문화행정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내 문화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 소통문제도 부재한 탓에 각종 필수정보의 교류 또한 활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¹⁰⁾

9) <강원도 지역문화 현황과 문제점>, 김병철, 한국의 지역문화 발전실태 심포지엄(2007.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 대구·경북지역 문화발전 현황 및 개선방안, 신동호, 2007 문화의 달 기념학술세미나 - 지역문화 발전의 비전과 전략자료집 (2007. 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 문화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한다

문화원이라는 문화공간을 거점으로, 품고 있는 인력(일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 직원, 자원봉사자그룹(우리고장 문화해설사, 리포터, 썰퍼, 실버문화학교 참가자), 문화강좌수강생, 문화강좌, 강사, 대관 관련 문화단체, 문화동호인 모임 협력망에 있는 인력(관계 형성의 정도에 따라 문화 흐름, 물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 문화단체, 문화봉사자, 문화기관(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 학교, 지역민, 지역 외 협력망 구축 등을 구축하고 있다.¹¹⁾

12. 문화행정가는 문화향수자와 문화공급자를 매개하여야한다

결론적으로 지역 문화자치의 주체는 문화향수자와 공급자, 그리고 그 둘 각각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 둘 사이를 매개하고 촉진시키기도 하는 매개자로서의 문화행정가들이다.

이 삼자는 각자의 역할에 대한 충실도가 높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타자로서의 두 역할 주체에 대한 감사와 배려를 잊지 않아야 한다. 어느 한 주체가 수동적이거나 의욕을 상실할 경우, 나머지 두 주체의 역할이 아무리 뛰어나고 열망에 가득 차 있다하더라도 제대로 살아 움직이지 않는 유기적 생명체와 같기 때문이다.¹²⁾

13. 문화시설은 문화정책과 행정절차가 연계되어 조성되어야한다

문화정책개발은 크게 두 가지 수요의 원칙에서 기획되고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된다. 이는 첫 번째, 정책적 방향 즉 정책에 대한 철학이 수반된 수요, 두 번째는 고객의 요구 특히 현재 가장 많이 회자되는 수요를 들 수 있다. 문화시설의 조성이라는 분야는, 단순히 주민의 수요만을 반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단순히 공급자 측면에서의 의지만 앞세울 수도 없는 것이다. 문화향수 실태나 이에 대한 이해, 요구가 미진한 상태에서의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을 리 없지만, 그렇더라도 장기적인 정책 철학에 의해 문화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행정단계에서는 시급하거나 눈에 보이는 정책만 예산을 반영하여 실행함에, 시민들이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를 요구하여 조성하는 경우도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 원칙에 의해 우리의 지역문화시설이 조성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시설의 종류 예를 들

11) <지역 내 문화전문인력의 활용실태와 육성방안>, 이춘아, 지역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역문화 대 토론회(2006. 1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2) <지역 내 문화자치의 실현 방향 고찰>, 정정숙, 지역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역문화 대 토론회(2006. 1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어 도서관, 문예회관 등의 조성이 중앙의 원칙과 기준이 있지만 현재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게 반영되면(특히 문예회관), 이러한 종류의 세부적인 건축프로그램, 계획대상부지, 운영 등에 있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거나 혹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아니면 중장기적인 정책결정과 철학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마다 중장기적인 문화정책과 문화시설의 수요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야 하고(용역이 아닌 자체적으로 연구, 노력해야함)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세부 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 즉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기 이전에 지자체장 선거, 의회 승인 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확고히 반영된 시설로서 조성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이제는 물량위주로 시설이 늘어나는 것을 지양하고 개선되어야 한다.¹³⁾

14. 문화예술인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이다.

우리는 문화사회를 지향한다. 미래사회는 꿈의 사회라 하지 않던가? 꿈과 포부가 크면 그만큼 사람도 크게 키워야 한다. 문화예술 활동은 근본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경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므로 재능 있는 지역의 문화일꾼을 전문가로 만들어 지역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의무이다. 우선 급한 대로 한 가지 문제만이라도 풀자. 국가와 지방정부의 모든 문화 관련 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규정만큼은 풀자. 그동안 우선순위가 시설이나 건물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이나 행사나 프로그램 진행 등 프로그램 운영비에 두었다면 이제 우선순위를 그 모든 것을 직접 관장하고 운영하는 사람에게 두어 보자. 다시 말하지만 문화예술 영역은 그 속성상 '사람'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문화예산을 과감하게 사람에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통 크게' 한 번 바꿔보자.¹⁴⁾

15. 주민들 스스로 문화를 추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문화 예술이 가지는 인간 정신의 고양과 초월성, 절대적 가치의 추구하고 희생, 그리고 도전정신은 우리의 '지역문화진흥' 정책 어디에 어떤 비중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지역문화 진흥책'을

13) <문화시설 조성의 성과와 문제 : 문화시설 조성실태와 관리 및 지역 내에서의 역할>, 김규원, 지역정책성 회복을 위한 지역문화 대 토론회(2006. 1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4)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에 투자해야...>, 문윤걸, 2007 문화의 달 기념학술세미나 -지역문화 발전의 비전과 전략자료집(2007. 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끌고 나가는 예술 감독, 지방자치 행정, 시민 사회단체가 인식하는 문화의 분권화 시대는 무엇인가?

지역문화의 진흥은 지역 안에서 계속 살아갈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향수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이루어진다. 전지구화 시대에 문화의 생산자와 기획자는 역시 광역적으로 이동하며 활동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 문화 소비자도 일찌감치 광역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사실이다. 외부로부터(특히 서울과 해외로부터!!) 오는 손님 없이 풍성한 문화예술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다. 하지만 상관없다. 큰 행사, 손님 많은 행사를 겨냥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의 문화적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 리더십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면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진 주체가 존재하는가. 그런 방향성과 세계관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려는 강력한 문화 리더십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분권화 시대전 전지구화 시대전 지역 혹은 '지방'의 문화가 진흥되는 것은 역시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사람들이 결정짓는다. 거기서 '문화적 사건'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리더십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이다.¹⁵⁾

16. 문화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문화는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풍요하게 만든다. 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향수자의 문화 권리 회복이 필요하나 우리 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는 지방문화의 균형발전이 깨지고 지방문화는 획일적 중앙문화로 흡수되는 양상을 빚었다. 이와 함께 외국의 문화가 침투해 들어오면서 지역의 문화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는 외래문화와 대중매체를 통한 문화 보급은 문화적 전통의 단절을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전국적으로 문화적 획일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문화의 중앙집권화로 전략을 막고 제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정책은 "문화의 정체성 발견"과 "주민문화 향수권 신장"으로서 전통문화에 기초한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향수권의 신장은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치 및 문화의 민주화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5) <분권화 시대 지역문화 진흥의 의미와 가치 : 이상과 현실>, 송도영, 분권화 시대의 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 전략 심포지엄 자료집(2007. 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방자치 실시 이후 10여 년이란 짧은 시간이 흘렀으나 이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예술,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상설예술 프로그램, 각종 공연 및 전시 등 주민생활 전 분야에 걸쳐 문화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건전한 지역 주민정신 함양과 올바른 지역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민·관·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그 중간의 고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상술한 지방문화원과 지역 언론이다.

또한, 지방정부 입장에서 각 지자체는 문화활동 주체인 시민과 지원 주체인 행정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지역 문화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지자체의 문화정보센터 역할은 시민의 문화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문화활동 지원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화공간이나 관련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역할과 함께 주민이 문화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결 고리가 충실히 이어질 때 비로소 지자체는 지역 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¹⁶⁾

17. 지역문화의 세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술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문화대국 유럽은 예술가들에게 있어 동경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는 유럽에 대한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이다. 유럽의 정치 통합 이전에 문화부문에서의 유럽지역 확대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터키, 키프러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구소련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동부 유럽에 이르기까지 문화가 개방된 유럽지역에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몰려들고 있다. 유럽은 예술가들과 문화사업자 사이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단기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특징은 작가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나라 작가들과 교류를 하며 다른 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예술지원 정책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스튜디오 제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창작지원금(생활비), 전시, 도록 등을 지원해 준다.

이제 시작인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경우처럼 창작비 지원은 어렵다하더라도 충분한 입주기간을 지원하고 전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문화정책은 오랫동안 '자유방임주의'와 '팔길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의 예술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예술의 우수성과 접근성에 관한 일이다. 영국은 유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화 예술 시장을 소유하고 모든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이 가장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야심차고 도전적인 문화예술 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예술가들의 노력의 소산으로 평가된다. 그들이 말하는 문화는 죽어 있는 유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현재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미래를 창조적으로 열어가는 삶의 총체적 에너지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그간 산업혁명을 필두로 한 공업 중심 경제대국으로서 자존심을 유지하던 영국이 국가 재정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문화와 예술을 산업과 연결시켜 국가의 경제적 부와 사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프랑스가 정책적 목표로 내세우는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루는 방식이 예술가 지원정책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보면, 자칫 엘리트주의 문화예술 개념에 치중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예술은 폐쇄적인 미술관이나 오페라하우스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대중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로 전제되는 것이어서 지원 자체가 단순 배분의 개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에 다가가는 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개발하도록 고무한다.

이런 정책과 운영이 결국 문화예술에 어떤 기대치를 두느냐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문화의 교류를 기초로 삼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문화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프랑스의 문화와 문화정책이 이처럼 빛을 발하는 이면에는 프랑스 예술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주도적으로 소개하면서 문화의 국제 교류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프랑스 예술진흥협회의 활동이 있다. 동 협회는 프랑스 지방자치 단체와의

16) <문화정책의 현안 과제와 발전방안>, 신두섭, 분권화 시대의 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 전략 심포지엄 자료집(2007. 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협약에 따라 국내외 교류를 증진시키며, 협력 파트너들의 제안을 수렴하고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증진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교류내용 면에서 일반 행정분야 교류가 중심이고, 문화교류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대 국가간의 국제교류에서 이제는 지방 대 지방자치 도시 간 그리고 지역주민 간의 우호협력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국제문화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문화적 자산 또는 문화적 역량이 풍부한 나라이다.

기초생활영역에서의 문화향수, 문화유산의 보존, 전통예술의 보존과 계승의 문제는 지역 문화 발전의 요체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화의식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문화관광 상품화”하는 구체성의 실현을 위해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문화의 세계화에 한층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¹⁷⁾

18. 대학과 기업, 시민이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협력하여야한다

문화예술의 주체가 소수 예술가 중심에서 다수의 시민중심으로 변모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스스로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정비와 문화여건 및 환경을 조성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지역문화 진흥의 3주체라 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시민사회는 각기 성격이 다른 대학문화, 기업문화, 시민문화의 형성을 통해 지역문화의 하위문화로 역할하는 동시에 지역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자극과 도전을 통해 지역문화의 변화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이들 3주체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학은 지역문화진흥의 전제가 되는 인재들을 교육, 육성하는 휴먼웨어의 산출을 통해 엘리트 문화의 생산과 보급을 주도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실험과 문화인프라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과 마인드를 주도한다. 기업은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잠재적 문화예술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미지 제고와 문화의 상품화, 산업화를 통해 지역문화와 지역경제를 접목시킨다. 지역사회의 시민들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문화관련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문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저급한 외래문화의 방패역할을 하며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여 문화예술로 되살리는 한편, 일상생활 속에 문화를 끌어들이는 생활문화운동을 통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서로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정부주도의 시혜적이고 획일적인 문화정책에서 탈피하여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산학협동체제를 통해 대학의 연구결과가 기업의 기술력에 활용되고 이것이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시민이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정부의 개입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민주주의의 구현을 통한 문화발전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¹⁸⁾

19. 지역문화정책의 법률적 논거는 ‘시민이나 지역의 독자성’ 회복이나 형성을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예술가나 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의 하나는 시민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드러나는 것으로서 시민인 예술가가 문화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나아가 시민 사회에서 생활 문화의 활성화를 초래하고, 지역이나 도시의 독자성 형성에 공헌할 수 있는 예술 문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과 달리 지역문화예술정책의 타당화 논거는 다음 3가지 점에서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시민 및 지역의 독자성 형성 차원이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화예술정책은 ‘국민적 위신설’에 입각하여 전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문화정책은 ‘시민이나 지역의 독자성’ 회복이나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시민이나 지역의 독자성 형성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시민자치나 지방 자치도 완속될 수 없다. 자치단체의 문화예술정책도 이러한 시민과 지역의 독자성 형성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지역의 개성적인 문화에만 과도하게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역의 문화적인 개성은 타 지역과의 광범위한 정보교류, 문화교류의 결과를 통해 더 분명하게 될 것이다. 개성화의 원심력과 공통화의 구심력

17) 〈문화선진국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발전 사례〉, 조부근, 분권화 시대의 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 전략 심포지엄 자료집(2007. 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대학,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 박혜자·오주희, 한국거버넌스학회보·광주·전남행정학회보 8호(2001), pp.101-121, 한국거버넌스학회.

공주 -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공주를 비롯한 충청북부지역에서 출토된 많은 발견·발굴매장문화재를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중요유물은 관람객과 전문 연구자들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적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특강, 박물관문화강좌, 엄마와 함께하는 박물관 공예교실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주시 정자사길 30(구 웅진동 360번지) 041-850-6300
공주시외버스터미널 → 백제대교 및 터널 약 200m 후 삼거리 좌회전 → 다음 삼거리에서 좌회전 → 박물관



금산 - 태영민속박물관



태영박물관에는 2,000여점의 용기와 토기를 시대별로 모아 전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또 120여종의 야생화와 함께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한 초가집, 김치 보관 장독대 등을 볼 수 있다. 각종 전통 및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직접 가마솥에 장작으로 불을 때 지은 밥으로 식사를 하는가 하면 호롱불을 밝히고 가족끼리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전통체험은 어린이들에게 시골의 정취에 흠뻑 젖게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성인 민속교실을 통해 탁본과 한지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고 매달 전래 놀이를 무료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금산IC → 남이면 소재지(금산읍에서 10km, 소요시간 10분)
금산군 남이면 하금리 364-2번지 041)754-7942



논산 — 백제군사박물관



백제 사비시대 동방 특안성 지역으로 천혜의 요충지이자 천년을 이어온 군사상 중요 거점지역 논산. 오천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 나아가 장렬히 전사한 계백장군 묘소 주변 부지에 위치한 백제 군사박물관은 백제와 군사라는 성격을 부여하여 전시물을 구성, 백제시대의 유물은 물론 그 시대의 군사적 모습을 전시하는 등 백제의 군사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논산시 부석면 신동리 백제군사박물관 041) 730-4726
연산방면 → 부석농협(우회전)(약 1.5km 직진 후 좌회전) → 박물관



당진 —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제1전시실인 수리문화관에는 미니어처를 통해 합덕방죽과 구만리보의 축조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야외에는 다양한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다. 각 체험장에서는 굴렁쇠 굴리기, 가마타기, 지게지기, 디딜방아 켜기 등 농경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실내화 대용으로 쓰이는 짚신이 매우 인상적이다.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명절(설날, 추석) 당일과 공휴일 다음날은 휴관한다.



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327번지 041)350-4921



보령 - 보령석탄박물관



지난 1989년부터 석탄의 수효감소의 따른 석탄산업의 합리화 조치로 다수의 비경제 탄광이 폐광됨에 따라 과거에 국민의 주된 연료로써, 근대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크게 공헌한 석탄산업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중요 산탄지인 충남 탄전과 이 지역 탄광 근로자들이 석탄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고 탄광 발달 과정, 작업환경, 장비 등 현장의 보존 또는 재현을 통한 후손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5년 5월 18일 석탄 박물관으로써는 국내 최초로 건립 개관하였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IC → 아산 → 홍성 → 보령
유성 IC → 공주 → 청양 → 보령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114-4 041) 934-1902



부여 - 국립부여박물관



부여박물관에서는 백제권의 문화재 보존과 연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교육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 시민들에게 백제문화를 알리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박물관에는 4개의 전시실과 야외 유물전시장이 있다. 전시 유물 가운데 주목되는 것으로 1993년에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를 비롯해 1995년에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를 비롯해 1995년에 출토된 창왕명석 조사리감 등이 있다.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16-1번지 041)833-5862~3
정안IC → 백제큰길(공주 경유) → 부여



서산 - 안견기념관



안견은 신라의 솔거, 고려의 이념과 함께 우리 민족의 3대 화가로 손꼽힌다. 한국적 산수화풍을 창출하여 한국 회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조선시대의 거장인 안견선생의 예술혼을 후세에 기리고 문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고향인 서산지 지곡면 화천리에 안견기념관이 개관되었다.

이 기념관에는 안견 선생의 작품인 '몽유도원도'를 실물 크기로 제작한 영인본과 '적벽도', '사시팔경도', '소상팔경도' 등 총 18점의 모사작품이 전시되었다.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041-660-2536
서해안고속도로 서산나들목 → 국도32 → 서산 → 국도29 → 안견기념관



서천 - 한산모시관



모시각, 전통공방, 전수교육관, 한산소곡주 제조장, 토속관 등의 시설을 갖춘 전시관을 세워 전통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중 전수교육관내 전시실에는 모시의 역사를 전해 주는 고증서적과 베틀, 모시길쌈 도구, 모시 제품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전통공방에서는 모시풀 재배에서 태모시 만들기, 모시짜기, 모시삼기, 모시날기, 모시매기, 모시짜기 등의 공정을 재연한다. 또 250여 점의 향토문화자료가 전시되어 있어 조상들의 옛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겨울철 5시)이고 연중무휴이다.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60-1
041)951-4100



연기 - 향토박물관



조치원 역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청라리행 버스 이용, 쌍류교다리에서 하차, 비암사 방향으로 300m 직진, 좌측에 장승이 세워진 마을 입구로 들어와, 오른쪽 기와건물.

1996년 8월 14일 문을 열었다. 연기군내 옛 도요지에서 출토된 도자기가 많으며 선사·삼국·고려·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근대의 유물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 시대별로 유물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청라리 146
041)862-7449



예산 - 한국고건축박물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대목장 전홍수옹이 설립한 박물관으로,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에 위치하고 있다.

박물관 입구에는 강릉 객사문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 양반사대부가옥, 평민가옥, 초가삼간, 중국관, 일본관, 연수원 등도 건립할 예정이다. 과거 목수들이 사용하던 연장, 기구, 건축재료 등을 전시하고 있어서, 옛 건축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주변에 수덕사와 덕산온천이 있어 함께 들러볼 만하다.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52-18번지 041)337-5877
홍성IC(8km) → 한국고건축박물관





온양 — 민속박물관

정문을 지나면 시원스럽게 조성된 뜰에 전시된 연자방아, 디딜방아, 너와집 등이 조화를 이루며 1,900여평의 전시실에는 민속자료 20,000여점이 4개의 전시실과 1개의 소 전시실로 나뉘어 13개 분야로 상설 전시되고 있다. 제1전시실은 한국인의 일생, 의식주, 생활모습, 제2전시실은 직업, 제3전시실은 민속공예, 민속신앙 등을 생동감 있게 전시하고 있으며 전통혼례를 올릴 수 있는 생활문화관도 갖추고 있다.



충남 아산시 권곡동 403번지 (041)542-6001~3
경부고속도로천안IC → 남부우회도로 → 국도21호(20km) → 온양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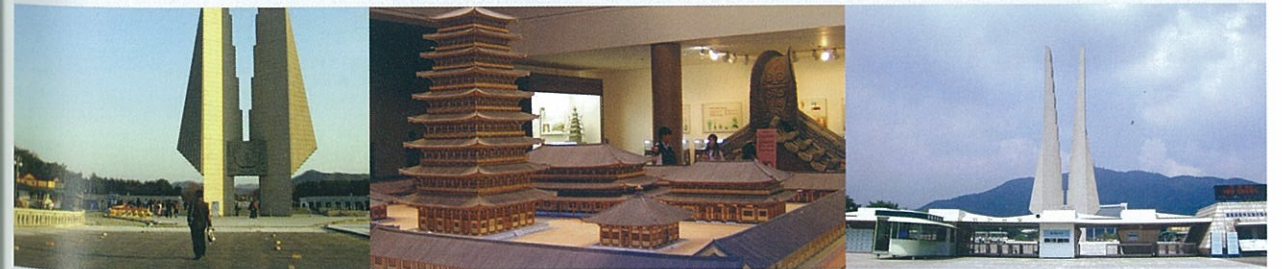


천안 — 독립기념관

한국은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조상들이 남긴 자취와 자료를 수집·전시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민족의 얼과 긍지를 심어 주기 위하여 1982년 8월 23일 독립기념관 건립발기 대회를 개최하고 8월 31일 국민의 성금모금을 시작하였으며, 10월 5일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번지
TEL : 041)560-0114
경부고속도 : 천안에서 국도 21호 이용 시 12km



青陽文化院郷土史料館

청양 — 청양 향토사료관



청양문화원 향토사료관은 민속문화를 조사, 연구, 보존 전시함으로써 사회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올바른 지방문화의 이해를 돕고자 건립된 민속자료관임.

장곡사 철조약사 여래좌상부석조대좌, 미륵불괘불탱 등 청양의 국보와 문화재를 전시해 청양의 찬란했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청양인들의 의·식·주, 경제활동, 뛰어난 기술 등을 재현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청양의 전통인 서낭당, 장승, 솟대 등의 감상과 관혼상제, 주거문화, 농경생활 등을 엿볼 수 있다.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산24번지 청양문화예술회관 내
041)943-4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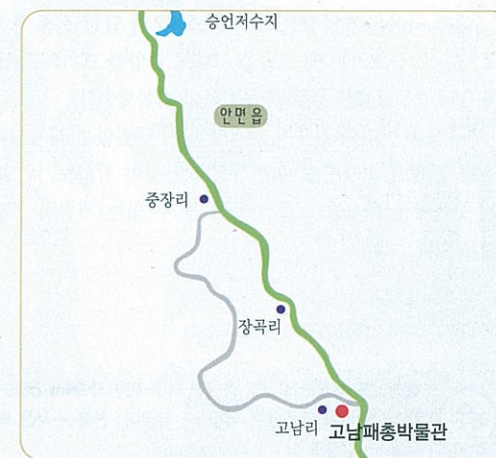


태안 — 고남패총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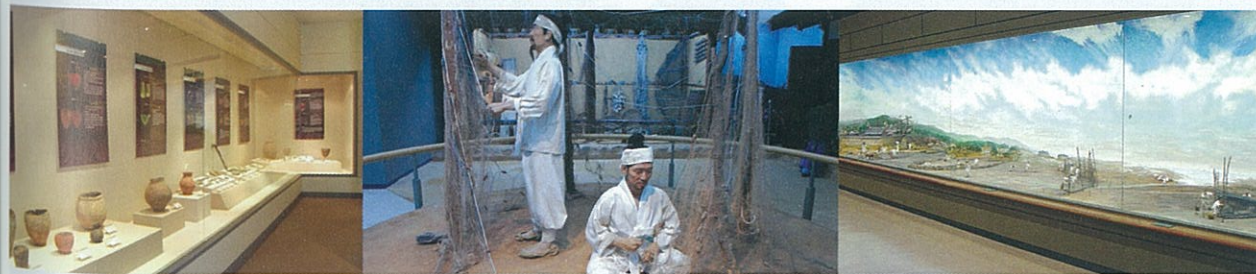


고남패총박물관은 고남리 패총에서 출토 및 수집된 유물을 중심으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시대의 토기와 석기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디오라마와 터치스크린이 갖추어져 있다.

두동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관에는 패총 출토 유물과 관련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고 별관에는 태안을 중심으로 어촌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는 여러 민속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1063-6번지 041) 670-2337
태안을 좌회전 → 안면대교 건너서 우측으로 77번 국도 따라 남쪽
→ 안면읍 → 안면도의 끝자락에서 2~3km 남겨놓고 오른쪽



홍성 - 갈산토기전시관



5대째 이어온 장인정신으로 예술의 혼이 담긴 전통 용기를 만들고 있는 갈산토기는 옛 모습을 그대로 다양한 크기의 장독, 고추장독, 김장독, 질시루 등 온갖 용기들의 집합체이다.

전통성을 살리되 현대적 감각에 맞게 끊임없는 디자인과 재질연구를 통해 '온고지신'을 실천하겠다는 것이 갈산토기의 마음이다. 이 곳에서는 용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의 장소 마련해 놓고 있다.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동성이 110-19번지 041) 633-1711
홍성군청에서 홍주병원 방향 → 남당리, 천북 → 서산 방향 29번 국도 → 갈산토기



공주문화원 · 부여문화원
'충남의 민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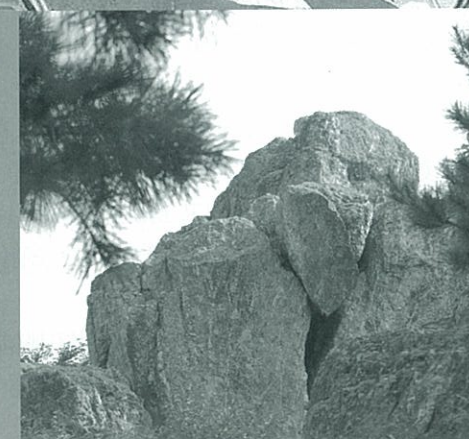
온양문화원 · 대천문화원
'충남의 전설'



서천문화원 · 태안문화원
'충남의 인물'



금산문화원 · 논산문화원
'충남의 문화재'



예산문화원 · 청양문화원
'충남의 문화재'

목은 이색(牧隱 李穡)

이색 [李穡, 1328~1396]

고려 말의 문신·학자. 삼은(三隱)의 한 사람이다. 정방 폐지, 3년상을 제도화하고, 김구용·정몽주 등과 강론, 성리학 발전에 공헌했다. 우왕의 사부였다. 위화도 회군 후 창(昌)을 즉위시켜 이성계를 억제하려 했다. 조선 태조가 한산백에 책봉했으나 사양했다.

- 본관 한산(韓山)
- 호 목은(牧隱), 시호 문정(文靖)
- 별칭 자 영숙(穎叔)
- 활동분야 정치, 철학
- 주요저서 「목은시고(牧隱詩藁)」 「목은문고(牧隱文藁)」

고려 말의 문신·학자로서 본관은 한산(韓山)이며 자는 영숙(穎叔)이다. 호는 목은(牧隱)이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이제현(李齊賢)의 문하생으로 삼은(三隱)의 한 사람이다. 아버지는 찬성사 목(穀)이다. 15세에 부음(父陰)으로 별장(別將)의 직을 얻었고 1341년(충혜왕 복위 2) 진사(進士)가 되고, 1348년(충목왕 4) 아버지가 원에서 중서사전부(中瑞司典簿)가 되자 조관(朝官)의 아들로 원나라 국자감의 생원이 되었다.

1351년(충정왕 3) 부친상(父親喪)으로 귀국, 1352년(공민왕 1) 전제(田制)개혁·국방강화·교육진흥·불교억제 등 당면정책을 왕에게 건의했다. 1353년 향시(鄕試)와 정동행성(征東行省)의 향시

에 장원 급제하였고 1354년 서장관(書狀官)으로 원나라에 가서 회시(會試)에 장원, 전시(殿試)에 차석으로 급제, 국사원편수관(國史院編修官) 등을 지내다가 귀국하였다.

이듬해 다시 원나라의 한림원(翰林院)에 등용되었다. 즉, 1355년 공민왕의 개혁정치가 본격화되자 왕의 측근세력으로 활약하면서 시정8사(時政八事)를 올렸는데 그중 하나가 정방(政房)의 혁파였다. 이 일로 이부시랑 겸 병부시랑에 임명되어 문무(文武)의 전선(銓選)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듬해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때는 3년상(三年喪)을 제도화했다.



〈목은 이색 영정〉

신흥유신으로서 현실 개혁의 뜻을 가진 이색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키는 가운데 순조롭게 출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색의 이러한 정치적 성장은 오히려 현실개혁의지를 약화시키고, 자신과 관계를 맺은 부류와 타협하게 되었다. 1357년 전녹생(田祿生)·정추(鄭樞) 등과 더불어 염철별감(鹽鐵別監)의 폐지를 논했다. 새로이 별감을 파견하면 이배(吏輩)들이 농간을 부릴 것이며 별감은 세포(稅布)를 많이 거두어서 왕의 충애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일반 민은 소금을 받지도 못하고 포만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색은 왕이 재추(宰樞)와 대성관리(臺省官吏)를 모은 가운데 별감 파견의 가부를 물으려 하자 병을 칭하여 피했다. 이는 염제신과 같은 권세가 별감 파견을 주장한 것에 대한 이색의 타협으로서, 다른 간관(諫官)이 이 일로 좌천된 것과 달리 이색은 중임되었다. 또한 1362년 성균시의 합격자를 뽑던 중 왕이 환관(宦官)을 보내어 벽승(壁僧)의 사패(賜牌)에 어보(御寶)를 찍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색은 처음에 신하들과 의논할 일이라 하여 반대했지만 이내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찍었다. 사패는 국왕이 충성의 대가로 공신이나 기타 사원에게 설정해주는 토지의 증빙문서였는데, 당시에는 권세가의 토지확대 방법으로 이용되어 토지점병과 수취체계 중첩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이색은 국왕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계속 관철시키지 못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1359년, 1361년 홍건적(紅巾賊)의 침입으로 왕의 남행(南幸)을 호종, 1등공신이 된 후 전(田) 100결(結), 노비 20구(口)를 받았다. 또한 아버지에게서 받은 토지·노비와 관직을 통해 얻은 수조지, 그리고 공신전으로 중앙정계에 정치적 지위에 상응하는 경제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좌승선(左承宣) 등 여러 관직을 지냈다. 1365년 신돈이 등장하고 개혁정치가 본격화되면서 그는 교육·과거 제도 개혁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1367년 성균관이 중영(重營)될 때 대사성(大司成)이 되자 성균관의 학칙을 새로 제정하고 김구용(金九容)·정몽주(鄭夢周)·이승인(李崇仁) 등과 강론, 성리학 발전에 공헌했다.

1373년 한산군(韓山君)에 책봉된 후에는 신병으로 관직을 사퇴했으나 1375년(우왕) 우왕의 청으로 다시 정당문학(政堂文學) 등을 역임했다. 1377년 추충보절동덕찬화공신(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

昨過永明寺松登浮碧
 城書月一石亭子餘
 玄不返天孫何處遊長嘯
 風磴山青江
 自流
 板石

(목은 이색 필체)

의 호를 받고 우왕의 사부(師傅)가 되었다. 이해에 판문하부사 조민수(曹敏修)의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는데 동지공거 염흥방(廉興邦)이 그를 합격시킬 것을 청했으나 거절했다. 그는 1377년 장경(藏經)을 인성(印成)하고, 1387년 서보통탑(西普通塔)의 탑기(塔記)를 짓는 등 주자성리학자이면서도 불교를 선호하며 긍정하고 있었다.

1388년 철령위(鐵嶺衛) 사건에는 화평을 주장하였고 이듬해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으로 우왕이 강화로 유배되자 조민수(曹敏修)와 함께 창(昌)을 즉위시켜 이성계(李成桂)의 세력을 억제하려 하였으나 이성계가 득세하자 장단(長端)·함창(咸昌) 등지에 유배되었다. 즉, 1388년 위화도회군이 일어나자 문하시중에 임명되었다. 고려왕조의 존립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개혁정치를 회기한 이색은 1389년(공양왕 1) 도평의사사에 서의 사전혁과(私田革罷) 논의 때 이승인·변안렬(邊安烈) 등과 같이 옛

법은 경솔히 고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불법적인 대토지소유에 반대하고 있었지만 사전개혁과 같은 급격한 전제개혁에도 반대하고 있었다. 그는 위화도회군을 군령을 위반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 행위로 이해했으므로 그 주체세력이나 동조세력에 반감을 갖고 있었다. 위화도회군의 중심인물과 동조세력은 당대의 대유(大儒)인 이색과 같은 반대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1391년(공양왕 3) 석방되어 한산부원군(韓山府院君)에 책봉되었으나 다시 여흥(驪興) 등지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조선 개국 후 인재를 아낀 태조가 1395년 한산백(韓山伯)에 책봉했으나 사양, 이듬해 여강(驪江)의 신록사(神勒寺)로 가던 중 죽었다.

이색은 원나라에서의 유학과 이제현을 통하여 이 시기 선진적인 외래사상인 주자 성리학을 수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 말기의 사회 혼란에 대처하면서 정치 사상을 전개했다. 그는 원의 주자학을 받아들였으므로 그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이(理)·기(氣)·태극(太極)과 같은 주자학의 핵심개념을 사용하여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했고, 주자학의 수양론인 성학론(聖學論)을 전개했다. 그러나 주자학에서 말하는 수양론과 달리 죽음과 인간적 고뇌와 같은 초인간적·종교적 문제는 여전히 불교에 의존했다. 또한 송대의 혈연·의리·도덕·윤리 등을 말하는 도통론(道通論)을 전개한 것이 아니고 원의 형세론적 도통론을 전개했다. 즉 그의 주자성리학의 발원지인 원의 영향과 불교의 영향 속에서 송대의 주자학과 구분되는 정치 사상을 전개했다.

문하에 권근(權近)·김종직(金宗直)·변계량(下季良) 등을 배출, 학문과 정치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저서에 《목은시고(牧隱詩藁)》《목은문고(牧隱文藁)》가 있다. 장단 임강서원(臨江書院), 청주 신흥서원(莘巷書院), 한산 문헌서원(文獻書院), 영해 단산서원(丹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옥파 이종일(沃坡 李鍾一)

옥파 이종일 선생은 1858년 11월 6일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의 닻개(碇浦)에서 성주 이씨인 교환(敎煥)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그는 일찍 고향에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머리가 매우 명석해서 감히 다른 사람들이 그를 추종할 수가 없었다.

또한 그는 호를 옥파라 하였는데, 그후 천도교에 입교(1905)한 다음 묵암(默菴)이란 도호(道號)를 받았으며, 그 밖엔 필명(筆名)으로 천연자(天然子)·중고산인(中皐散人)·중현(中軒) 등이라 하였다.

옥파선생은 일찍 15세 때에 응지를 품고 고향을 떠나 상경(1873)하여 다음 해 문과에 급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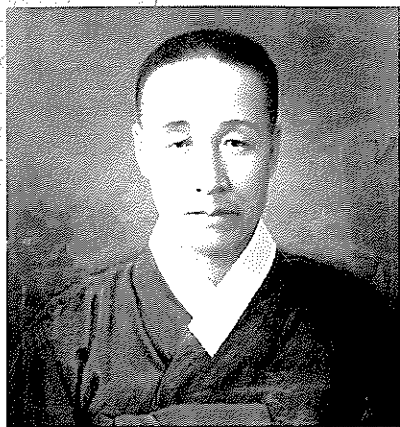
그후 1882년에는 박영효(朴泳孝) 수신사를 따라 일본(日本)에 건너갔었는데, 당시의 일본사회의 개화된 실상을 목격하고 귀국하였다.

옥파선생은 이때부터 마음의 한 구석에서 개화사상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적으로 개화이념의 영향을 받은 것은 그후로 16년 뒤인 1898년의 윤양 김윤식(雲養金允植)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김윤식 선생은 당시 대한학자(大漢學者)였는데, 옥파선생은 그의 계동(桂洞) 자택에서 개화사상을 배우고 사제의 인연을 맺었던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열강의 각축전 속에 국운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만큼 누란의 위기에 봉착했던 구한말(舊韓末), 이때 옥파선생은 분연히 일어나 구국운동의 선두에 나섰다.

우선 固陋한 舊習을 打破하지 못하고 있는 國民들에게 개화사상과 자강의식을 鼓吹시키고 啓蒙하기 위해 純한글로 된 帝國新聞을 創刊하였던 것이다.



〈이종일 선생〉

또한 옥파는 오늘의 새마을 정신에 해당되는 이른바 「新村精神」을 제창하여 국민의 의지적이며 보존적인 정신을 개조하여 진취적이며 활성화된 국민의식의 재구성을 추구하였다.

이같이 선각자로서의 뛰어난 探究力과 총명한 재질을 지닌 옥파선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警鐘一世的 直筆을 휘두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특히 옥파는 실학계통의 학문을 전수하여 이를 실천하였으니, 즉 새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신교육을 실시하여 인재양성은 물론, 여성교육의 필요성과 여성

성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발달한 서양의 물질문명을 받아들여 시국근대화를 촉진시켜 국력을 권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옥파선생은 獨也靑靑한 志操와 의로운 행동으로 68년간의 생애를 통해 애국애족의 일념에 한 점의 추호도 없었으며, 더구나 3.1독립 운동에 즈음하여 일제하의 장엄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각 要路에 배부한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1독립 운동이 獨立宣言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찾을 때에 이 33인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이 33인의 이름은 우리 近代史의 위치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중 일부 인사들이 변절 또는 挫折하였으니,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옥파는 33인의 命脈의 의미를 살린 인물중의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족대표 33인중의 한 사람이었던 옥파선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의아심마저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옥파이종일선생은 길이 千秋에 特技해야 할 人物인 것이다. 이렇게 일본제국주의 총칼과 맞서 싸우며 오로지 救國一念 속에서 한스런 생을 마친 고귀한 분이었다.

이미 90년전에 제창한 옥파의 포부와 애국사상은 오늘에 이르러 더욱 새롭게 빛나고, 또한 후인들에게도 길이 木鐸이 되고, 아울러 不滅의 상징으로서 민족의 指標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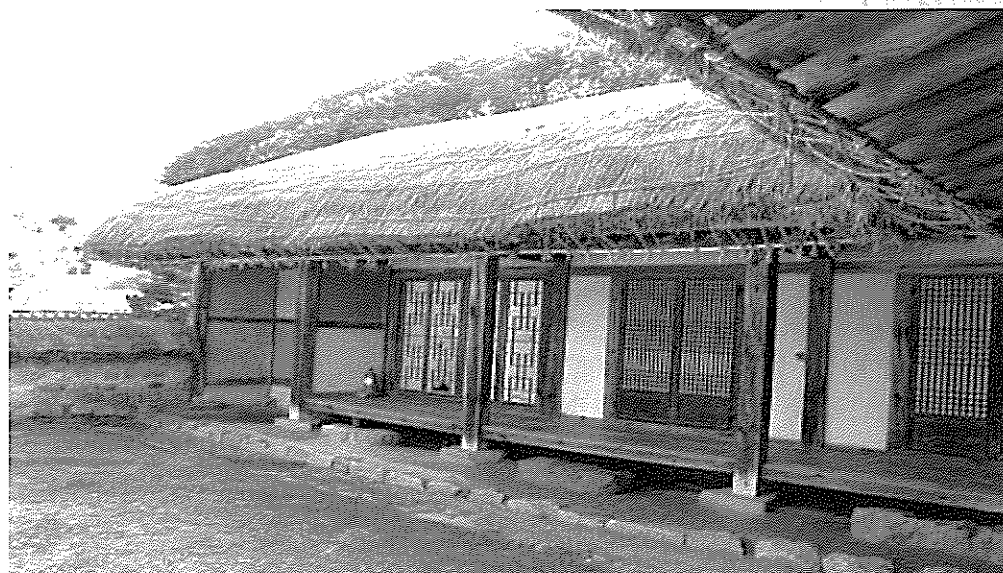
특히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정신 계발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옥파는 3.1독립 운동 당시 民族代表로서 직접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낭독한 독립운동가이며, 따라서 언론인 교육자, 종교인, 개화사상가, 한글학자 실학자 여성운동의 先覺者 그리고 민족주의자로서의 뛰어난 애국사상가였다.

1. 獨立運動家로서의 沃坡

沃坡先生の 獨立思想을 행동화의 길로 더욱 치닫게 하고 아울러 大韓의 獨立을 熱望케한 것은 1910년의 9월 末頃부터였다.

月南先生の 권유로 獨立協會에 加入하였고, 또한 普成社內에 獨立運動의 中樞的 역할 수행을 위



〈이종일 선생 생가〉

해 秘密結社로 天道敎國團을 조직하고 그의 團長에 就任하였는데, 이때 名譽총재로는 손병희, 부단장 김홍규 그리고 총무엔 張孝根이 선출되었다. 그 후 1919년 1월 22일 고종황제 毒殺事件으로 인해 民衆이 격분하여 切齒腐心하고 있을 때 沃坡先生은 이제야 말로 우리의 宿願인 民族主義 民衆運動을 本格化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 기회에 民衆示威 救國運動을 전개하는데 진정한 민중운동으로 퍼나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獨立宣言書를 身命을 바쳐 인쇄하기로 결심하고 沃坡李鍾一, 張孝根 崔南善, 金弘奎, 申永求 등과 普成社에서 문을 굳게 잠그고 비밀리에 인쇄에 들어갔는데, 우선 1次로 1919년 2월 25일에 25,000枚를 인쇄하여 天道敎本部로 운반하여 보관하고, 다음 2次로 同月 27일에 다시 1萬枚를 增刷하여 모두 3萬5千枚를 인쇄하였다.

이렇게 獨立宣言書의 인쇄를 성공리에 마친 沃坡先生은 28日 저녁 孫秉熙 宅에 찾아가 民族代表 33인의 한 사람으로 獨立宣言書에 署名捺印하고 집에 돌아왔으나 「잠이 오지 않는다. 새벽3시쯤 되었을까 몹시 마음이 설레인다」고 述懷하고 있는데, 沃坡備忘錄에 따르면 당시의 心境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自主獨立國임을 世界萬邦에 宣言하고 國民들은 萬歲를 高唱하는 聖스러운 날이다. 오늘의 舉事가 기필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라고 기도하였다.

3月 1日은 토요일이며 날씨도 淸明하고 따뜻하였다. 沃坡先生은 泰和館에서 義菴 孫秉熙씨의 지시를 받고, 즉 獨立宣言書를 직접 인쇄하고 배부하였으니 朗讀하라고 해서 沃坡李鍾一先生은 郎郎한 목소리로 「吾等은 茲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을 宣言하노라……」하고 단숨에 읽어내려 갔다.

이때 孫秉熙는 崔麟에게 日本警務總監府에 電話로 所在을 알리게 하고 당당하게 스스로 잡혀가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李甲成을 總督府에 보내어 獨立宣言書를 제출케 하고, 鎭路警察署에는 다시 人便을 보내어 알렸다.

義菴의 이 같은 處事에 일부 代表들이 露骨의으로 不滿을 吐露했으나, 天道敎의 代表들은 대부분 義菴의 지시를 따랐으며, 그리고 基督教의 代表들은 차려 놓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예수께 기도만 올리면서 경건하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같이 舉事의 내용을 알린 약 20여분 뒤에 日本警察은 5대의 自動車와 수 십명이 달려와 삼시간에 泰和館을 포위하였다.

이때 義菴은 泰然自若한 姿勢와 仙骨風으로 日警을 壓倒하고 있었다. 그리고 韓龍雲은 「오늘의 우리 모임은 곧 獨立萬歲를 高唱하여 獨立을 爭取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장서고 民衆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身命을 바쳐 自主獨立國이 될 것을 期約하고자 여기 모인 것이니 正正堂堂하게 最後의 1人까지 獨立爭取를 위해 싸웁시다」라고 낭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뒤이어 大韓獨立萬歲를 소리 높이 3창하고 民族代表 一同은 義菴을 선두로 日警에게 체포되어 鍾路警察署에 連行되어 갔다.

이렇게 連行된 一行中에는 그들의 酷毒한 拷問으로 인해 일부 人士들이 變節하고 있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孫秉熙 吳世昌 權東鎭 崔麟 李昇薰 韓龍雲 李明龍 洪秉箕 權秉惠 金昌俊 등은 毅然한 氣魄을 보여 기분이 상쾌하다고 沃坡先生은 自己의 備忘錄에 당시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沃坡先生은 不義 不正을 보고는 참을 수 없는 潔癖性이 있어서 비겁한 자들의 소행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爲人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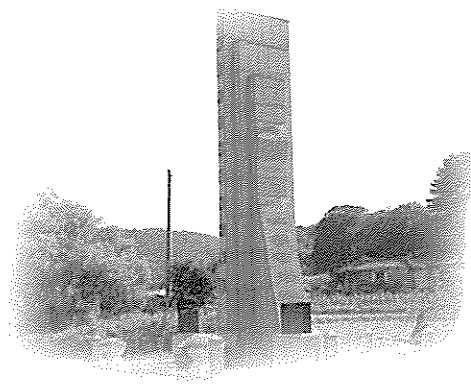
萬歲獨立運動後 즉시 체포되어 구속되었으나, 日本警察의 訊問에서 沃坡先生은 「우리의 독립 운동은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身命을 다바쳐 계속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였다.)

이에 日本警察로부터 「李鍾一이라는 자는 지독한 악질이다」라는 욕설을 들었다. 또한 그들로부터 民族代表者가 된 동기를 말하라고 하니 沃坡先生은 나는「帝國新聞 社長으로 10여년간 實務까지 맡았으므로 항상 民族思想을 堅持하고있었다. 우리나라는 日本에 강제로 併呑되었으니 獨立國이 되는게 나의 所願이다. 그렇게 되려면 獨立宣言書 代表者의 한 사람이 되어 民衆을 편안하게 이끌어야 하겠다는 決心으로 가담 했다」고 주저치 않고 힘주어 답변했다.

그 후 재판 결과 拘束된 一行中 李鍾一 孫秉熙 崔麟 吳世昌 權東鎭 李昇薰 韓龍雲 咸台永 金昌俊 등은 3年の 最高刑을 言渡받고 服役中에 만기 3個月을 앞두고 2年 9個月만에 假出獄되었는데, 이때 沃坡를 비롯하여 吳世昌 權東鎭 崔麟 金昌俊 咸台永 韓龍雲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出獄된 沃坡 조금도 信念을 굽히지 않고 다시 獨立運動을 展開하기 위해 自主獨立宣言文을 손수 作成하여 己未 3.1獨立運動 3周年이 되는 날인 1921年 3月 1일에 재차 示威를 벌릴 계획이었으나, 印刷中에 日警에게 발각되어 未遂에 그치고 말았다.

이 第2의 自主獨立宣言文의 내용을 살펴보면「우리 大韓은 堂堂한 自主獨立國이며 平和를 愛護하는 世界의 으뜸가는 國民이다」로 시작하여「우리들의 獨立투쟁은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普成社 社員들은 다시



〈기념비〉



〈이종일 선생 동상〉

蜂起하여 祖國獨立을 위해 最後까지 목숨을 바칠 것을 決意하고 宣言한다」라고 하였다. 이어「우리의 國魂이 健全하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蹶起해서 日本을 逐出해야 하며, 그리고 社會主義 風潮를 拂拭해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우리의 前進에는 光榮과 幸福이 있을 뿐이니 속히 이 독립운동의 隊列에 모두 참가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이는 매우 希望의이고 說得力이 있는 宣言文이다.

이 自主獨立宣言文은 純漢文으로 쓰여져 있는데 모두 726字로 되어 있다. 己未獨立宣言書에 비하여 그 내용이 더욱 強硬하고 또 自主獨立을 切實히 渴

求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즉 獨立이란 單語를 13번이나 되풀이하여 使用하고 있는데 반하여, 己未獨立宣言書에서는 단 3번 밖에 使用치 않았다.

2. 言論人으로서의 沃坡

沃坡李鍾一先生은 1898年 8월에 帝國新聞을 創刊하여 10餘年間 經營해 오다 결국 日帝에 의하여 강제 廢刊 당했는데, 이 帝國新聞은 당시 우리 社會가 漢文을 숭상하고 한글을 諺文이라 하여 賤視하여 外面하던 때에 先覺者의 慧眼으로 과감히 한글 專用的 우리나라 最初로 女性 대상 日刊紙를 創刊했다는 것은, 앞을 내다 본 先覺者의 創意力이 아니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帝國新聞을 발행하기 위해 약 8개월간의 치밀한 계획과 연구를 거듭하였는데, 최초로 신문 발행에 관해 상의한 사람은 柳永錫이었다.

柳永錫과 신문 발행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 新聞刊行의 目的을 다음과 같이 沃坡는 力說하였다.

「생각하건대 國家의 開明과 開化를 위해서는 新聞만한 것이 없고 또한 國家의 主人으로서의 民衆이 으뜸이므로 우리들의 使命이 더욱 重大하다고 하였다.

또 獨立新聞은 民衆을 선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은 婦女子層을 開明케 하는 데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니, 만약 내가 앞으로 新聞을 발행한다면 期必코 創刊號부터 婦女子의 啓蒙紙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같이 부녀자를 대상으로 신문 간행을 꾀한 것은 우리 국민의 過半數 이상이 婦女子인데, 그들은 漢文知識이 거의 없는 下層階級에 속해 있으므로 이들을 한글로 계도함으로써 막대한 女性資源을 國家發展에 活用하고자 함이었다.

이같이 未開한 國民을 開化시키는 媒體로서는 무엇보다도 新聞만한 것이 없음을 沃坡先生은 鐵石같이 믿고 있었다.

또한 新聞이란 文明과 開化를 促進시키는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며, 나아가 國民大衆을 弘報하는데 가장 緊要한 것으로서 新聞만한 것이 없다고 했으며, 그리고 徐載弼를 방문하여 時國觀에 대해 歡談하는 과정에서 徐氏가 말하기를 民權은 곧 人民의 權利이며 正道이므로 이를 固守하는 것이 善

을 것이다. 힘을 다해 이事業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方法의 하나로서 新聞을 創刊하는 것이 제일이니 힘을 다해 新聞을 발행하라고 강조했다.

옥파선생은 앞에서言及한 柳永錫을 비롯하여 崔廷植 李鍾冕 李鍾文 鄭喬 張志淵 劉盤 南宮億 尹致昊 張孝根 등과 熟議한 끝에 마침내 1898년 8월 8日자로 帝國新聞의 창간 第一號를 발행함으로써 우리 나라 最初의 女性新聞이 되었으며, 따라서 우리 나라 발행의 日刊新聞으로서 세번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같이 帝國新聞의 女性啓蒙 효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創刊 당시 2千部를 발행하던 것이 불과 3個月만에 3千 5百部로 増刊되었으니 女性代辦紙로서의 名實相符한 그 使命을 다하였으며, 특히 獨立協會 회원의 弘報機關化할 정도로 그 威勢가 당당하였으니 당시의 高宗皇帝께서도 帝國新聞의 論調와 그 使命感의 至大함을 알고 發行者인 沃坡李鍾一先生을 致賀하였다.

이처럼 제국신문이 女性啓蒙에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즉 3.1獨立運動 당시 수 많은 女性들이 피를 뿌리고 苦楚를 겪었는데 이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民族史에 영원히 빛날 이름들이 있으니 그는 柳寬順을 비롯하여 金마리아 吳玄洲 吳玄觀 李貞淑 李信愛 등을 우선 들 수 있다.

獨立運動에 참가했다 하여 日本警察에 체포된 女性들이 무려 400여명에 달했었다 하니, 이는 당시의 女性運動이 방대하였음을 端的으로 말하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 底力은 오로지 帝國新聞의 先驅的인 女性啓蒙 및 그 啓導에 힘입은 까닭이었다.

沃坡先生은 帝國新聞을 創刊 그의 발행에만 專念한 것이 아니라, 이 밖에도 大韓皇城新聞 獨立新聞 大韓新報 萬歲報 大韓每日新報 그리고 天道教月報課長 등을 거치면서 國民啓蒙을 위한 많은 글을 執筆하여 실로 그의 言論思想은 國民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어갔던 것이다.

특히 그의 春秋筆法의 銳利한 筆鋒은 당시 腐敗 不正을 일삼는 執權層을 놀라게 하였으며, 滔滔하게 흐르는 江물처럼 한구석의 막힘도 없는 沃坡先生의 筆致는 國民들에게 널리 膾炙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淸高하고 銳利한 沃坡의 史筆論法은 絶望의 문턱앞에 섰던 舊韓末의 우리 社會에 등불이 되었으며, 그리고 나라의 앞날을 提示하는 청사진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帝國新聞은 당시의 啓蒙的인 기능면에서 國民들에게 새롭고 希望的인 큰 힘을 부여해 주었던 것이다.

沃坡先生은 論說을 통해 國民의 進路를 啓導하고 아울러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教育 宗教 言論 軍事 外交 女性問題 등은 물론 精神文化面에도 直筆을 휘두르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따라서 沃坡의 論說은 올바른 비판과 代案의 提示로 國家興隆의 推進의 의견을 담당했던 것이었다.

3. 教育者로서의 沃坡

沃坡李鍾一先生은 나라가 開化하고 富國強兵을 이룩하려면 教育以外的 좋은 길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民權이 바로 國權인 까닭에 民力을 기르고 봉건체제를 改善하기 위해선 우선 民衆啓蒙學校를 設立하여 人材育成을 先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沃坡先生은 國力培養의 지름길은 오로지 教育밖에 없음을 굳게 믿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1898년 11월 서울에 興化學校를 세웠으며, 다시 3年後인 1901년에는 國文學校를 建立하고, 이어 普

光學校(1905)와 普成學校(1908) 校長에 就任하여 직접 教育活動에 힘을 쏟았다. 당시의 우리 社會相이 人材育成과 才能開發이 시급함을 切感하고 이렇게 몸소 教育에 뛰어든 것이다.

또한 沃坡先生은 教師는 酵母役割을 해야 한다고 教師論을 主唱하였는데, 教育을 이렇게 비유했다. 즉 教育은 國家의 뿌리가 되고 知識은 나무의 줄기가 되며 國權은 나무의 열매나 다름없다고 하였다. 教師는 이러한 教育이라는 나무를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자라나고 뿌리가 튼튼하며 열매가 풍성하게 잘 열리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또한 직접 가꾸는 育林人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教育風土라는 분위기의 淸濁이나 맛 그 花采, 그리고 방향까지를 결정하는 酵母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教師各自가 누룩의 구실을 하면 머지않아 教育全體를 바꾸어 놓을 만큼 그 役割은 대단히 큰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沃坡先生은 특히 家庭教育의 重要性을 강조하면서 教育 中에서도 家庭教育이 첫째가는 敎育으로서 이것은 義를 존중하는 인간으로의 形成을 위한 父母들의 노력이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沃坡先生은 父母들의 言行은 물론이지만 家庭에서 듣고 보는 가운데 자연히 익히고 깨우치는 것이 많으므로, 엄격한 家訓으로 또는 家法으로 가정이 지닌 教育的 分위가 家風의 重要性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로부터 偉大한 인물은 이 같은 家法이 엄격한 家庭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沃坡先生은 어린이의 成長과 育兒法에 대하여도 言及하였는데, 특히 어릴 때의 家庭教育이 平生을 左右한다고 강조하며,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장난을 좋아하며 몸을 움직이고 싶어하는데, 이는 자연의 理致이니 禁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장난이 지나칠 때는 이를 미리 禁止시키고, 그 대신 숫자 놀이 그림 조각 맞추는 법 나무가지로 城을 쌓고 집 짓는 법 등을 가르쳐야 한다. 이는 思考力을 기르며 合算과 나눗셈을 가르쳐서 슬기의 門을 열리게 하는 것이다. 또 목마와 종이 연(紙鳶) 그리고 어름치기 등의 놀이를 해서 身體를 단련시켜야 한다.(智德體→全人敎育) 아울러 食事하고 잠자는 시간은 일정시간을 정해서 이를 어기지 않도록 말과 행동과 어른 공경하는 예절과 친구 사귀는 법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한글學者로서의 沃坡

沃坡先生은 앞에서 말한 帝國新聞을 순한글로 발행하였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가 한글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沃坡先生은 1909년 9월 大韓帝國國文研究所의 研究員에 被任되어 한글연구에 專念하였다. 그는 한글의 實用主義的인 見解를 주장하였는데, 다른 학자들이 古篆이나 梵字 起源說을 주장한 것에 반하여 沃坡先生은 發音器官說을 강조하였다.

訓民正音 解例本이 발견(1940)되기전의 沃坡先生의 이 器官說은 놀라운 卓見이었다고 南廣祐교수는 언급하였다.

즉「ㅇ ㅅ ㅈ ㅊ ㅋ」 등의 5字를 基本으로 하여 여기에 加劃加點하여 製字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喉齒牙舌脣音이 각각 발음 기관설을 상징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순음 또한 沃坡先生의 諺文義解에 따르면 天音(初聲)24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天音 24字

5音			天音	形象(發音)
宮	土	喉音	ㅇ ㅁ ㅎ ㅍ (으 호 ㅎ ㅍ)	목구멍形象 소리가 목구멍서 남. 이의 형상 소리가 잇사이서 남.
商	金	齒音	ㅅ ㅈ ㅊ ㅌ ㅍ (스 ㅈ즈 ㅊ즈 ㅌ즈 ㅍ즈)	이의 형상 소리가 잇사이서 남.
角	木	牙音	ㄱ ㅋ ㆁ ㄷ (크 ㅋ크 ㄴ)	어금니 형상 소리가 어금니쪽서 남.
徵	火	舌音	ㄴ ㄷ ㄹ ㄹ ㅌ (느 드 트 르)	말린 혀의 형상 혀의 움직임으로 소리 남.
羽	水	脣音	ㅁ ㅂ ㅍ ㅍ (므 ㅂ 브 프 새)	입술의 형상 입술의 움직임으로 소리 남.

(2) 地音 11字

ㅇ ㅣ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ㅛ ㅜ (ㅇ이으오우아어요유야여)는 宮이요 土인 목구멍 소리이며, 따라서 이 地音11자를 基本으로 여기에 加點加劃하여 만든 것이다.

(3) 人音 8字

ㅇ ㅅ ㄱ ㄴ ㄷ ㄹ ㅁ ㅂ (응웃옥은으드을음읍)는 人音 8字는 바로 天音의 分子이면서 다만 그 音만을 달리하여 天과 地의 끝 위치에 있어서 天의 道를 行하며 地의 德을 세워, 가는 곳마다 융합되며 배푸는 곳마다 변화해서 天地人(三才)의 合一하는 大本이며 大功勞者인 것이다.

대개 이 3音은 모두다 天5 地2라는 7字에 基因하여, 변해서 35字가 되고 두 번 다시 변하여 43音이 되어 서로 符合하면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면서 각기 그 글자를 이루고, 글자마다 音을 달리하여 千言萬語를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또한 沃坡先生은 한글의 教授法을 研究하여 從來의「가가거겨」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天音(ㄱ ㄴ ㄷ ㄹ...)과 地音(ㅏ ㅑ ㅓ ㅕ...)의 글자를 합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科學的인 教授法이었다.

이같이 우리 한글을 體系적이고 合理的으로 研究함으로서 周時經 선생보다도 10여년이 앞선 것이라 하니, 이는 한글 學者로서의 명분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한글」이란 명칭을 沃坡先生이 最初로 使用했다고 하니 이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히 研究되어야 할 문제이다. 沃坡李鍾一先生은 우리 한글만으로 모든 學問이 가능한데 왜 한글을 소홀히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어려운 漢文을 배우다가 다 깨치기도 전에 漢文속에서 늘어버리게 되니, 어느 겨를에 새 학문을 배울 시간이 있느냐고 한탄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國文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제목으로 帝國新聞(1900. 1. 10)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도 國文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漢文과 比較하면 國文이 훨씬 편리하고 과학적인 理致로 짜여져 있어 배우기도 쉽고 漢文보다 表現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가히 世界의 글 중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온 國民은 모두 國文을 힘써 사용하고 연구해서 발전시키면 世界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훌륭한 글이 될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한글을 諺文 또는 아녀자의 글이라 賤視하고, 배우기 어렵고 쓰기 힘들며 말을 만들기도 어려운 漢文만 글로 여겨 政府文書나 通信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漢字만 使用하고 있다.

우리 국문은 世宗大王이 創製하셨는데 字母音을 구별해서 즉「ㄱ ㄴ ㄷ...」등 17字의 子音과「ㅏ ㅑ ㅓ...」등 11字의 母音을 만들어 이것이 합해져야 글자가 되도록 하였다.

子音은 입안의 소리나는 곳에 따라 입술에서 나는 소리, 혀에서 목구멍에서 잇사이에서 등 다섯 군데 소리가 달라서 입 모양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母音도 입 벌리는 정도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각각 子音과 합해져 하나의 글자가 된다. (ㄱ과 ㅏ가 합해서「구」가 되고 구에다 ㅓ를 더해「귀」를 만들고 귀에다 ㅓ 받침을 해서「권」이 된다).

이렇게 한글은 理致가 분명하고 말을 만드는 方法이 科學的이므로 우리는 비록 諺文이라 賤視하고 있지만 外國人들은 한글의 精妙함을 칭찬하고, 우리 國民들이 이런 글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책도 많이 만들고 新聞도 刊行해서 文盲한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主人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팽개쳐 둔 채로 있다. 가령 東西洋의 史記 聖典이나 法律 章程 등을 모두 한글로 번역해 사람들이 읽기 쉽게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 형편을 알게 되고, 또 좋은 책을 읽어 행실을 바르게 가지려 노력하고, 다른 나라의 사정을 알고 경쟁심이 일어나 나라를 위해 힘쓸 것이니 참으로 보람있는 일이라 하겠다. 배우기 어려운 漢文에 매달려 科擧試驗에 급제하는 것만 성공으로 알고 다른 事業을 할 여유가 없었으니 어떻게 나라가 발전할 것인가.

위의 말은 漢文을 숭상하지 말고 배척하며, 한글만 공부하는데 힘쓰란 말이 아니고, 한글도 漢文과 같이 중하게 여겨서 널리 쓰고 연구해서 발전시키면 한글이 世界에 빛남과 아울러 나라도 명예롭고 富強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沃坡先生은 大韓協會報 第2號에서「國文을 論함」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 國文은 28字만으로도 千言萬語를 능히 만들어낼 수 있는 神技한 글자로서 그 배우는 법도 역시 쉬워서 하루 이틀이나 4, 5일 동안이면 그 뜻을 환히 깨닫고 책을 대하면 수월하게 읽을 수 있으니, 그 편리하고 알기 쉬운 것은 世界 여러 나라 글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강조했다.

5. 結 言

沃坡先生은 1858년에 出生하여 1925년에 他界할 때까지 一生을 오로지 나라 사랑의 一念으로 獻身한 보기 드문 愛國思想家였다. 특히 言論을 통해 國民을 啓導하였는데, 그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教育 軍事 外交 등 多方面에 걸쳐 直筆을 구사하여 社會改革에 劃期的인 成果를 거두었다. 이 같은 多方面에 걸친 내용을 모두 考察함이 당연한 것이었으나, 地面上의 制約으로 인하여 일일이 言及하지 못하고 本論에서 우선 沃坡의 獨立思想을 비롯하여 言論 教育 한글 등에 관한 분야만 言及한 것은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새마을 운동의 根幹인「新村精神」을 비롯하여 實學 및 宗教思想을 다루지 못한 점은 몹시 안타깝지만 다음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한가지 다행스런 일은 지난 1979年 3月 沃坡李鍾一先生의 生家を 박춘석(朴春錫)이 발견하고, 그 후에 沃坡李鍾一先生追慕業遠北推進委員會를 組織하여 그동안 生家を 復元하고 祠宇(忠愛祠)를 建立(1990年 5月)하여 그의 高潔한 愛國思想을 繼承하는 한편 泰安郡民의 精神的 支柱로 받들기 위해 94년 3월 1일부터 3.1절 기념행사를 그의 生家와 忠愛祠 광장에서 거행하여 오고 있다.

선학리(仙鶴里) 지게놀이

1. 발굴 및 재현의 동기

지게놀이는 산촌(山村) 풍속의 하나이다. 마을 사람들이 가을에서 다음 해 봄까지 여럿이서 혹은 혼자서 근처의 산으로 '나무' 하러 다닌 것은 일상적인 생활 모습이였다. 그러므로 지게놀이는 '나무' 하던 현장인 "산(山)"에서 간혹 '나무' 이외의 목적으로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런데 공주의 선학리 지게놀이는 농촌(農村) 풍속의 일면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들판"에서 전승되던 지게놀이가 새로이 재현된 것이다. 새로이 소개되는 지게놀이는 <지게 꽃나비>, <지게 지네발>, <호매이(호미) 끌기> 등이다. 이것이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의 제일 큰 특징이다. 두 번째 특징은 "연출(演出)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조작(造作)된 지게놀이"가 아니라, 공주 선학리라는 마을 공간에서 전승되는 놀이로만 "재현(再現)"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 참여하는 사람들도 전원 "마을 토박이들"이란 점이다.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의 특성을 든다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것이다.

- ①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는 기존에 재현된 지게놀이가 산촌형인데 비교하여 산촌형과 농촌형의 중합형(綜合型)이다.
- ②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는 선학리 마을 사람들에게 전승되는 생활의 참모습을 소박하게 제시했다.
- ③ "21세기"와 "국제화 시대"에 우리 민속예술축제의 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2. 지게 놀이의 의의

공주시 신평면 선학리는 공주시 일원에서는 유일하게 지게 놀이가 5종 이상이 한 마을에서 나온 독특한 사례다.

계룡면 구왕리에서는 <지게 지네발 놀이> <지게 다리 놀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마을에서 <상여놀이>와 <지게 장단 소리> <작대기 싸움>은 일반적으로 행하였으나 2-3종 이상을 즐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각종의 놀이를 현재까지 재현할 수 있는 마을이 많지 않아서 노인들에게 부탁드려 한두가지를 재현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선학리에서는 국도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삼태기형의 특이한 지형으로하여 외부와의 교류가 적은채로 안이 생활을 영위한 영향으로 독특한 민속이 변형없이 보존되어 왔으며 이러한 민속으로는 <꼬대각시 놀이> <웃두기> <보리풍년 웃놀이> 이 채록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지게놀이 역시 쉽게 재현하였다.

선학리 지게놀이는 기존에 발굴하여 발표된 각 지역의 지게놀이 재현관련 기록(전국민속예술제)이나 관련 논문에서도 발표되지 않은 몇가지 놀이를 포함하고있어서 독특함에 있어서 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나무꾼들의 놀이 형태 만이 아니라 생활 유희로서의 지게놀이와 두레판(백중놀이)에서 집단형으로 이루어진 지게놀이를 포함한다는데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두레 막음하는 날 즐겼다는 낫다리 밟기형의 기계 놀이인 <지게 지네발 놀이>와 무동(舞童)이 놀이와 흡사한 <지게 꽃나비> 호미 씻기의 변형으로 보이는 <호미 목 매달기> 지게 걸음마와 같은 <작대기걸음마>등은 선학리에서 그 첫모습을 보이는 놀이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지게놀이는 지게와 함께 생활하는 농민들의 놀이에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며, 단순한 농기구를 가지고 다양한 놀이를 집단적으로 즐기는 한 민족의 고유성과 흥을 보여주는 서민적 정서가 듬뿍 배인 놀이이라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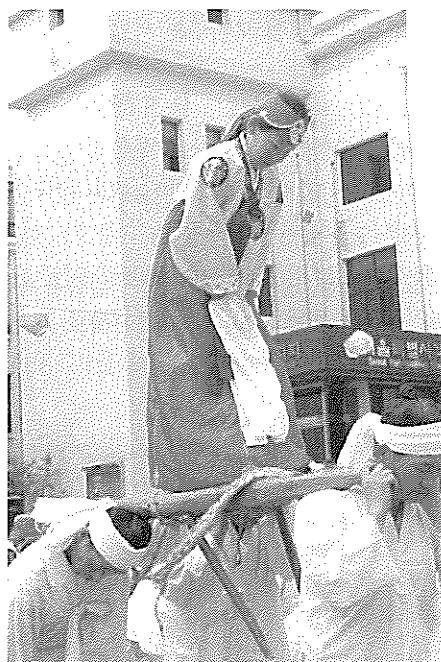
3. 선학리 지게놀이의 종류

* 놀이의 개요

- 지게상여 : 지게 2-3틀을 이용하여 상여처럼 꾸미고 요여, 만장, 명전, 공포등 상여 일습을 꾸며 행상하는 모양을 흉내내며 행상소리로는 <만가>를 이용하며 지게 2틀의 작은 상여는 지게 상여로 3틀의 큰상여는 대감 상여로 부른다



- 지계풍장 : 지계 작대기와 썰목을 잡고 작대기로는 지계 목발을 치고 썰목으로는 작대기와 지계를 치는 행위로 풍장(農樂)의 가락을 치며 즐기는 행위의 놀이. 길곳나비(굿거리), 물풍당이 풍장. 세마치 잣은마치 등 마을에서 풍장으로 치던 가락은 모두 쳐 가락이 다양하다.
- 지계발걸기 : 지계위에 올라서서 걷는 놀이. 단순히 빨리 가기와 혼자서 즐기는 놀이로 아이들이 즐기며 지계 걸음마로 부른다.
- 작대기 걸음마 : 작대기에 지계고리를 걸어 고리를 무릎 높이에 만들어 올라서서 걷는 방법과 나무의 가지를 이용하여 만든 작대기 걸음마 2종이 있으며 역시 아이들이 즐겨 한 놀이로 선학리에서 처음 보이는 놀이 중 하나다.
- 힘자랑 : 두레판에서 장정을 뽑기 위하여 지계에 작대기 셋을 가로 언저 놓고 사람 셋이 탄 상태에서 지고 일어서기를 겨루는 놀이. 공주시에서는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계룡면 유구읍 등의 일부 마을에서 보이는 놀이로 보통 체중의 남자 3인의 무게는 180Kg. 백미 2가마 이상의 무게라서 장사가 아니면 지고 일어서지 못한다. 백중날 남녀 노소가 모인 속에서 즐겼다 한다.
- 지계목발 노래 (지계 장단) : 지계 작대기와 썰목을 잡고 작대기로는 지계 목발을 치고 썰목으로는 작대기와 지계를 치는 행위로 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놀이. 1) 잣은 아리랑 2)노랫가락을 즐겨하며 나무꾼의 놀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그렁박타령이라는 노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후렴제 밖에 남지 않아 정확한 소리를 찾지 못했다.



- 지계 지네발놀이 : 지계 5- 15틀을 나란히 세워 잡고 지계 가지를 밟아 나가거나 지계 목발을 잡고 지계 가지가 땅으로 향하도록 넓혀 균형을 잡은 위로 놀이꾼이 춤을추며 지나가면 아녀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지계는 계속 앞으로 나가 발판을 마련해주는 <숫다리 밟기>형의 지계놀이. 지계를 세워잡고 있을 때 지계 가지가 지네발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하며 공주시에서는 계룡면 구왕2리와 신평면 선학리에서만 이 놀이를 즐긴 것으로 채록되며 타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놀이다. 남자들은 서로 빨리 가기를 즐기기도 하였다한다.
- 지계 꽃나비 : 두레 풍장을 치며 들에서 마을앞 공터로 이동할 때 충청도 일원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어깨 무동(일명: 꽃나비)의 변형으로 3인의 남

자가 앞1명, 뒤에 2명이 지계를 어깨위에 메면 소년 무동이 지계 등받이 위에 서서 춤을 추는 놀이. 어깨에 무동이를 세우고는 멀리 갈수 없어서 지계위에 태우기 시작한 것이라하며 때로는 어깨무동이와 지계 무동이를 함께 세우기도하였다한다. 공주시에서도 선학리밖에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놀이다.

- 지계 호맹이(호맹이 목매달기) : 두만물 두레 논배기를 끝낸 농부들이 지계고리에 호미를 10-15개를 묶어 바닥에 끌리게 늘어 뜨리고 풍장패의 뒤를 따라가는 놀이.
<호미 씻기>놀이의 일종으로 보이며 논을매는 일이 힘든 농부들이 논을 매는데 사용하는 호미를 목매달아 죽여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행한다고 전한다.
공주시에서는 신평면 일부 마을에서 채록된다.

4. 선학리 지계놀이의 특징

· 처음 발굴된 놀이들

- 1) 지계 지네발 놀이 : 타지방에서 선보이지 않는 놀이 중하나. 일반 민속의 숫다리 밟기를 지계를 사용해서 밟아 나가며 후렴제가 있는 노래를 부르며 함께 어우러지며 남자들이 지계를 대고 밟아나가고 아낙네들이 소리를 하며 놀아 남녀가 함께 어우러진다.(공주시 계룡면 구왕2리에서도 같은 놀이가 전래 됨)
- 2) 지계 꽃나비 : 타지방에서 선보이지 않는 놀이 중하나. 두레 막음하는 백중날 논배기를 일찍 끝내고 마을 앞 공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동이를 앞 세우고 풍물잡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는데 들과 마을의 거리가 멀어(1.5Km) 무동(꽃나비)을 세우고 이동하기 힘들어서 지계를 세 사람이 맨 위에 무동이를 세웠다하며 때로는 어깨무동과 지계 무동을 함께 세워 즐기기도 하였다 함.
- 3) 호미 끌기 : 타지방에서 선보이지 않는 놀이 중하나. 두레 막음하는 백중 호미씻기 놀이의 변형으로 보이는 놀이로 지계고리에 호미를 끼어 끌고 다님. 호미의 목을 매달아 내년 농사에는 잡초가 적게 나기를 기원하는 의미와 보기 싫은 호미를 목매달아 죽이는 의미로 행해졌다함.

· 타지역 지계 놀이와 선학리 지계놀이의 비교

- 1) 지계 상여 : 지계 상여를 꾸미는 형태가 작고 소박하며 요여, 명전, 공포, 상제 등 행사 행렬을 실제 장례 행렬과 똑 같이 재현하는 점이 다름
- 2) 지계 풍장 : 타지방의 지계 풍장은 세마치 기본 가락만을 치는데 비하여 선학리에서는 <길곳나비><물풍당이 가락><세마치><잣은마치> 등 마을 풍장꾼들이 치는 모든가락을 치고 입으로 풍장의 소리를 내는 <입풍장>이 더해지는 것이 특징적이며, 특히 나무꺾질을 벗겨 나발처럼 말아 호프기를 꽃아 부는 <소나무꺾질 나발>을 태평소처럼 불어 흥을 더하는 모습이 특이함.

3) 지게 장단 소리 : 타지방의 지게 장단은 지게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특이한 소리가 있어서 정형적인데 반하여 선학리에서는 특별한 소리가 없는 단점이 있으나 민요, 노동요 등 흔히 부르는 생활속의 노래를 지게 장단에 맞추어 부르며 함께 즐기는 단조로운 흥의 놀이로 정착되어 있음.

5. 맺음 말

공주 선학리는 산촌(山村)이다. 선학리는 지명 유래에서 이미 산촌(‘오선대’의 ‘선’과 ‘학동’의 ‘학’)과 관련을 맺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절대적인 농토가 부족하여 나무를 팔음으로써 부족한 경제 생활에 많은 보탬을 받았다.

현재 추적할 수 있는 범주에서 선학리는 임진란 이전 경주 이씨가 입향하여 형성된 것이라 생각된다. “버시니”는 임진란을 벗어났다는 말이 지금까지 구전되고 있다.

선학리는 아직까지도 많은 민속이 전승되고 있다. ‘웃두기’, ‘장치기’, ‘네 마치의 풍장 가락’ 등이 남아 있다. 정초에는 산제와 장승제를 지내고, ‘창부 타령’과 기타 ‘소리’가 불리고 있다.

이번 재현되는 지게 놀이는 두레와 관련된 지게 놀이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 동안 재현된 지게 놀이가 산중에서 일어나는 것과 차별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선학리 지게 놀이는 선학리 마을 사람들의 애환을 그대로 나타낸다.



가회리 장군제

매년 음력 1월 3일 마을의 안녕과 태평을 기원하는 고유의 독특한 마을의식이자 집단놀이인 ‘장군제’가 전승되고 있는 세도면 가회리는 부여군 부여읍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가회리는 1리, 2리, 3리, 4리로 편성되어 있고, 장군제가 전승되고 있는 1리는 현재 100여 가구에 약 28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주 생업은 농업으로 비교적 운택한 마을로 알려져 있다. 가회리가 속한 세도면은 백제 유민의 노래인 산유화가(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호)와 두레풍장(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8호)등 다양한 민속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가회리 장군제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기록과 자료가 없어 정확히 알 수 가 없다. 다만 옛날부터 마을의 무병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지내왔으며, 또한 마을에 호열자(장질부사)가 발생하여 이를 물리치기 위하여 지내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다고 마을 원로들은 증언하고 있다.

가회리 장군제는 벼짚으로 장군을 만들어 장군막에 안치하여 제를 지내고 소지를 올린 후 햇불을 들고 풍장을 치며 가가호호 방문하여 안녕을 기원하고, 다시 장군막에 돌아와 장군에게 “나쁜 액을 다 가져 가십시오!”하고 장군똥으로 가서 장군을 보내고 돌아와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추며 흥을 돋구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순서는 산신제 → 장군제 → 액몰이 → 장군 보내기 → 뒤풀이로 진행 되는데 제의에 쓰이는 제물은 모두 남자가 만들었는데 여자는 행렬 이외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춤도 남자가 여장을 하고 추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회리 장군제는 크고 영험했던 것으로 전해오는데 다른 동네의 장군제는 별 효험이 없었지만 가회리만은 신기하게 효과가 있어 병이 나았으며, 특히 6·25전쟁 때는 마을 사람이 죽지 않은 것도

장군제를 지낸 덕이라 믿어오고 있다.

이 장군제는 1955년을 마지막으로 경제적 사정과 이농현상 등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것을 지난 2002년 마을 주민들이 나서 가회리 장군제 보존회를 결성하여 복원 부활시켜 전승해 오고 있다.

한 마을 공동체의 염원을 듬뿍 담은 마을 제의인 가회리 장군제는 마을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여기에 놀이와 여흥을 곁들여 주민들의 화합심을 북돋우는 등 조상들의 공동체적 삶의 지혜가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산신제

· 아침 일찍 제주 축관 풍물패가 제물을 가지고 마을 뒷산으로 향한다.

산신께 장군제가 시작됨을 고하고 마을의 안녕을 축원한다.

· 초헌, 독축, 아헌, 종헌

· 하산 길에 우물을 만나 우물고사를 지낸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므로 그 중요성을 감사하며 좋은 물로 점지 해주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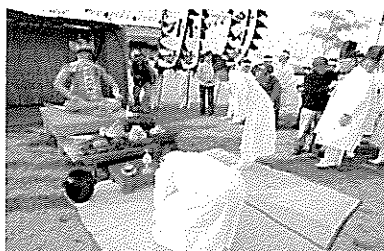
우물 고사소리
조상대대로 천만년 먹여온 물
떨어지면 하려는 동남풍이 서늘불어
흰 구름 걸어내고
억장 같은 검은 구름
사방에서 몰아다가
태천바다 물결 뜻이
억두장마 퍼붓 뜻이
물이나 펄펄나게 하옵소서

장군제

· 마을 공터에 장군막을 짓고 제주덕에서 마련한 제물을 선두로 제주, 장군이 장군막에 안치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제가 시작된다.

초헌, 독축, 아헌, 종헌이 끝나고 마을사람들 각자의 소원을 비는 소지가 올려진다.

무당은 장군에게 잡귀가 범치 못하도록 칼춤을 추고 길배를 갈라 길을 열어 준다.



소지축원문

· 축귀대장군님 우리 마을을 굽어 살피 주시고 삼재팔난 관제구설 우환질병 근심걱정 몽땅 걷어

서 속구철리 허시고 올 한해 농사도 대풍년이 들기를 축원하나이다.

액몰이

· 장군에비가 장군을 등에 지고 참가자 모두는 뒤따라 가가호호 다니면서 액을 걷는다. 마루에 장군을 앉히고 그 앞에 말에다 귀뱀이 쌀을 놓고 그 위에 실과 촛불을 켜 놓는다. 상쇠의 말제간으로 덕담을 하고 고사소리에 본격적인 액몰이가 시작된다.

1. 덕담

· 여보습 전양반

이 액을 뜯어다보니 칠보명산에 오복이 가득한데요.

명지전 복지전이라 장군님 노자돈 좀 두둑히 놓습

· 어 천지신명 일월성신 사해용왕 오방신장님!

이더이명당 토지지신님 전 고사축원 발원이요!

남으택 동정 남으택 거정 이레너저너너하물지라도!

금년 액으로 드시렁들장은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낮이면 물이나 맑으시고! 밤이면 불이나 밝으시고!

관제구설 삼재팔난 우환질병! 근심걱정 다 물러치시고!

부귀공명 수명장수 하옵소서

정철월 이팔월 삼구월 사시월 오동지 읍성달

괴연 열석달 매년 매월 매해!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느 곳을 가물지라도 재수대통 하옵소서

2. 고사소리

· 후렴 고사로다 고사로다 고슬고슬 고사로다

삼팔복을 동문해니 장새불사를 미련하고

개문해니 반복내요 소지해니 함글출이요

상당복도 천년수요 술하지손 만세명이라

없는 지손 구해지고 있는 지손 기르실제

짧은 명은 길게있고 긴 명은 서름서름 서름해가

삼천갑자 명을 받고 석순에 복을 받아

천추만대 부귀공명 발원이라

장군보내기

· 참가자 모두는 들것에 장군을 태워서 메고 마을 앞



장군뚝뚝을 향해 행진한다. 풍물패는 흥겹게 짚은마치를 두드리고, 장군노래를 부르며 뒤따르는 마을사람 모두는 춤을 추며 장군을 배웅한다. 장군을 물속에 앉히고, “축귀대장군 축귀대장군 속거천리하시오”. 일등은 합성을 지르며, 장군이 액을 물고 빨리 가도록 합성을 지른다.

· 장군노래 어화장군아

(앞소리) (뒤소리)
 잘 모셔라 잘 모셔라 / 어화장군아
 우리 장군 잘 모셔라 / 어화장군아
 장군님의 공을 보라 / 어화장군아
 우리 동네 집집마다 / 어화장군아
 반숙무강발어주고 / 어화장군아
 부귀공명 점자하고 / 어화장군아
 판재구설 삼재떨난 / 어화장군아
 우환질병 근심걱정 / 어화장군아
 견어주고 막어주고 / 어화장군아
 정월이라 초사혼날 / 어화장군아
 조리장수 어디갔나 / 어화장군아
 동방이라 천룡장군 / 어화장군아
 서방이라 백호장군 / 어화장군아
 남방이라 적제장군 / 어화장군아
 북방이라 흑제장군 / 어화장군아
 중앙이라 황제장군 / 어화장군아
 당제군제 지성하고 / 어화장군아
 세세천년 시회연풍 / 어화장군아
 태평성대 누리보세 / 어화장군아

뒤풀이

장군을 보내고 마을 가까호호 정결하고 각자의 마음이 정화 된 것을 기뻐하고 마련된 술과 음식을 나누며 화합하는 마당이며 협동 단결의 장이며 공동체의식으로 하나 됨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끝맺는다. 그리고 장군제를 마감하는 결산총회를 갖는다.

형제바위



서해바다의 항구 오천항! 여기서 배를 천수만에 띄우면 회변이란 해변을 지나 바다 가운데 여기 저기 섬이 마치 그림처럼 떠있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오천항에서 통통배를 한시간 남짓 타고 가면 달월이란 섬이 있고 빼섬을 우측으로 조금 물살을 헤치다 보면 바다 가운데 큰 바위가 두개 나란히 서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위를 여기 사람들은 형제바위라고 부른다.

보령군 오천면 효자동리에 속해 있는 바위는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이 수호신으로 받들어 지기도 하는 바위다.

이조 중종때 한양에서 결성으로 귀양왔던 한 가족이 결성에서 살고 있었다. 오랫동안 귀양살이가 풀리길 기다렸던 그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도 기다림에 지쳐 죽게 되었다. 그는 죽기전에 유언하기를 ‘내 큰 뜻을 품고 정사(政事)를 하다가 작은 뜻을 가진 자에게 물리어 얻은 것이 귀양 살이였다. 난 죽어도 속이 답답할 것이니 바다가 보이는 해변에 묻어달라’ 해서 슬하에 있던 두 아들은 아버지 무덤을 이 근처에 모신 다음 아주 여기에 눌러 앉게 된것이다.

그들 두형제는 여기에 자리를 정하고 처음부터 맨몸으로 생활이 시작되었으므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낚시바늘 하나만 있으면 그날 그날 살기는 쉬웠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낚시를 바다에 담그고 고기를 잡았다. 한해가 지나고 수년이 흘러가자 그들은 집을 지었고 형이 먼저 색시를 얻어서 생활이 시작되자 또 집을 짓고 해서 형제지간에 이웃하여 재미있게 생활을 풀이해 나갔다. 낚시바늘 하나로 고기잡이 하는 그들은 낚시를 여러바늘 엮어서 바다에 띄우는 주낙을 장만했고 조그마한 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젠 제법 어부로 행세를 하게 되자 고기를 따라 바다로 나가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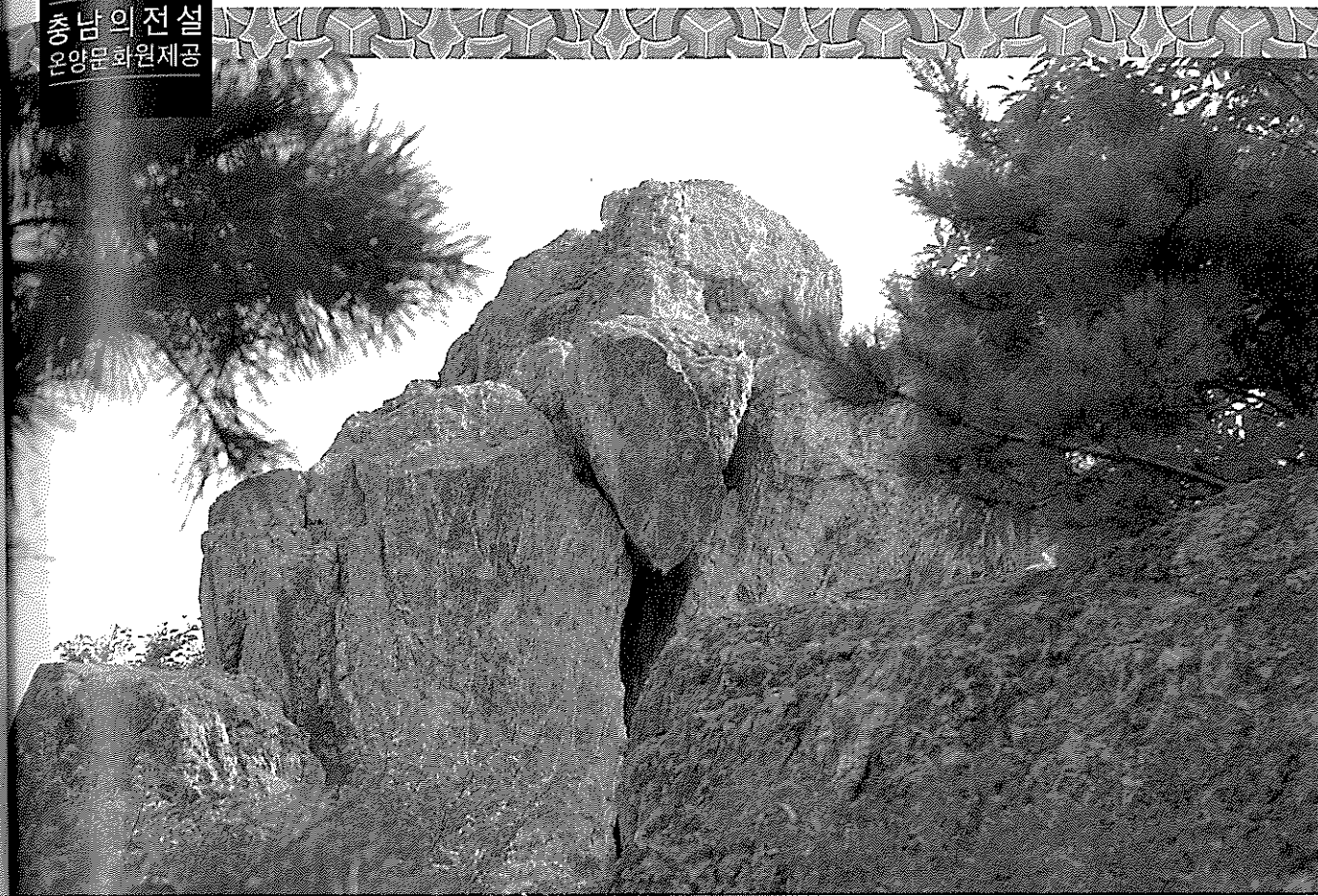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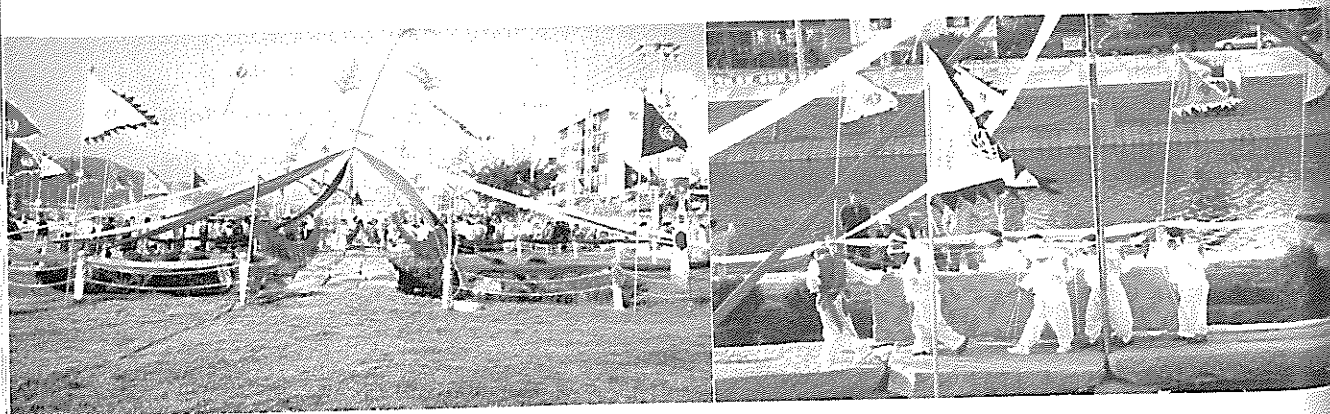
아버지만 벼슬길에서 순탄하였다면 양가집에서 자라고 벼슬길에 올라야 할 그들 이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어부로 탈바꿈 하였으나 머리는 좋은 편이었다.

밤에는 어떤 때를 기다리듯 열심히 글을 읽기도 했다. 그들은 물살이 센 빠섬 근처로 나갔다가 농어와 광어같은 큰고기를 많이 잡아왔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뱃길을 그쪽으로 돌렸고 고기를 잡아오면 오천읍내로 싣고 가서 팔았다. 오천읍내에 가서 벼슬아치들을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읍내에서 돌아올 때마다 돈을 벌어서 자식은 꼭 성공시키자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벌기 위해 바다로 나갔다. 그날도 그들은 바다로 나갔다. 아침 일찍 바다에 낚시를 띄우고 한참 동안을 바닷물에 드리웠다가 다시 낚시를 걷어 들이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낚시마다 고기가 한 마리씩 물려 있었다. 낚시를 정신없이 잡아다니다 보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배에 찼다. 그들은 흥겹게 귀가길에 올랐다. 헌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사나워 갔다. 그들은 점점 역세가는 파도위에서 낙엽처럼 흔들거렸다.

그러나 큰산처럼 물려오는 파도에 그들은 그만 배가 뒤집혀지고 바닷물에 던져졌다. 그들은 파도위에서 “형님”, “아우야”하고 한참동안 불렀으나 뗏목하나 떠내려 오지 않고 내려치는 빗방울 마저 역세지자 부르는 소리가 점점 낮아지며 바다 속에 영영 사라진 것이다. 한평생 귀양살이한 아버지대를 이어 돈을 벌어 자식이나마 벼슬길에 오르도록 해야겠다고 몸부림치던 형제는 고기를 한배 가득 싣고 돌아오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날이 흐린 날이면 이 근처 바위를 지날 때 “형님”, “아우야”하는 소리가 바위에서 들려오고 여기에 따라서 육지에선 “이 애들아”하는 그들의 아버지의 부르짖음도 들려 온다 한다. 여기 뱃사람들은 바다로 고기잡이 나갈 때 이 근처를 지나게 되면 꼭기도를 한다.

오늘의 생명을 보살펴 달라는 진정한 뱃사람들의 기도라고 전한다.



어금니 바위

어금니 바위는 영인산 휴양림 길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데 아주 슬픈 사연이 있다. 고려 말 무렵에 돈 많은 욕심쟁이 영감이 살고 있었는데 많은 논과 밭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인근 마을에는 영감님의 논과 밭을 빌려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영감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칠삭둥이였다. 칠삭둥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야 하는데, 뭐가 그리 세상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은지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곱 달 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칠삭둥이라 부르는데 칠삭둥이로 한 번 소문이 나면 무언가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결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영감님에게는 칠삭둥이를 결혼시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그런데 이 마을에 영감님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에게 예쁘고 아주 착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영감이 그 아이를 며느리로 삼으려고 탐을 냈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욕심쟁이 영감님은

가난한 농부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허락을 얻지 못했다.

“누가 칠삭둥이에게 사랑스런 딸을 시집보내려고 하겠어!”

번번이 거절을 당한 영감은 가난한 농부 집에 땅을 빌려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인데 땅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말에 걱정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다. 농부는 고민고민 하다가 욱심쟁이 영감의 협박을 받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성스런 농부의 딸이 부모님께 말하기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칠삭둥이라 소문이 났지만 제가 잘 하면 괜찮을 거예요. 도련님과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착한 딸은 부모님이 편안하게 사셨으면 하고 바랬고, 가족도 살고 자신도 편히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결정을 했다. 가난한 농부는 막상 칠삭둥이에게 시집을 간다는 딸의 말에 펄펄 뛰었지만 외동딸의 가특한 마음을 저버리진 못했다.

결국 그들은 봄날 결혼식을 올려 가난한 농부 부부는 즐겁고 축하해 주어야 하는 결혼식 날 딸과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워 기쁨보다는 슬픈 마음이 앞섰다.

“이제 너는 우리 집 딸이 아니다. 한번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곳곳하게 살아야 된다.”

“시댁 어르신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남편을 잘 섬기며 살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려시대에는 결혼식을 신부 집에서 먼저 올리고 나중에 다시 신랑 집에 가서 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과 어머니는 헤어지기가 아쉬워 눈물바다가 되었다.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해 전국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는데도 욱심쟁이 영감 집에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고, 며느리는 동냥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영감님 몰래 먹을 것을 주곤 했다. 칠삭둥이 남편에게도 날마다 글공부를 가르치는데 여념이 없었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칠삭둥이 남편이 학문에 조금씩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욱심쟁이 영감은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지만 칠삭둥이가 무슨 공부를 하나며 믿지를 않았는데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책을 사달라고 졸라대자 드디어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칠삭둥이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다.

세상에 이렇게 욱심 많고 어리석은 아버지가 또 어디 있겠나! 그 후 마음씨 착한 며느리는 집에서 쫓겨난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아무리 찾아봐도 남편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며느리의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라한 행색을 한 스님 한 분이 시주를 하러 오셨는데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시아버지 몰래 쌀 한 바가지를 시주 했다.

그 때, 저 멀리서 욱심쟁이 영감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이바짐은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너 지금 뭐하는 짓이니? 이런 집안 말야 먹을 년야.

금쪽같은 쌀을 네 마음대로 함부로 퍼주다니 고약한 지고!”

성이 날대로 난 욱심쟁이 영감은 스님이 가진 쌀을 빼앗고는 외양간에 있는 쇠뿔을 스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온갖 욕을 퍼부었다.

욕설을 퍼붓던 영감이 안으로 들어가지, 스님은 며느리에게 슬며시 말을 했다.

“지금 이집에서 멀리 떠나시오. 곧 이집에 큰 재앙이 닥치니 빨리 떠나십시오.”

아니, 스님 저희 집에 무슨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세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소.

새벽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으니 명심하십시오.

어떠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뒤를 돌아보면

절대 안 되소.

스님은 이 말만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착한 며느리는 스님이 사라지자 황급히

욕심쟁이 영감에게 알리게 되

이바짐 빨리 이집에서 떠나야 돼요.

“아까,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지못대로 쌀

을 퍼주지 않나, 이제 와서

다짜고짜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하지 않

나…….”



"아버님 시간이 없어요."

며느리는 재앙이 닥친다는 스님의 말을 욕심쟁이 영감에게 알려주었다.

아버님은 돌팔이 중 말만 믿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집과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이 탐이 나서 하는 말을 가지고 순진하긴
....."

"다 소용 없다. 너, 이 집 며느리로서 집을 지키는 것이 너의 의무이다."

며느리는 욕심쟁이 영감 몰래 아기를 업은 채 집을 나왔다.

며느리가 집을 나오고 얼마안되어서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빗소리와 함께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들렸다.

"우르릉 광, 와르르릉."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절대로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스님의 마지막 말이 며느리 귀에 메아리쳤다. 며느리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아기를 업고 앞으로 앞으로 뛰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너무 궁금하여 그만 뒤를 돌아 보았다.

그런데 며느리 귀에 들리는 소리의 정체는 그 으리으리한 집과 넓고 기름진 문전옥답이 무너진 소리였고 집과 논이 무너진 자리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큰 연못으로 변해 있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아기를 업은 모양 그대로 바위로 변해 버렸다.

한편 집에서 쫓겨난 칠삭둥이 아들이 성실한 농부가 되어 집에 돌아 왔을 때 이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였다. 칠삭둥이 아들은 욕심 많은 아버지를 동정하고, 자신이 집을 비운 후에도 극진히 부모님을 봉양한 아내를 위해 쓸쓸히 노후를 보내고 있는 장인장모를 잘 모시면서 살았다. 아기를 업고 뒤를 돌아본 모양의 바위가 어금니를 닮았다고 해서 어금니 바위라고 불린다. 옆치면 서원리 뒷산에 가 보면 뒤를 돌아 본채 우뚝 서 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금니 바위다. 그 때 생긴 큰 연못을 장자 못이라고 불린다. 지금도 그 흔적을 말해 주듯 조금한 웅덩이가 남아 있다.



신안사

대전에서 국도 17번 도로를 따라 금산을 거쳐 제원을 지나 지방도를 가자면 예전에 '신음산'이라 부르고 지금은 '천태산'이라 부르는 산이 나타난다.

천태산은 국사봉과 영신봉을 사이에 두고 충북 영동군과 도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신안사는 이 산록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국사봉과 영신봉 사이에 여러 지맥이 마치 연꽃이 만개한 형국이라 하여 연화도량으로 알려져 있는 사찰이다. 특히 국사봉에서 제원까지 8Km가 넘는 길게 형성된 깊은 계곡은 맑은 물과 괴암괴석으로 유명하다.

산안사라는 이름도 신라 경순왕이 유숙하면서 주위 환경이 산자수명하고 연화도량의 정직한 유수경으로 몸과 마음이 아울러 편안하다고 하여 신안사라 하였다고 한다.

신안사는 신라 제26대 진평왕 5년(583)에 무염선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신안사의 내력을 소상히 살필 수 있는 사적기나 사내 건물들의 창건과 중수 등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워 확실하지 않다.

극락전 보수공사 과정에서 조선후기에 기록된 상량문이 발견되었는데 이속에는 신안사가 신라 현강왕 때 조고선사가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앞서의 전언과 비교해 보면 연대와 창건자가 모두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광전

신안사 대광전은 자연석 기단 위에 덩벙주초석을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워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식 건축이지만 지붕이 맞배지붕일 뿐만 아니라 건물의 측면에 대하여서도 평방을 짜서 돌리고 공포를 배치한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공간포는 주간에 1개씩을 두었으나 4우간에서는 생략되었다. 공포와 구성은 내외가 동일한 3출목이어서 3개의 우설은 모두 양설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그 위에는 수설 대신 초트림을 조각한 부재를 볼 수 있다. 내부의 살미 침자는 양봉형으로 변해져 있으나 장식화는 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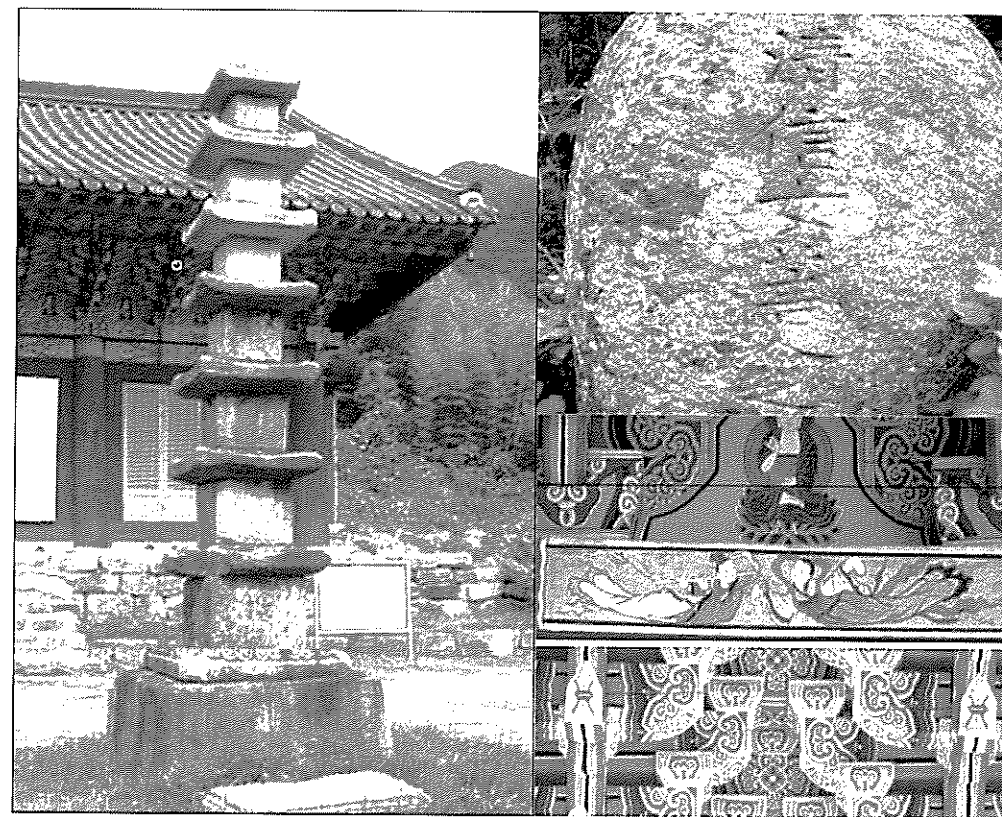
건물 바닥에는 마루를 깔았으며 후면에 옥내주를 배열하고 그 중 3간에는 후불당벽과 불단을 조성해서 불상을 안치하였는데 그 상부에 닻집을 달았다. 건물 외부의 처마 밑에는 쪽마루를 시설하였다. 이 건물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을 받은 후에 중수를 거듭하여 근래 원형대로 복원 개축하였다.

극락전

신안사 극락전은 현재는 도로에 면한 담장을 들어서면 바로 정면으로 대하여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담장 출입구 부근에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산문은 정면 즉 서쪽으로 터 내려간 지점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칸x3칸의 건물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인데 자리잡은 터전에 꼭채워 지은 듯한 느낌이다. 남측면의 바깥쪽은 구룡지로서 대밭이 있으며 배면은 바로 뒤가 암벽으로 되어 있다. 극락전 전면 석축은 전치석축인데 일제시대의 보수기에 쌓은 것 같다. 주초는 덩벙주초이며 그 위에 원주를 세웠다. 기둥은 대부분이 약한 배흘림기둥이다. 기둥엔 안솔림과 귀솟음이 나타나는데 특히 안솔림에 있어서 이 건물은 특이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4우주를 45도 방향으로 바깥으로 내밀어서 안솔림을 주어 평면상 네모서리의 각도가 예각이 되도록 하였는데 일반 건물들의 네모서리 각도가 직각을 이루는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이 평면형은 기둥상부에서도 나타나 평방 평면 네모서리각 역시 예각이다. 정면 3각에는 모두 4분합 세살문을 달았는데 어간은 빗살문이고 양허간은 격자살문이다. 내부는 우물마루이며 중간간 후면 쪽에 내진조주를 세웠다. 내진주 사이에 후

불벽을 구성하고 그 앞에 불단을 안치하였다. 건물 정면에는 뿔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다포계의 건물이나 측면에는 공포가 없으며 정면과 배면에만 창방과 평방을 설치하고 그 위에 공포를 모두 2구씩이다. 양측면의 우주상에는 단평방이 설치되어 있다. 포작은 외3출목 7포작, 내4출목 9포작이다. 살미의 외단은 3재공까지는 양설로, 4.5재공은 동글게 초각하였는데 내단은 모두 연봉과연화를 초각하였는데 배면 주심포와 4우주의 5재공살미만은 내단이 고주에 연결 고정되어 있고 천장은 우물반자로 구성된 층단천정이다.

극락전의 건립연대는 중수할 때 나온 상량문의 기록을 보면 적어도 17세기 후반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건물은 현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참교육의 산실 종학원(宗學園)

유명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의 일화는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서울에는 소위 '강남 8학군'이 있다. 유명한 학원과 실력 있는 강사들이 모여 있어 일류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이 너나없이 모여든다는 곳이다. 과도한 사교육과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지만, 한편으론 교육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최초의 민간 교육기관이었던 고구려의 경당 이래로, 어느 학군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던 조선시대 학문의 요람이 여기에 있다. 바로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의 '종학당'이다. 현재의 <종학원>은 국·도·시와 문중의 노력으로 1999년부터 4년여에 걸친 복원공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종학당, 백록당, 정수루, 보인당의 4개 동과 정원을 조성하게 되었고, 이후 <종학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문중 서당인 '종학당'은 조선시대에 대과 급제자만 42명을 배출한 곳이다. 한 가문에서,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수학한 사람들 중에 40여 명 이상의 인재가 배출된 경우는 조선 600년 역사를 통틀어 전국 어디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참교육의 요람 <종학원>을 찾아가 보자

조선시대에 지방의 교육기관은 향교와 함께, 서원, 서당과 같은 사학(私學)이 성행하였다. 향교는 지금의 공립학교로 관(官)에서 운영하였고, 서원은 사설교육기관으로 양반자제들을 모아 학문과 덕행을 가르쳤다. 이 두 곳은 사당에서 훌륭한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를 올렸다는 공통점을 갖고



<종학당>

있다. 서당은 도처에 많이 있었다. 주로 서민의 자제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었는데, 기초적인 한문 독해능력을 가르쳤다. 지방의 명문가에서는 문중 자제들을 위해 종학당(宗學堂)을 세워 교육을 했는데, 문중서당으로 대표적인 곳이 바로 파평 윤씨 종학당이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잠시 살펴보면, 소과에 명경과, 제술과가 있어 여기에 합격하면 생원과 진사가 된다. 그리고 이들이 성균관에 합격하여야 비로소 대과에 응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된다. 이 어려운 관문을 거쳐 조선 정계의 요직에서 활동한 인재들이 종학당을 통해 대거 배출되었다니, 그 학문적, 정치적 위상을 실감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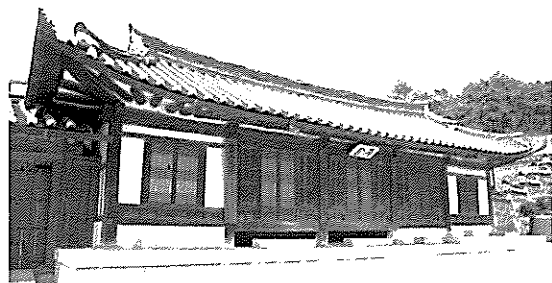
<종학원>은 1987년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다가, 1997년에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52호로 지정되었다. 인조 21년(1627년) 사계 김장생의 제자인 동토 윤순거(1596~1668)가 종학당을 설립하고 병사사저에서 문중의 자여질(子與姪)들을 모아 가르치며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다음해 현재의 위치에 정수루와 백록당을 지어 강학의 전당으로 삼았다. 초대 당장인 윤순거는 대사간 팔송 윤희와 우계 성혼의 딸 창녕 성씨 사이에서 태어나 성문준에게 학문을 닦고, 사계 김장생에게서 예를 배웠다. 병자호란(1636년) 때 아버지 윤희가 귀양을 가고 작은 아버지 윤전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자, 고향에 내려와 학문에만 전념하면서 문중의 자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종제와 종약(宗約)을 제정하는 등 지켜야 할 규범을 엄격하게 세워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대 당장인 명재 윤증(1629~1714)은 신독재 김집, 우암 송시열 등을 사사하였다. 1663년 삼사의 천거를 받아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벼슬에 오르지 않았으며, 1709년(숙종)에는 우의정에 제수되어 임명장까지 보내왔으나 14번의 상소를 올려 사양한 인물이다. 조선시대에 군왕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삼공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윤증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향에서 학문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백의정승'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명재 윤증의 아버지 형제는 여덟 명으로, 모두 높은 벼슬을 했다고 한다. 명문거족의 훌륭한 어른들 밑에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산(尼山)자락에 위치한 <종학원>은 주위가 소나무 숲으로 둘러 쌓여있고, 전방 100m 앞에는 병사리 저수지가 펼쳐



<명재 윤증 초상>



〈병사〉

되었다가, 1970년에 동토 선생의 5대 손인 윤정규에 의해 현재의 종학당으로 재건축된 것이다. 배움에는 엄격했으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한없이 돈독했던 종학당을 살펴보자. 그 연혁이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지 않으나 종학당을 지을 당시 윤순거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우인 윤후거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완공하였다고 한다. 종학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형태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10평 남짓한 건물로 우측 방에는 스승이 기거하였고, 좌측 방은 스승의 손님을 맞거나 제자들이 공부하던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선 주로 통감 등 기초적인 학문을 닦는 초학자들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 서당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몇 개의 종약(宗約)을 만들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인간의 도리를 알고, 조상을 받들며, 친족을 아끼고, 종족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종약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0세 이상 어린 자제를 모아 학문을 배워 재물을 이루고, 종인 중에 학문에 깊은 이를 스승으로, 자제 중 글의 의미를 잘 터득한 이를 장으로 택하여 자제를 가르치게 한다. 스승과 택사장(擇師長)에게는 각각 쌀 아홉 말과 일곱 말을 지급하고, 서책을 비치한다. 10세 이상은 매달 부과 하는 과제로 공부하게 한다. 독서는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등의 순서를 따른다. 매일 스승과 택사장은 아침 일찍 기상하여 의관을 바로 한 뒤, 자제들을 인솔하여 선조의 산소를 향하여 재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종약에는 독서의 순서, 암송법, 시험 이외에도 예법 등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매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앙 대청마루 위에는 '종학당'이란 현판이, 그 옆에는 명재 윤증이 1701년 제정하고 『명재유고』에 남긴 '초학획일지도' (初



〈초학획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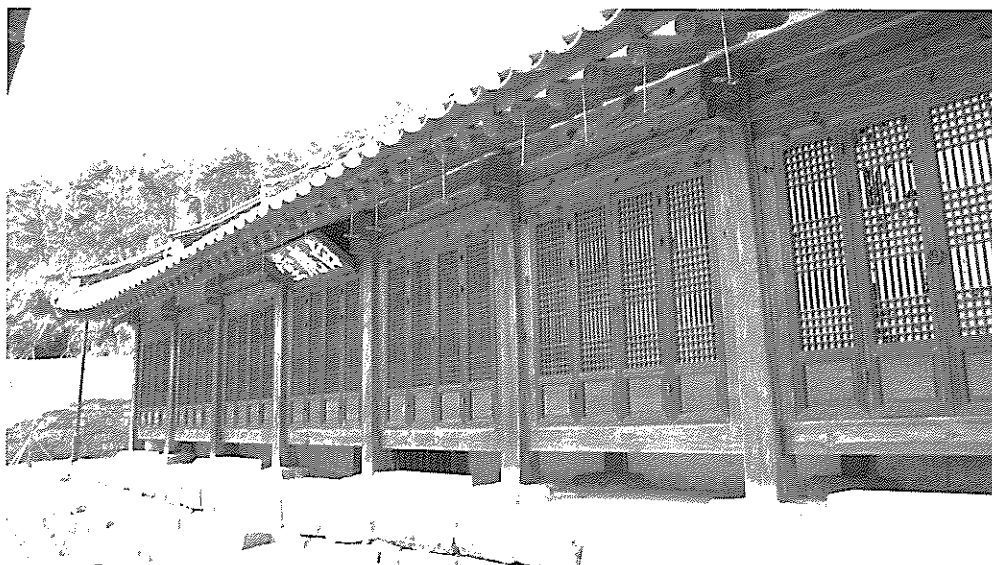
저 있어 경관이 수려하다. 강태공들이 아직도 한가로이 낚시를 하는 저수지 건너에는 '병사' (丙舍)가 있다. 이곳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며, 그 바로 옆 산에는 파평 윤씨 묘역이 있다. 맨위는 파평 윤씨 노종파 입향조인 윤돈(승지공)의 묘이며 그 아래는 자손들의 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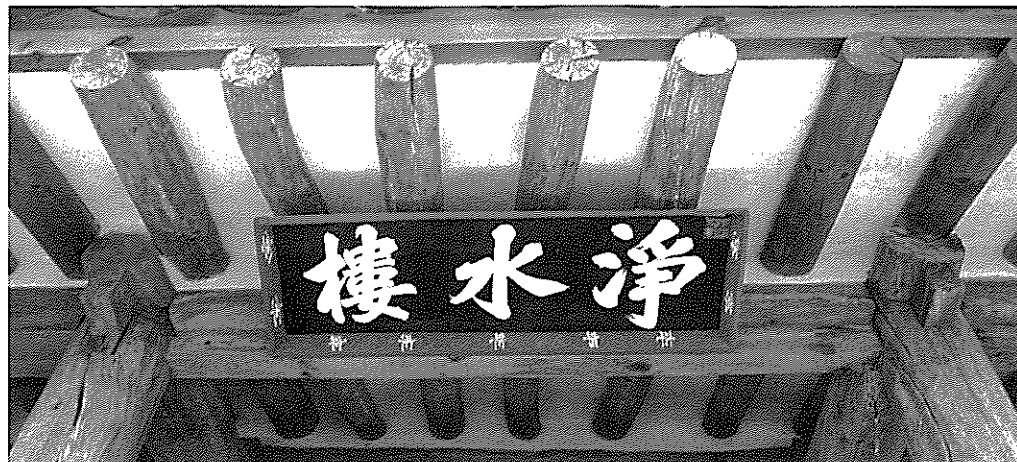
〈종학원〉의 홍살문을 들어서면 바로 우측에 종학당이 있다. 이곳은 과거 화재로 인하여 백록당, 정수루와 함께 일부 소실

學畫一之圖)가 걸려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총도(總圖)라는 제목 아래 「아침 일찍 일어나 어버이가 밤새 잘 주무셨는지 살펴보고 인사 올려야 한다. 종일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 밤이 깊으면 잠을 자고 어버이의 잠자리를 정리해야 한다.」는 숙흥(夙興) · 일용(日用) 야매(夜寐)의 세 가지를 담고 있다.

크게 보면 그림이 두 가지인데, 실제로는 일용(日用)의 네 가지 항목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 내용은 군자(君子)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아홉 가지 몸가짐을 제시한 '구용(九容)'과 의관을 바르게 하고 항상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며 생각을 한결같이 하고 속이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경(持敬)', 책을 읽는 의의, 읽는 순서, 책을 읽는 법을 설명한 '독서(讀書)',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의리(義利)와 시비(是非)를 강조한 '응사(應事)'로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나 사물들을 접할 때 지켜야 할 윤리를 '접물(接物)'의 네 가지 항목으로 다시 분류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명재 윤증은 '초학획일지도'를 통해서 선비들이 간직해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강령, 순서에 따라 읽어야 할 도서 목록 등을 그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학문과 실생활의 일치를 강조하는 한편, 학문적 성취보다 내면의 도덕적 완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교육철학을 그 안에 담아내고 있다. 이어 '위학지방도(爲學之方圖)'라는 것도 있는데, 학문의 시작과 끝을 크게 입지(立志)와 무실(務實)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다. '입지'는 공경함을 끝까지 간직하고, 학문을 연마하며, 항상 자신을 반성하는 지경(持敬) 강학(講學) 성찰(省察)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규범을 항상 유념하며 현실생활에서 실천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무실'이다.

〈백록당〉





〈정수루〉

종학당을 나와 경사로를 오르면 좌측에 보인당이 있다. 이곳은 강당이다. 네모기둥을 세워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이루어졌으며, ㄷ자 형태로 2칸씩 뒤로 더 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파평 윤씨 노종파 손들은 해마다 이곳에 모여 '종학훈강'을 열고, 훌륭한 선조와 상계사 등을 배운다. 현재 이 강당은 5월 말까지 보수공사 중이다.

〈종학원〉의 가장 높은 곳에는 백록당이 있다.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은 중국의 백록동 서원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백록당도 거기서 유래했다고 한다. 종학당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학문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백록당에 진급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주로 사서삼경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거나 과거를 준비하는 고등교육이 이루어졌다. 걸 문을 열면 좁은 마루가 길게 있고, 마루에 오르면 문이 다시 있다. 모두 7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방마다 수준별로 학습을 하였다고 한다. 건물 중앙의 밑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서 책을 잘 보관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지금도 이곳에 있으면 엄숙한 분위기 속에 경전을 읽는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다.

백록당 바로 앞에는 정수루가 있다. 정수루는 정면 7칸, 측면 1칸의 ㄱ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14개의 둥글고 큰 기둥을 세워 만든 2층 누각이다. 천정의 보에는 과거에 급제한 서생들이 그 기쁜 심정을 써놓은 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정수루는 일부가 소실되었으나 근년에 다시 복원되었다. 정수루 현판 좌우로 노서 윤선거가 썼다는 '오가백록(五家白鹿)'과 '향원익청(香遠益清)'이라는 2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전자는 중국의 백록동 서원에서 유래하는데, 흰 사슴은 10년에 한 번 나올 정도로 희귀하고 성스러우며 고귀한 동물로 학당에서 공부하는 선비 자신들을 일컫는 것 같다. 후자는 '향기는 멀리 가면 갈수록 더욱 청아하다'라는 뜻으로, 중국 주돈이가 연꽃을 찬양한 시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진흙 속에서 피는 맑고 아름다운 연꽃이야말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꽃으로, 선비의 기상과 인품을 닮아 있다. 정수루 앞에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직사각형의 못 중앙에 둥글고 작은 섬이 하나 있다. 사대부집에도 이런 연못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멋진 조경과 함께 방학수 역할도 부수적으로 했다고 한다. 이 연못은 특히 동양의 우주관인 '천원지방(天圓地方)'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는 말처럼, 연못을 조성하면서 방지원도(方池圓島)의 형태를 재현한 것이라고 한다. 섬에는 선비가 좋아하는 나무 중의 하나인 백일홍을 심어 놓았다. 보통 배롱나무, 가간지럼나무, 잠이수라고도 하는데, 동양사상을 보면 잠이원은 하늘 한가운데 있는 세상을 말하고, 그곳에 있는 나무가 바로 잠이수라고 한다. 학업에 열중하다 누각에서 탁 트인 전경을 보며 피로를 풀거나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근심과 걱정을 풀기에 적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도 읍고, 친구와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정수루와 같은 누각은 서원의 대표적 특징이다. 앞으로 펼쳐진 병사 저수지의 풍광과 사계절의 아름다운 절경 때문에 이 곳은 어느 서원과 마찬가지로 선비들이 자주 찾는 장소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이처럼 500평 정도의 부지에 조성된 〈종학원〉은 주변의 소나무 숲과 아름다운 전경이 있어 마음은 평화롭고 정신은 한없이 맑게 해 주는 곳이다. 더욱이 산사(山寺)와 같은 조용한 분위기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게 했을 것 같은 훌륭한 교육여건임에 틀림이 없다. 물론 이런 주변 환경은 일반 서원이나 서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조선시대 지방의 문중서당 중에서 종약(宗約)과 학칙을 정하고,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과정이 이루어진 곳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 명맥은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1910년 한일합병으로 일제의 신교육이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단절되었다. 문득 뉴스에서 학교폭력과 각종 비리의 산실로 비춰지곤 하는 현 교육 현장의 모습이 떠오른다. 예(禮)를 다하여 스승을 공경하고, 조상을 섬기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종학당이야말로 인간 중심의 참교육이 아니었을까. 종학당에서 배어나오는 참된 교육의 향기를 맡으며 온고지신으로 삼을 일이다.

〈종학원〉은 논산문화원의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 일정의 마지막 코스이기도 하다. 답사자들은 오래 이곳의 역사와 주변 경관에 놀란다. 논산에 이런 곳이 있었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고 탄성을 자아내기도 한다. 또한 논산문화원은 이곳에서 여러 번의 회의와 예절교육프로그램도 운영했었다. 일반인들도 사전에 문의한 뒤 예약을 하면 이곳 〈종학원〉에서 교육이나 세미나 개최가 가능하다.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산교육의 역사적 현장인 만큼 귀중한 문화재들은 우리 스스로가 잘 보존해야 할 것이다. 가족 나들이 겸 노성 일대 유적지를 찾아보고, 이곳 〈종학원〉에 들러 자녀들과 함께 역사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참고문헌〉

김동기·정경일·김문준 공저, 《지조를지킨선비 명재윤증》, 논산문화원, 2001.
《내고장으뜸가꾸기 마을이야기 모음 제3집 魯城》, 논산군, 1991.



수 덕 사

수덕사는 덕산면 사천리 20번지에 있다. 운허(耘虛) 옹하가 지은 불교사전에 의하면 수덕사는 백제 법왕 1년(서기 599년)에 지명법사가 창건하였다. 지명법사는 신라의 스님으로 진평왕 7년(서기 588년)에 중국 진(陳)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서기 592년에 돌아와서 진평왕의 왕사가 된 신라 최초의 율승이었다. 국보 49호로 지정된 대웅전은 백제 부왕 1년(서기 600년)에 건축하였다고 앞의 불교사전은 쓰고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단층 맞배지붕으로 그 형태가 장중하게 되어 있다.

포작(包作)과 가구(架構)의 수법에는 천축(天竺)의 양식이 들어 있다. 이 도량(道場)에서는 유수한 고승 대덕들의 교화로 많은 명승들이 나왔다. 앞의 불교사전에 의하면 의자왕 7년(서기 647년)에 수제법사(崇濟法師)가 여기서 법화경(法華經)을 강설하였고 조선 숙종 5년에 경허선사가 머물렀으며 광무 2년에는 만공선사가 머물러 교세를 떨쳤다고 한다.

전 주지 원담(圓潭)스님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원효성사가 수덕사 정혜암(定慧菴)자리에서 불법을 설할 때에 말씀하시기를 「큰 덕자 셋 들을 덕산 수덕사 도장에서 장차 3성 7현이 나올 것이며 무정한 도인이 득도하여 가활만인(可活萬人)하리라」하고 불복산사라는 글을 써서 대웅전 서편에 붙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만공선사는 대웅전은 유명한 일본 법룡사의 건축양식이 이를 닮았다고 했고 백제 명공 아버지(阿非知)의 건축물이라 하였다 하나 고증을 통한 주장이 아니다. 앞

의 불교사전에 의하면 대웅전의 벽화 중에는 고구려 영양왕 11년에 담징(曇徵)이 그린 것이 있다 하였다. 일제 때 일본인 기술자들이 4년간(서기 1936~1940)에 걸쳐서 대웅전을 해체 복원하였는데 이때 벽화를 세심하게 개칠한 부분을 몇 번 긁어내니 그 속에 일본 법룡사 벽화 못지않은 담징의 그림인 국보 46호인 음률공양비천도(音律供養飛天圖), 수화도(水花圖), 야화도(野花圖), 금룡도(金龍圖)가 나왔고 또 고려 충렬왕 34년(서기 1308년)에 중수 했다는 중수기가 나왔다. 이 유품들은 6·25사변 때에 공산군이 부수어 버렸다. 대웅전 앞의 탑은 대웅전 건축시대와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원담스님에 의하면 만공선사가 절을 중창할 때 이 탑 기단을 이루고 있는 돌들을 빼어 석축에 썼다고 한다.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수덕사가 백제 말기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에 걸쳐서 융성했을 것을 짐작할 만하다. 수덕사의 앞뜰의 이름이 석니(釋尼)뜰이라 하고 그 부근에 사노촌(私奴村)이 있어서 수덕사 앞뒤의 산야와 전답이 한때 수덕사의 봉양 답이었다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배불승유가 신산(辛酸)한 고초 속에는 근근히 유지되어 온 사찰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참혹한 난리를 겪은 뒤에는 그나마 수호할 형편이 못되어서 수덕사의 대웅전은 세 차례나 묻히었다 한다. 조선 중기에 어느 스님이 철덩굴에 걸어 내고 중수할 때 관음의 화신인 수덕각시의 도움을 받아 홍성부윤으로 하여금 정재(淨財)를 희사케 한 전설은 관음바위와 함께 유명하다.

만공선사는 수덕사의 중흥조이다. 대웅전 이외의 대부분의 건물이 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오늘날과 같은 도량(道場)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한국 불교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공선사의 속성은 여산 송씨(礪山宋氏)로 신미(서기 1871년) 3월 7일 전북 태인에서 출생하였다. 13세에 입산하여 25세에 오도(悟道)한 후 경허선사의 법사를 이어 많은 불사를 이룩하고 75세되는 병술(서기 1946년) 10월 21일 열반(涅槃)했다. 만공선사가 수덕사에 처음 와서 금선대(金仙臺)라는 암자를 짓고 머문 것이 그의 나이 34세였다. 그는 조인정사(祖仁精舍)와 옥련당(玉蓮堂), 미륵불(彌勒佛) 등 많은 불사를 일으켰다. 원담스님은 임인(서기 1962년) 가을에 일주문(一柱門)을 세우고 서기 1965년에 전의 여승당을 헐고 석조비구니총림원을 지었고 계축(서기 1973년) 봄에 법경각(法鏡閣) 등을 지었고, 설정(雪靖) 스님은 건물 면적 194㎡의 황하루(黃河樓)를 1984년 12월에 착공하여 1986년 5월에 준공하였다. 수덕사에는 국보 제49호로 지정된 대웅전을 비롯하여 충청남도지정 문화재 제3호인 3층석탑과 제192호로 지정된 거문고 1개와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81호인 7층석탑이 있다.



(수덕사 3층 석탑)



장곡사미륵불과불탱

- 소재지 :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5
- 지정번호 : 국보 제300호(1997.9.22)

장곡사미륵불과불탱은 1997년 9월 22일에 국보 제300호로 지정되었다. 괘불은 야외에서 법회를 거행할 때 본존불상 대신 법당 앞에 높이 거는 불화이다.

미륵불은 석가 입멸 후 56억 7천만년 뒤에 인간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불이다.

중앙의 미륵존불을 중심으로 육대여래(六大如來)와 육대보살(六大菩薩), 제석(帝釋)과 범천(梵天) 등을 좌우대칭의 구도를 잡아 배치하였으나, 십대제자(十代弟子)와 용왕(龍王)과 용녀(龍女) 등의 배치는 좌우대칭 구조를 벗어나고자 한 점이 돋보인다.

미륵불의 형상은 원형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지녔으며, 상체를 길고 크게 묘사하고 크고 긴 두손에 용화수 가지를 들고 서 있다.

사각형의 얼굴에 마름모꼴의 화관에는 4구의 화불을 안치하고 영락과 꽃으로 장식하는 등 세부적으로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1673년(현종14년) 승옥(勝玉)스님의 지도 아래 철학(哲學)등 5인의 스님이 안료로 채색하였다. 길이 8.69m, 폭 5.99m의 대형으로 삼베에 그렸다.



1. 금산인삼축제 유래

금산지방에는 예로부터 인삼경작인이 개인별로 삼장제라하여 인삼의 새싹이 돌아 오를 때면 인삼을 재배토록 하여준 산신령에게 감사드리고 인삼밭의 피해를 막아 인삼농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제사가 전해져 내려왔다.

금산문화원에서는 1981년에 지금까지 개최하던 금산문화제를 발전적으로 해체 금산인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인삼제추진위원회를 구성 범군민적으로 제1회 금산인삼제를 개최하였다. 제1회 금산인삼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제3회부터는 금산인삼선양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행사를 주최하고 집행은 금산문화원을 중심으로 금산인삼축제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삼중주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인삼축제는 그동안 개삼터 고증, 금산농악, 충각대방놀이 및 물폐기 농요 등 금산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를 발굴하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나아가 군민 대화합의 길을 여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축제로 개최된 제16회(1996)금산인삼축제는 문화체육부 전국 8대문화관광축제로 선정, 비로소 지역의 틀을 벗고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축제의 틀을 갖췄다. 제18회(1998)들어선 인삼축제는 인삼캐기 등 목적형, 참여형 축제

로의 전환을 통해 44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 350억원이라는 매출신장을 기록, 전국 으뜸축제로서의 길을 열었다.

아울러 지자체 최초로 국제인삼 교역전과 함께 체험이벤트 중심의 축제로 구성된 제19회(1999) 축제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뉴욕타임스, 일본경제신문 등 해외 여행사 및 언론을 통한 홍보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60만명의 관광객과 400억원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으며 문화관광부 전국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새천년을 맞아 들어선 금산인삼축제는 수요자 중심의 쾌적하고 넓은 행사장 구성, 인삼·약초를 주제로 한 이벤트 운영, 국제인삼교역전 성공 등 건강과 감동, 희망을 주제로 차별화된 고품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연속 문화관광부 전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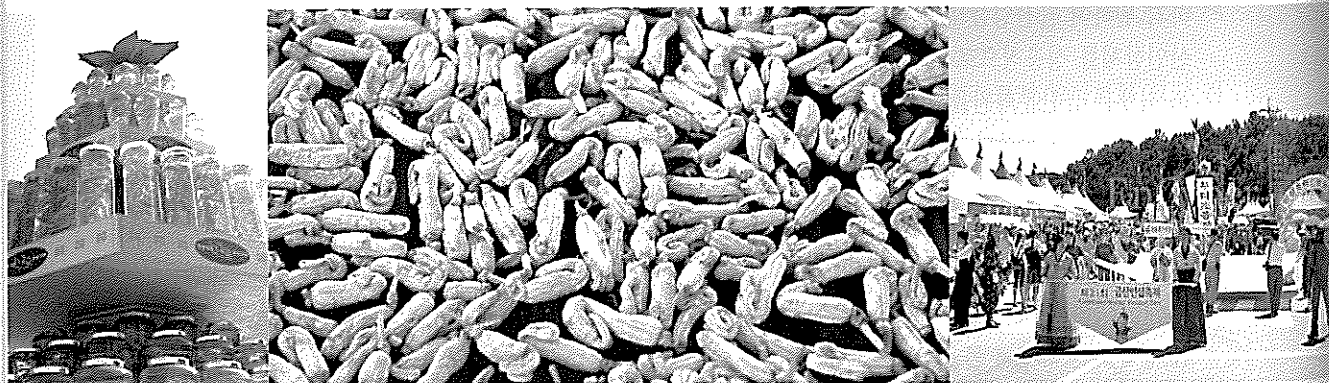
2. 제27회 금산인삼축제 개요

- 명 칭 : 금산인삼축제(The 27th Geumsan Insam Festival)
- 주 제 : 인삼으로 당신의 건강을 설계하세요
- 행사기간 : 2007. 09. 07 - 09. 16 (10일간)
- 주 최 : 금산인삼선양위원회
- 주 관 : 금산인삼축제집행위원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농림부, 한국관광공사, 충청남도, 금산군, 웰컴투코리아

3. 금산인삼축제 기획과 구성

“인삼으로 당신의 건강을 설계하세요”라는 주제로 열린 제27회 금산인삼축제는 인삼세계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IFSA세계스트롱맨대회를 유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국제성이 확대됐으며 체험코너도 강화하였다.

특히 올해 금산인삼축제는 지난해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의 뒤를 잇는 행사라는 점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주민들의 역량이 시너지 효과로 발휘될 경우 인삼축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



The 27th Geumsan Insam Festival



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인삼엑스포 덕분에 하드웨어 부문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 여유롭고 자연스런 동선구성이 가능해졌으며 주차문제도 크게 개선되는 등 예년에 비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해졌다. 쇼핑의 즐거움과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각각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내방객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했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웰빙시대에 걸맞는 건강체험이벤트가 새롭게 보강됐으며 금산인삼관·주제관·건강체험관으로 이뤄진 기획전시 및 체험공간도 인삼엑스포 수준에 맞춰 새롭게 선보였다. 축제는 7일 개삼제를 시작으로 막이 올라 전국인삼왕선발, 전국창작동요대회, 국제인삼약초요리경연대회를 비롯해 전국라틴무브경연대회, 전국N세대축제, 전국족구대회, 전국궁도대회, 전국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계층을 충족시키는 전국규모의 각종 이벤트가 마련되었으며 인삼캐기를 비롯한 각종 웰빙체험, 금산만의 독특한 전통민속, 약초썰기대회, 향주머니 만들기 등과 함께 다양한 인삼요리를 전문코너에서 즐길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4. 제27회 금산인삼축제 주요프로그램 |

• 기획전시

주제관, 금산인삼관, 인삼건강박람회, 국제인삼교역전,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초대형 인삼병전

시, 야생화 전시, 지구촌 웃는얼굴그리기 작품전시, 전국청소년 인삼만화공모전 전시 등

• 인삼체험

인삼캐기, 인삼약초요리만들어먹기, 인삼병만들어가기, 인삼민속촌, 인삼상거래 재현, 인삼로드쇼 등

• 건강체험

건강측정관, 체질측정관, 홍삼죽욕, 등안마, 인삼아로마, 발마사지관, 경락마사지, 귀마사지, 홍삼팩, 인삼비누, 인삼스킨, 향첩만들기, 수삼열쇠고리만들기 등

• 생활체험

도자기체험, 전통문양단청그리기, 천연비누만들기, 장승 및 솟대짜기, 약초향주머니 만들기, 약탕기 체험, 인삼티셔츠그리기, 충남향도음식경연대회, 인삼음료시연회, 전통떡 전시회 및 시식회 등

• 무대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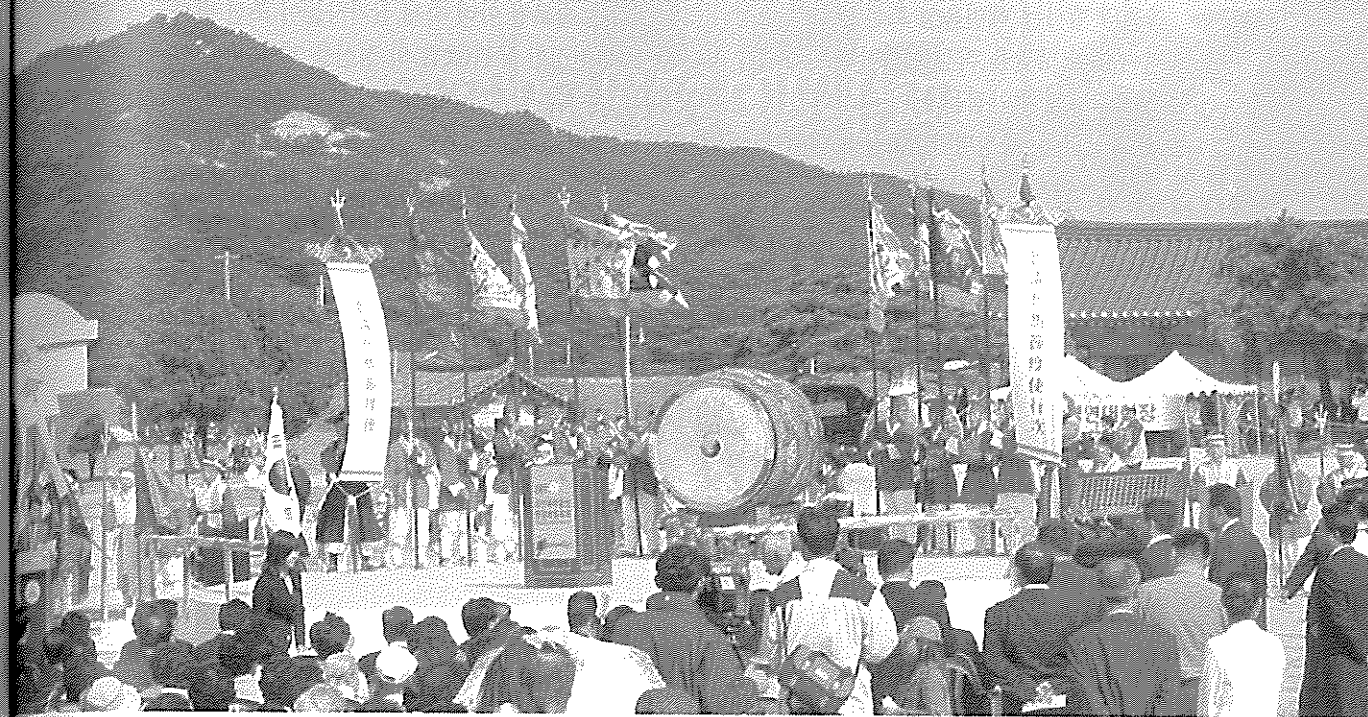
개막식, 전국창작동요대회, 7080콘서트, 금산인삼문화예술제, 전국N세대축제, 은빛한마음 건강 축제, 전국라틴무브경연대회, 전국문화의집축제, 금산전통민속공연, 난타특별공연, 가을밤의 영화 등

• 스포츠 이벤트

세계스트롱맨챔피언십, 금산인삼골전국마라톤대회, 인삼기 전국축구대회, 자전거대행진 등

5. 효과 및 결과

- 세계스트롱맨챔피언십, 국제인삼교역전 등 국제성 확대에 따른 인삼중추지 입지강화 및 홍보의 세계화
- 관광 및 산업이 결합된 전국 최고의 산업형 관광축제 자리매김
- 국내 최우수축제를 넘어 금산인삼축제 세계화 진입 발판 마련
- 제27회 금산인삼축제 목표 : 관광객 941 천명, 지역경제효과 76,012 백만원



2007 서산 해미읍성 병영체험 축제

행사개요

- 행사명 : 2007 서산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
- 행사일정 : 2007년 10월 12일 (금) ~ 10월 14일(일)
- 행사장소 : 해미읍성 내 일원
- 주 최 : 서산시
- 주 관 : 서산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 추진위원회

문무(文武)를 겸비한 신세대 무관을 찾아라! - '무과장원제'

조선병영의 생활상을 재연 - '24반 무예협회'의 무예 시범 및 무과수련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 - '시민 장기자랑' 및 KBS 라디오 '김구라의 초저녁쇼' 공개방송
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천주교 순교행렬' 및 '전통혼례' 등

올해로 제7회를 맞는 2007년 서산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가 2007년 10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서산 내포문화의 중심지인 해미읍성(사적 116호)은 1년여 간의 기간에 걸쳐 문화재 복원사업을 완료하고,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로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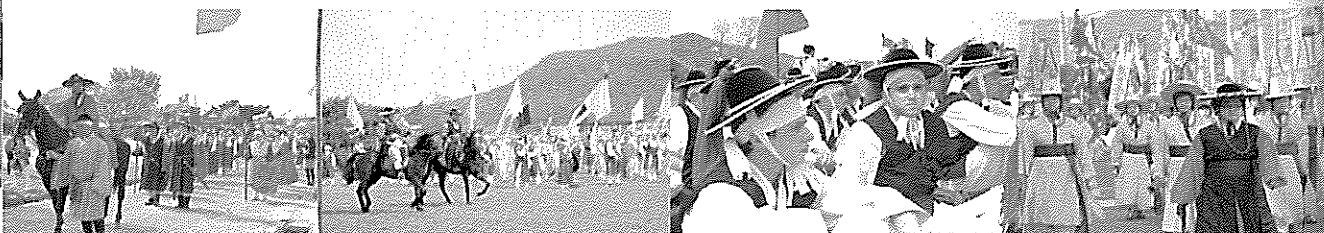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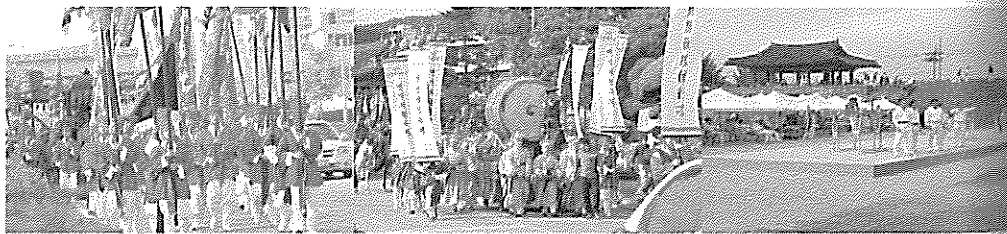


올해의 행사는 '해미읍성 조선 병영의 출정 의식'이라는 슬로건 아래 축제 참가자들이 조선 병사들의 무예와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재미를 찾는 동시에 진정한 무관(武官)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문무(文武)를 겸비한 진정한 이 시대의 무관(武官)을 찾는 '무과장원제', 충청병마절도사의 지휘아래 절도있게 진행되는 '조선시대 군사행렬', 정통 무예를 잇는 '24반 무예협회'의 사범들의 지도에 따라 1박 2일동안 펼쳐지는 '무과 수련'과 전통 무예 시범은 철저한 고증과 정통성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세트형식으로 제작된 군막사에 조선 병영의 무기들과 의상을 전시하는 '군막사 체험'과 전통 군영음식인 '주먹밥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또한 서산 지역 발전의 일등 주역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 행사로는 전야제(12일)에서 읍, 면, 동을 대표하는 참가자들과 함께 120분 동안 펼쳐지는 "시민 노래자랑" 및 8~10개 팀의 인기가수들이 출연하여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김구라의 초저녁쇼" 공개방송(13일)이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조선시대의 전통 놀이인 '박치기 놀이', '지점놀이', '달구 놀이'와, 지역의 특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향토음식 경연대회', 조상들의 전통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전통혼례(회혼식)' 등이 진행되었고 실제 죄인으로 분장한 죄수들을 해미성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천주교 순교행렬', '옥사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해미읍성 조선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병영 체험 현장



충남의 향토축제
서천문화원제공

제9회 기벌포 대보름제



행사개요

- 사업목적 : 우리지역에서 대보름날 행해지던 전통민속문화를 체험 및 경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지역주민, 방문객과 아이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일깨워주며 서천군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일 시 : 2007. 3. 3(토). 15:00~19:00
- 장 소 : 서천문화원 광장,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운동장, 뒤뜰 일원
- 주 최 : 서천문화원
- 주 관 : 서천문화원 기벌포대보름제 추진위원회
- 협 력 : 서천읍 이장단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주부교실, 서천군농민회, 전교조서천지회
- 후 원 : 서천군, 뉴스서천, 서천신문

추진위원회 구성

- 구 성 :
- 추진위원장 - 최명규 문화원 부원장
- 추진위원 - 김인규 문화원 이사, 김호자 문화원 이사, 한미희 문화원 이사, 최용혁 농민회 사무국장, 오천환 문화관광 계장, 전교조 서천지회, 주정아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조동준 문화원 사무국장, 정찬영 문화역사마을탐장

추진방향

- 보다 많은 서천주민들의 참여로 대보름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 주민참여와 관심을 증대하고자 기존 장소(한산 신성리갈대밭)를 변경하여 서천읍 중심지로 행사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함
- 전통 놀이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함
- 연날리기 대회는 재검토하고 순수 민속놀이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함

추진계획

- 2007년 1월 9일 : 추진위원회 구성
- 1월 29일 : 1차 추진위원회 회의, 사업계획서 완료
- 1월 30일 : 세부실행계획 완료
- 2월 6일 : 2차 추진위원회 회의, 실행계획 점검(업무분장)
- 2월 21일 : 3차 추진위원회 회의, 중간점검
- 2월 28일 : 4차 추진위원회 회의, 최종점검 및 업무분장 점검 완료
- 3월 3일 : 행사 진행

사업내용

1. 길놀이(지신밟기)

- 불길한 액(厄)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풍물패를 앞세우고 주민들이 뒤따르며 마을 곳곳에 복을 빌어주는 행위로 기벌포 대보름제의 길놀이를 통해 서천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번영을 기원한다.

2. 대보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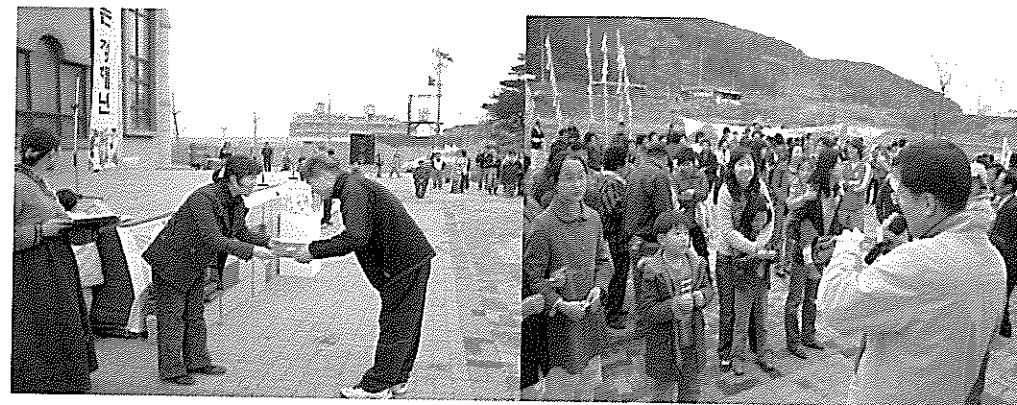
- 마을의 풍년 · 풍어의 기원을 담아 제사를 지내는 행사이다.

3. 전통연날리기

• 연날리기

각가지 모양의 연을 하늘 높이 띄우는 놀이로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 사이에 주로 즐겼으며 그 해의 재난을 멀리 보낸다는 뜻에서 연줄을 일부러 끊어 띄우기도 하였다.

- 연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전통연을 직접 만들어 보고 날리는 체험 프로그램.

• 연날리기 대회

참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작연 등을 통해 전통 놀이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게 함.

4. 대보름전통 체험프로그램

• 귀밝이술 체험 프로그램

정월보름날 아침에 데우지 않은 술(소곡주) 한 잔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한 해 동안 즐거운 소식을 듣는다고 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마셨던 전통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 인절미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직접 절구로 떡을 치는 전통방식으로 인절미를 만들어 참가자들과 두루 나누어먹으며 훈훈한 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제기 만들기 체험 및 경연 프로그램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행해지던 전통민속놀이인 제기차기를 체험프로그램화 함. 직접 만든 제기를 가지고 많이 차기대회를 실시하여 시상함.

• 윷놀이 경연대회

가족과 마을단위로 모여 설날에서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하는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통해 가족·친지의 화합을 도모. 4인 1편을 통한 편별 대결방식을 도입.

• 굴렁쇠 굴리기 대회

굴렁쇠를 굴려서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으로 들어오는 순서로 순위를 결정한다. 달리다가 굴렁쇠가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굴린다. 손을 대어 굴리거나 들고 뛰면 실격한다.

• 기타

투호, 널뛰기, 팽이치기, 자치기

5. 달집태우기

- '달집사르기'라고도 하며 정월 대보름날 달맞이할 때 주위를 밝게 하기 위해 대나무로 기둥을 세

우고 짚·솔가지·뿔감 등으로 덮고 달이 뜨는 동쪽에 문을 내서 만든 것을 달집이라 한다. 달집 속에는 짚으로 달을 만들어 걸고 달이 뜰 때 풍물을 치며 태운다. 15m내의 높이, 5m내의 폭으로 설치하여 풍물패의 마당굿과 함께 달집을 태우며 개인의 소원을 비는 소지도 함께 태움.

- 소지를 만들어 주는 부스 운영.

6. 쥐불놀이

- 밤에 들에 나가서 논둑, 밭둑을 태우는데 이것을 쥐불놀이이라 한다. 쥐불놀이는 못된 귀신을 쫓고 신성하게 봄을 맞이한다는 것과 잡초를 태움으로써 해충의 알을 죽여 풍작을 기도하며 봄에 새 싹이 날 때 거름이 되도록 한다. 또 쥐불놀이를 하면 1년 동안 병이 없고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7. 보름음식 나누기

- 협력단체 주관으로 나물과 함께 오곡밥, 부럼을 준비하여 행사장에 온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
- 협력단체 주관으로 모시떡과 모시차를 시음토록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

8. 액땀을 위한 문화공연

- 액땀을 위한 풍물 공연, 지역내 연주자 섭외 흥을 돋구는 공연

◇기별포 대보름제 일정

시 간	행 사 일 정	장 소	비 고
14:20~14:50	자신밟기	서천읍 시가지	
14:50~15:00	사전 길놀이	서천문화원 광장	
15:00~15:20	개회식		
15:20~15:40	대보름제		
15:40~17:30	인절미 치기		
	귀밝이술 체험	서천정보고 운동장	
	음식 나누기		
	전통연날리기	서천문화원 광장	
	웃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17:40~18:00	공연		
18:00~18:30	사상식, 마당굿, 달집태우기		
	행운권 추첨		
18:30	쥐불놀이	서천문화원 뒤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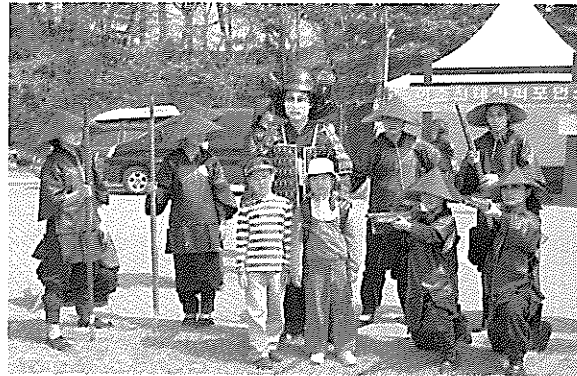
아산성웅이순신축제

1. 축제명칭 : 아산성웅이순신축제 Asan Great Admiral Yi Sun-sin Festival 牙山聖雄李舜臣庆典
2. 행사기간 : 2007.4.27~5.1(5일간)
3. 행사장 주소 :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 및 곡교천 일원 (牙山市 鹽峙邑 顯忠祠 및 曲橋川 一圓)
4. 문의처 : 전화 041-540-2404, 팩스 041-540-2569 메일 : witaeman@empal.com
5. 홈페이지 : <http://www.yisunshinfestival.or.kr>, <http://www.asan.go.kr/tour/index.asp>
6. 개최연혁 및 주기
 - 1961년 온양문화원 주관으로 제1회 온양문화제 개최
 - 1962년 아산군 주관 하에 교육위원회 협조로 개최
 - 1992년 온양시와 아산군에서 공동재정 지원하고 명칭을 온양 아산문화제로 변경
 - 1998년 온양문화제로 명칭 변경(1998.2.25)
 - 2002년 제41회 온양문화제 정부지정 문화관광 예비축제
 - 2004년 제43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로 명칭 변경,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 육성축제
 - 2005년 제44회 문화관광부지정 문화관광 유망축제

- 2006년 제45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문화관광부지정 유망축제
- 2007년 제46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문화관광부지정 유망축제

7. 축제개요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는 구국의 명장이신 이순신장군의 애국애족 정신과 충효정신을 기리며 그분이 일생동안 행해왔던 삶의 궤적을 참여와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축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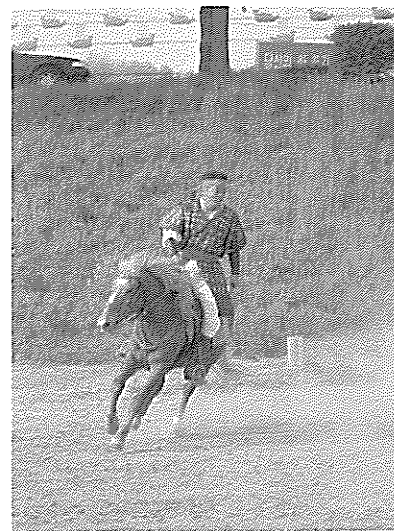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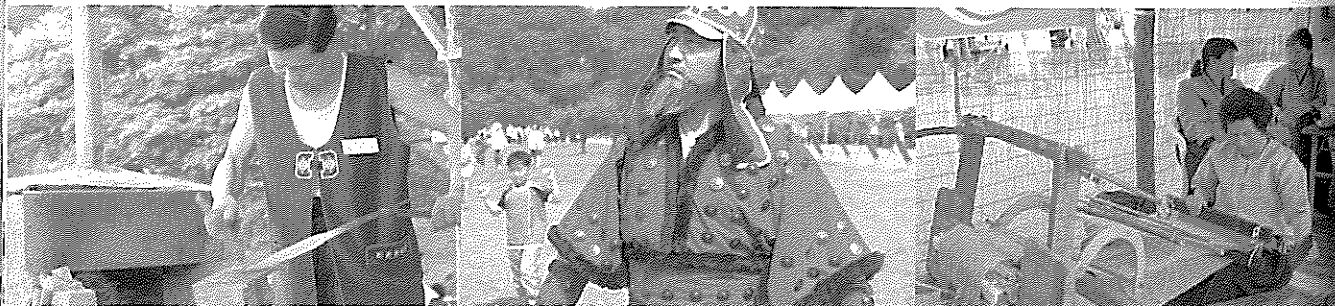
8. 축제의 유래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정신을 되새기고 본받으며 충무정신을 바탕으로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 마련과 시민 화합을 위하여 1961년에 최초로 온양문화원 박노을 원장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주축이 되어 온양문화제명칭으로 개최한 이래 해마다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부터 아산성웅이순신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지방문화 축제로 자리 잡아왔으며 매년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4월28일을 전후하여 5일간 진행되며 불꽃놀이로 시작되는 전야제 행사와 4월28일 현충사에서 거행되는 다례행사, 서막식, 이충무공 전술비 연 날리기 대회, 강강술래, 무과전시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으며 식전행사, 의전행사, 경축행사, 문화예술행사, 전통민속행사 등이 많은 관광 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어우러지고 참여하는 축제로 펼쳐지고 있다.

축제소개

2007년도에 제46회를 맞이하게 되는 아산성웅이순신축제는 이순신장군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충



효정신을 되살려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에 함몰된 시대적 조류에 그분의 정신을 귀감으로 삼아 인간 중심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분을 배향하고 있는 아산 현충사에서 탄신일을 전후해서 매년 열고 있습니다.

아산성웅이순신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뜻과 얼을 기리기 위하여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이순신장군의 생애관, 임진왜란 3대 대첩관, 세계4대 해전관, 임진왜란 4대해전관등) 청소년들의 애국 애족정신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체험 프로그램(이순신장군 휘호 탁본뜨기, 이순신장군 퍼즐맞추기, 태극기 만들기등)을 개발 운영하는 등 전국민이 참여·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인 축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사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며, 관광객을 유치하여 아산의 관광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적인 축제를 지향하고 있음.

또한 올해에는 아산성웅이순신축제가 4년연속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 관광유망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향후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구국의 명장 이순신장군의 충성심과 효심을 되살려 그분의 얼과 뜻이 현재에 재조명될 수 있도록 교육적이고 진취적인 축제로 거듭나 명실상부한 구국의 명장을 기리는 세계적 행사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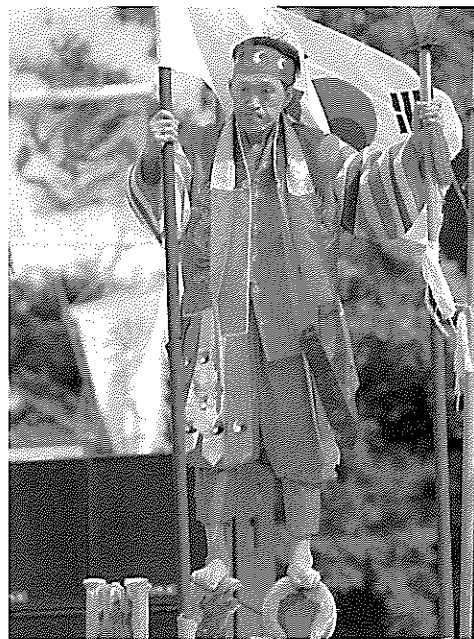
최영장군영신굿

“한은 풀고, 복은 나누자” 치유와 신명의 대동굿
내포축제의 꽃으로 거듭나려나

지난 10월 20일 홍주성 안 남산공원 한켠에서는 1천여 관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근래에 보기 드문 큰 굿이 열렸다. 내포사랑큰축제의 일환으로 홍성군민속문화보존회가 주최한 최영장군영신굿. 이날 영신굿은 이 고장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에서 태어난 명장 최영장군 신을 영접해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동굿으로 치러졌다.

굿판이 벌어진 이곳 홍주성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천둥이 땅에 떨어진 형세라고 하였는데, 그래서인지 홍주성은 유독 많은 전란을 겪었다. 열여섯 번에 걸쳐 왜구들이 침입하였고, 홍주의병, 동학혁명, 이몽학의 난, 고려 중기 문신 최향의 반란 백제부흥운동까지 이 땅을 지켜내기까지 이곳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란과 그 때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영령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호국영령’을 호명하며 그 넋을 달래고, 액은 막고 복을 비는 축원이 굿거리마다 이어졌다. 최영장군신의 위력으로 국태민안과 조국통일이 이루어 주시기를 빌고 또 비는 굿판은 관중들의 호응 속에 해질녘까지 계속되었다.

이날 영신굿의 백미는 작두거리. 굿마당에 설치된 일명 ‘구봉작두’는 날선 작두칼을 두 개씩 짝 지워 계단식으로 짠 모양부터가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아홉 계단의 오르막 작두와 다시 아홉 계단의 내리막 작두는 인간세상의 모든 부정과 액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날의 작두거리는 장현상(38·홍성군 금마면 월암리)법사가 맡았다. 그는 금마면 월암리에서 강신무로 활동해온 장승훈(작



고)씨의 외아들로 그 역시 18세에 꿈을 통해 접신 체험을 한 후 아버지로부터 내림굿을 받았다. 오방색의 화려한 수술을 달은 장군복을 입고 등장한 그는 신을 부르는 경과 춤을 반복했다. 무대의 아래위를 오가며 펄펄 뛰고 빙빙 돌며 계속되는 그의 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빨라졌다. 그는 큰 칼을 양손에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와 자신의 목을 칼로 찔렀다. 또 배와 다리도 칼로 찔렀다. 자신을 죽임으로써 신을 부르는 것이다. 그는 점점 자신을 잊고 신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접신탈아(接神脫我)의 신명에 달톤 그의 몸놀림은 어느 때 보다 가벼워 보인다. 그는 기름을 입에 물고 불을 뿜어낸다. 화전, 불로써 악귀를 물리치는 행위이다. 그는 맨발로 작두위를 올라섰다.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아홉 계단을 오르고 정상에 올라 경을 하고 춤을 추었다. 다시 한 계단씩 내리막 작두를 탄다. 인간세상의 모든

원과 한을 한 몸에 짐지고 대속의 칼날 위에 맨발로 춤을 추어도 피가 흐르지 않는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의 경계는 어디인가? 신과 인간,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가 되어 신명나게 놀면서 그 깊은 한은 풀고 복은 나누자는 대동의 굿판은 용서와 화해, 평화와 공존, 그리고 그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생명, 그 살아있음의 희열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이제 ‘굿은 미신이다 아니다’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 역사가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굿은 이제 우리 문화의 원류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굿은 춤과 노래와 미술과 연극과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한국인의 원형심상을 굿에서 찾아냈으며, 과학과 합리적 이성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도 당당하게 살아있는 굿의 힘은 바로 우리민족의 가슴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신명과 닿아 있기 때문이다. 수천년의 역사 속에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이러한 굿의 문화유산은 70년대 새마을 운동과정에서 장승, 솟대 서낭당 등이 사라지고, 민간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우리 사회에서 내몰림 당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도 1980년대 들어서 우리 무속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면서 이를 보존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굿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우리 지역에서도 안택굿 치병굿 망자천도굿 같은 개인 굿에서부터 광천읍 웅암리의 당산제,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의 풍어제 같은 마을굿의 전통이 살아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최영장군 영신굿은 홍성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내포문화축제를 통해 우리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토속적인 굿의 문화유산을 찾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최영장군 영신굿이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의 민속신앙과 그 전승 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원단신



❖ 논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충남 첫번째 공포



1957년 11월 14일에 설립된 논산문화원은 50년의 역사동안 시민과 함께 해 온 논산 문화의 산실로써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市)로부터 보조받아 지역 고유 문화 계발, 보존, 전승 및 선양 등 고유한 본연 사업은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원활한 수행할 수 있도록 '논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8월 16일 문화원

육성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12월 16일 논산시장 발의로 금년 1월 19일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3월 13일 제 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 처리되어 승인되고 3월 30일 드디어 공포되었다. 주요 골자로 논산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 앞으로 문화원 육성 조례안 공포 이후에 논산시의 본예산에 편입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의 활성화로 논산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전국 224개 문화원 중 현재까지 34곳의 문화원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된 바 충남에서는 논산문화원이 처음 제정된 일로 타 시·군으로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법의 테두리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 바 50년 역사 중 창립일을 맞아 또하나의 큰 획을 그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다. 12월에는 당진문화원과 대천문화원의 지원 육성 조례가 공포되었고 도내 각 문화원도 지방문화원의 성장 발전의 기반이 되는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대천문화원장 이·취임식



지난 7월 2일, 대천문화원 대강당에서는 대천문화원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다. 5대 윤병배 문화원장이 이임하고 제6

대 대천문화원장에 임기석씨가 취임하였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신준희 보령시장, 류근찬 국회의원, 박응진 한국문화원연합회충남지회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 및 문화원 임원,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임하는 윤병배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문화 발전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후임 원장을 중심으로 문화원 임원 및 가족들이 화합하여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임기석 원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들과 함께 문화원이 열린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문화 학교의 내실화로 문예활동과 교육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보령 향토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 말했다. 임기석 문화원장은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과를 졸업하고 충청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령문화연구회장과 한국예총보령지부장을 역임하였다. 7월 1일부터 4년 임기로 제6대 대천문화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정재욱 공주문화원장 '옥관문화훈장' 서훈



2007년 문화의날, 문화예술 발전 공로 정재욱 문화원장이 문화관광부가 수여하는 옥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지난 10월 18일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개최된 2007년 문화의날 행사에서 정재욱 원장은 열악한 지역문화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수여받았다. 40여년 외길 인생으로 오직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기여 해온 정 원장은 2001년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신축 준공된 원사를 활용하여 각 장르별 공연행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42회) 실시하였으며, 매년 관내학교, 복지시설, 교도소, 국립정신병원 등을 방문, 찾아가는 공연행사를 시행하여 예술의 향수권

신장에 기여해왔으며 공주 백제문화제의 주관 및 집행위원장으로 역할을 다하여 전국의 3대 문화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공주문화' 소식지를 발간하여 국내외 출향인사 및 전국의 유관기관 문화가족들에게 배포하여 고향의 가교역할에 기여하는 한편 1993년도에 지정받은 지역문화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현재까지 3,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평생교육 구현에 기여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또 원내에 향토자료관을 설립, 금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향토사료를 수집하여 현재 약 500여 점의 고서, 고문서, 고지도, 문집, 민속생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문화원 사업 외에도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바 신행정도시사수 공주시집행위원장과 공주대학교 본부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수석대표로 활동하여 지역사회 개발에도 기여한 공로 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정재욱 문화원장은 "전국 224개 문화원 가족들은 항상 음지에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다"며 이번 상은 정부차원에서 문화원 종사자들에게 훈장의 폭을 넓히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 서산문화원장 이·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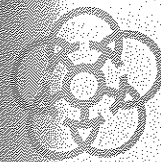


지난 11월 10일 서산문화원 문화감상실에서 서산문화원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유상곤 서산시장, 임덕재 서산시의회 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 문화원 가족 등 2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제5대 신상찬 원장이 이임하고 제6대 이준호(56세)원장이 취임하였다.

신임 이준호 서산문화원 원장은 "이제 모든 문화 활동은 민간인이 주도가 되어 창출해 내고 관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하는 문화민주화 시대가 도래했다"며 "민간주도하에 창출되는 문화 민주화의 새바람이 성실하고 견고하게 세계 속의 서산으로 일깨워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준호 원장은 1972년 교육행정직을 시작으로 한빛지움 복지원, 서산문화제 추진위원회사무국, 서산문화원 이사를 거쳐 서산 문화원장에 취임하였고, 평소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원장은 이춘자 씨와의 사이에서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궁도와 사진이다.



❖ 2007 충남문화예술인대회 및 심포지엄



난 11월 24일 오후 2시, 천안 정보통신부공무원교육원에서 최민호 충청남도행정부지사를 비롯 권병학 천안부시장, 박웅진 한국문화원연합회충남도지회장, 안수영 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장 등 도내 문화예술인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충남문화 예술인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제1부 행사에서는 충남국악관현악단의 사물놀이와 경희대 홍순달교수의 색소폰 연주가 있었으며 개회식에서는 안수영 예총충남도연합회장의

대회사와 박웅진 문화원연합회도지회장의 지역문화선언문 낭독에 이어 지역문화예술유공자로 선정된 한국문인협회 한정찬 씨와 공주문화원 최선 씨 등 10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있었다. 최민호 행정부지사 축사에 이어 지역 출신 김홍신 소설가의 '21C 글로벌시대의 문화예술'이란 주제의 초청강연이 있었다. 제2부 행사에서는 이명수 시인의 진행으로 충남문화예술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으며 주제발표에서는 제1주제로 나호열 한국예총 정책연구위원이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제고 방안' 제2주제로 오세곤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새로운 충남문화예술 진흥정책의 기대' 제3주제로 유성열 서천문화원장이 '충남문화예술단체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정지수 태안문화원 사무국장, 양기철 당진예총회장, 윤성희 천안예총회장이 주제발표 내용과 관련된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며 종합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자 및 지정토론자와 방청객이 참여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행사장 밖에는 사진전시회 및 미술전시회, 출향작가 및 향토작가가 참여한 것발축제를 동시에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충청남도지사 표창 : 최 선(공주문화원), 정영옥(당진문화원), 이봉규(대천문화원), 윤용재(온양문화원), 김유미(태안문화원)

❖ 임채학씨 향토문화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지회장 박웅진)가 주최한 2007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사업 논문 공모전에서 임채학(60세,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씨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제22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과 상금을 받았다. 임채학

씨는 2년여에 걸쳐 논산시 강경을 북옥리 옥녀봉 정상에 암각 '해조문'을 연구하였는데 '강경포구의 암각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번 논문은 암각문의 형태 및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고 특히 원문 내용을 고대 중국 문헌과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외, 조선 여러 유학자들의 주자학을 통해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번 논문을 심사한 건양대학교 이철성 교수와 신상찬 국사편찬사료조사위원은 독창성, 논지의 일관성, 자료의 적절성, 기여도, 목적 부합성, 형식 부문에서 모두 높은 점수로 타 논문에 비해 우수하였다고 평하였다. 1860년 8월, 강경 옥녀봉 인근에 거주했던 송심두(은진송씨 당시32세)에 의해 만들어진 '해조문'(解潮文)은 아름다운 경관과 그대로 어울려 한편의 시로 보아 주어도 훌륭 할 뿐만 아니라 어느 포구에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석의 변화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유일하다는 것이다. 조선 3대시장의 하나로 포구의 옛 영화의 빛을 담고 있는 이 암각문은 강경 역사, 문화적 로고라고 임채학씨는 설명하고 있다. 임채학씨는 현재 국사편찬사료조사위원, 논산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논산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1. 충남문화 제11호

- 기 간 : 2007년 1월 ~ 12월

- 대 상 : 도내 문화원

- 활동상황 : 충남도지회가 출간하는 『충남문화』제11호는 본 지회 및 도내 17개 문화원의 활동상황, 향토문화에 대한 조사·발굴·연구상황, 문화행사 등을 수록 간행하여 회원과 각지회 및 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필요기관에 배포하여 충남도내 문화관련 행사를 대내외에 알림.

2. 2007 충남지회 보조사업 "충청남도 애향시 공모전 및 시낭송회"

- 기 간 : 2007년 3월 ~ 12월

- 대 상 : 도내문화원

- 활동상황 : 도내 문화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일반인, 청소년)의 내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담은 시(詩)를 엄선, 도지회에 제출하여 입상작을 엮어 시집을 펴내고 "충남시낭송의 밤" 개최 시 시상 함. 12월 21일(금) 오후 6시부터 논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는 도내문화원 추천 시낭송가 출연 및 박은주 전자바이올리니스트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이 어우러지는 "도민과함께하는 충남시낭송의 밤" 이 개최 됨.

3. 2007년도 지방문화원 활성화 워크숍

- 기 간 : 6월 4일 ~ 5일

- 장 소 : 대천 한화콘도

- 대 상 : 도내 문화원, 도·시·군 담당공무원

- 활동상황 : 보령시장 환영사, 도(道)문화예술정책설명, 특강 "문화원 프로그램 기획능력 제고" 안이영노 기분좋은 QX 트랜드 대표, 특강 "우리문화의 뿌리-언어를 중심으로" 강상원 한국 세종한림원 원장, 공연 "보령 흙피리" 오카리나연주, "문화원 회계 및 정산 관련 교육" 장상호 한국문화원연합회 총무국장, 분임토의 결과 발표, 보령머드체험관 체험 등.

4. 향토사 연구 활성화 사업 "충남 지역 향토사 자료 공모"

- 기 간 : 2007년 9월~12월(논문 접수 및 심사, 시상식)

- 대 상 : 문화원 및 향토 연구회 회원 등

- 활동상황 : 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사와 관련 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역사 정립과 지역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업. 총 4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논산문화원에서(심사위원 : 신상찬 국사편찬사료조사위원(전 서산문화원장)과 이철성 건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입선한 논문 작품은 12월 월례회(12월 28일 오후 5시,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시상식이 있었다.

2007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훈 격	성 명	논 제	비고
최우수상	임채학	강경포구의 암각문	논산
우 수 상	임영수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명칭이 세종이라 지어진 이유	조치원
장 려 상	전해주	병천 성공회와 4.1 아우내 만세운동	아우내
장 려 상	이주열	충남 연기 읍사의 불교사적 의미	조치원

5. 도내 문화원 종사자 교육

- 일 시 : 2007년 11월 19일 10:00~17:00
- 장 소 : 충청남도교육연수원(공주)
- 대 상 : 도내 문화원 간사
- 활동상황 : “문화를 통한 희망찾기” 라는 주제로 이현미 대전문화정책 네트워크와 대전문화연대 정책위원의 특강에 이어 충청남도 사이버문화원 e-book 시스템 구축 관련 교육과 회계 및 세무 관련 김일선 세무회계사, 청원대 경영학과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

6. 운영위원회 및 월례회

- 일 시 : 수시
- 대 상 : 도내문화원장
- 활동상황 : 도내 문화원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정보 교류, 충남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 토의, 주요 현안 사항에 관한 공동의 목표추진 등을 위한, 정례모임, 2월 12일 정기총회 시 이완구 도지사 초청 신년간담회를 통해 충남 문화 발전을 위한 대의적인 회의를 가짐.

2007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제46차 총회 및 이완구도지사 초청신년간담회



운영위원회의



지방문화 운영 활성화 워크숍



향토사연구논문 심사



9월 월례회



도민과 함께하는 충남시낭송의 밤

2007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2007 정해년 신년교례회	· 일시 : 2007 1월 3 일 (11: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400명	관내 각종 기관 및 사회단체장 기업체장 유지 신년하례 인사 교류 및 축하연	
2	반향 공주문화 소식지 발간	· 기간 : 1월 - 12월 · 4×6배판 68쪽 · 격월 발간 3,000부	웅진춘추, 공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바로이분, 고사와격언, 향토사료, 이달의 문화인물, 내고장 소식, 문화원소식, 문화가 산책 등	
3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후속프로그램	· 일시 : 1/18 14:00~17:00 · 장소 : 도령서당	학생과 실버학교 어르신 화합축제 - 딸치기, 집터다지기, 가래질소리, 논매는 소리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세대간의 화합을 결속	
4	예인촌 정기공연 연극동호회(깊은여운) "신의 아그네스"	· 일시 : 2/24-2/26, 17: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4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 연극동호회(깊은여운) 작품명 : 신의아그네스	
5	공주문화원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 일시 : 2/13 - 7일 (주1회~2회)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회의실, 놀이마당, 문화사랑방, 전시실 · 참석인원 : 250명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로 문화심성개발과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감성훈련을 통하여 계층 간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 을 제공 ①가곡반 ②풍물반-초급 ③동물반-중급 ④댄스스포츠반 ⑤컬트 ⑥국선도반 ⑦서예반 ⑧요가반 ⑨탁종이종이접기 ⑩가야금 ⑪생활일본어	
6	예인촌 공연 "의당면민 노인위안공연"	· 일시 : 5/7 10:00 · 장소 : 의량초등학교 · 참석인원 : 500명	예인촌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 제공 - 어버이날 의당면민 노인위안 공연	
7	예인촌 공연 "가정의 달 특별공연"	· 일시 : 5/18 · 장소 : 의량초등학교 위안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 병마와 싸우는 공주국립병원 위안 공연	

2007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8	공주문화원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 일시 : 5/21 - 11월 (주1회~2회)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회의실, 놀이마당, 문화 사랑방, 전시실 · 참석인원 : 250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로 문화심성개발과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감성훈련을 통하여 계층 간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 을 제공 ①국선도 ②풍물반-초급 ③풍물반-중급 ④댄스스포츠반 ⑤요가반 ⑥가곡반 ⑦서예반 ⑧생활일본어 ⑨탁종이종이접기 ⑩컬트 ⑪비즈공예, 와이어공예	
9	제12회 "효"사상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 일시 : 6/8 14:00 · 장소 : 공산성 쌍수정광장 · 참석인원 : 800명	효의 본고장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 사상을 선양 고취시키고 문학의 저변확대 참가대상 : 공주시 초·중·고학생	
10	예인촌 정기공연 "피아니스트 강나영과 함께하는 열린콘서트"	· 일시 : 6/14 19: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연주회	
11	제12회 "효"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학생 백일장 시상식	· 일시 : 6/21 16: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100명	- 백일장 시상식 - 참가대상 : 공주시 초·중·고학생	
12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 일시 : 8/3 · 장소 : 도령서당	향토지킴이와 꿈나무 어린이와의 만남 - 딸치기, 집터다지기, 가래질소리, 논매는소리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세대간의 화합	
13	청소년 및 시민 문화유적 답사탐방	· 일시 : 8/25 · 장소 : 여주, 음성 · 참석인원 : 83명	답사코스 : 여주 - 명성황후 생가 및 기념관 - 세종대왕릉 - 신록사 - 목야박물관 - 음성 큰바위얼굴 공원	
14	공주문화원 향토작가 초대전	· 일시 : 9/3 - 9/9 · 장소 : 공주문화원 전시실 · 참석인원 : 200명	- 공주문화원 향토작가 초대전 - 향토작가 "동천 이기하 선생 서예전"	
15	예인촌 정기공연 실버전통 예술단 "논두렁 발두렁" 발표회	· 일시 : 9/13 19: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200명	전통 문화 공연으로 두레풍장, 공주소리, 동요 한가위를 앞두고 시민의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 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공연	

2007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2007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6	제21회 전국남녀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	· 일시 : 10/11~10/12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민속 고유의 전통가락으로 민족의 얼과 전통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문화를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17	제12회 우공서화전	· 일시 : 10/27~10/30 · 장소 : 공주문화원 전시실	공주문화원 초대 - "우공서예전"	
18	지역문화학교 전시회	· 일시 : 10/31~11/2 · 장소 : 공주문화원 전시실	지역문화 수강생 및 강사들의 작품 전시 -분야 : 퀼트, 닥종이, 서예, 종이접기	
19	제7회 가곡의 밤 공주문화원 가곡교실	· 일시 : 11/5 · 장소 : 공주문화원 대강당	가곡반 수강생들의 발표회	
20	공주문화원 초대 "벽초 박흥규"	· 일시 : 11/10~11/14 · 장소 : 공주문화원 전시실	-공주문화원 초대 -"벽초 박흥규"	
21	예인촌 정기공연 "문화의 향기 그리고 열매"	· 일시 : 11/15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예인촌 초청 공연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배사매무췌, 태평무, 진도북춤	
22	공주문화원 초대 "유순식 초대전"	· 일시 : 12/22~12/27 · 장소 : 공주문화원 전시실	- 공주문화원 초대 -"유순식 초대전"	



신년교례회



유적답사탐방



예인촌공연-노인위안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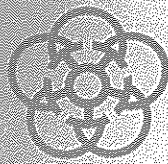
예인촌공연-열린콘서트



백일장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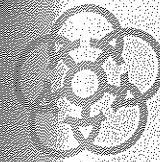


시조경창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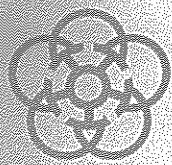
2007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금산의 민속발굴	· 「유등천 유역의 구비문화」 발간 · 조사지역 : 금산의 전지역	- 금산의 민속자료 조사활동	
2	금산의 마을지	· 부리면 수동리 마을지, 방우리마을 지 보고서 발행	- 각 마을의 역사, 관광 조사연구	
3	문화학교운영	· 일시 : 3~8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강좌수 : 4개강좌	- 문예창작, 서예강좌(기초) 한국화(기초), 판소리(기초)강좌를 통해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4	금곡서회	· 일시 : 1~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서예동호인단체, 금곡서회회원 · 참여인원 : 45명	- 문화학교 초급반을 이수한 회원들 로 구성된 고급과정 서예 전시회 개최	
5	창현회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한국화 동호인 단체, 창현회원 · 참여인원 : 20명	- 문화학교 초급반을 이수한 회원들 로 구성된 고급과정 한국화 전시회 개최	
6	풍각쟁이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판소리, 민요, 동호인 단체 · 참여인원 : 20명	- 금산문화예술제 노래모임 풍각쟁 이의 국악공연	
7	장동달맞이축제	· 일시 : 2월 3~4일 · 장소 : 금산을 양지리 장동마을 · 참여인원 : 20,000명	- 달과 불 그리고 풍물을 주로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마을축제로 육성 - 인삼, 약초와 연계 겨울 관광문화 축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8	비단골산꽃축제	· 일시 : 4월 21~22일 · 장소 : 군북면 산안리 · 참여인원 : 15,000명	- 100여만평의 산벚꽃자생단지에서 꽃길여행, 민속공연 등 자연친화 적인 축제 구성	
9	금강민속축제	· 일시 : 7.27~28일 · 장소 : 부리면 평촌리(금강놀이마당) · 참여인원 : 20,000명	- 금산농악판국, 물페기농요, 농바우고 시기 등 공연 금산의 민속체험마당 가족과 함께 하는 추억만들기 마당	
10	금산풍물축제	· 일시 : 12월 31일 · 장소 : 금산군 신대리 · 주관 : 금산농악보존회 · 참여인원 : 12,000명	- 금산농악 매굿과 큰기울리기, 제야 의 종소리, 쫓불켜기, 불꽃놀이, 초청공연 등	
11	삼꽃문화마당	· 일시 : 3~12월 · 장소 : 금산군 일원 · 참여인원 : 200명	-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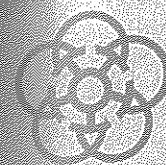
2007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2	금산민속연보존회	· 일시 : 1월~12월 · 장소 : 장동달맞이축제 기타 축제 의 현장, 금산문화를 홍보하는 장소 · 참여인원 : 30명	- 연 띄우기, 연만들기 체험교실운영 연 전시회 등 연의 축제	
13	금산문화예술축제	· 일시 : 11.17일 · 장소 : 금산다락원생명의집(대공연장) · 참여인원 : 800명	- 문화예술의 달을 기념하는 금산문 화예술제로 미술, 서예전시회 개 최	
14	금산인삼골합창단	· 일시 : 12.28월 · 장소 : 금산다락원생명의집(대공연장) · 참여인원 : 800명	- 정기연주회 개최 - 군민의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	
15	금산역사문화발굴	· 일시 : 1~12월 · 장소 : 금산역사, 민속, 상태자료 조사	- 금산역사문화연구 보고서 발행	
16	금산주부풍물 보급사업	· 주부들의 여가문화 창출	- 나아내주부풍물단 공연	
17	농바우고시기보존	· 일시 : 1월~12월 · 대상 : 농바우고시기보존회	- 농바우고시기보존회 공연	
18	물페기농요보존	· 일시 : 1월~12월 · 대상 : 물페기농요보존회	- 물페기농요보존회 공연	
19	산꽃시동인지 발간사업	· 산꽃시동인지 작품 및 특집수록	- 산꽃시동인지 발간사업	
20	좌도시동인지 발간사업	· 좌도시동인지 작품 및 특집 수록	- 좌도동인지 발간사업	
21	실용음악 보급사업	· 실용음악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가 문화 창출	- 그룹사운드 「파랑새」	
22	금산주부풍물 보급사업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동호인단체 나아내풍물단 · 참여인원 : 45명	- 각종축제 금산풍물굿공연 - 금산문화원학교 초급과정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 고급반 과정	
23	사물놀이 보급사업	· 사물놀이 기능 전수와 여가문화 창출	- 사물놀이 토리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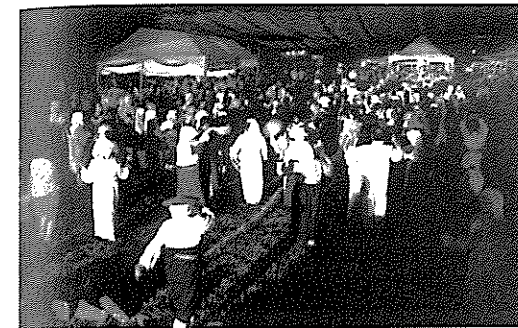


2007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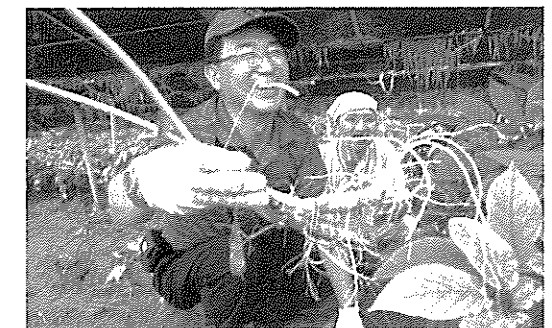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4	청소년토리풍물단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참여 : 50명	- 매주 오후 문화원을 개방 토리패 풍물단 운영 및 지도	
25	문화소모임 (동아리)활동	· 일시 : 3월 ~ 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참여인원 : 150명	- 군민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와 인식을 통하여 문화향수권신장	
26	전시회	· 일시 : 11.9~13일 · 장소 : 금산다락원 생명의집 전시장	- 금동인(미술), 금묵회(서예)전시회	
27	전국평생학습축제	· 일시 : 10.1~5일 · 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 · 참여인원 : 50명	- 평생학습의 성과 축하 및 공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평생학습 사회 실현도모	
28	소규모야외가설공연 무대설치	· 각종 축제 행사에 원활한 진행 관광객에게 편의 및 참여기회 제공	- 각종 축제 및 체험행사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	
29	문화백서발간	· 영상CD제작, E-BOOK 책자 발간 등	· 축제 및 문화활동 등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	
30	전국창작동요대회	· 가족사랑의 중요성 강조와 금산 자연 및 인삼의 우수성 홍보	· 제1회 금산가족사랑 전국창작동요 대회	
31	금산인삼문화축제	· 일시 : 9월7일~16일 · 장소 : 금산군 신대리	· 전통있는 금산문화예술 관련 프로 그램의 발표를 통해 주민참여 지역문화 창출	



2007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금강민속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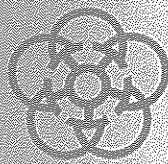
금산인삼축제



비단골산꽃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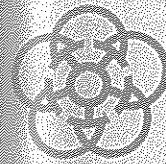


장동달맞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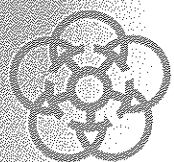
2007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정해년 신년교례회	· 일시 : 2007. 1. 2. 14: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참석인원 : 200여명	각급 기관 및 단체장들과 많은 문화계인사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함	
2	제5회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축제	· 일시 : 2007. 3. 3. 14:00 · 장소 : 논산천 둔치 · 참가인원 : 800여명	읍·면·동 줄다리기 및 제기차기 대회, 연날리기대회, 각종 민속놀이 체험, 가훈씨주기, 소원빌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됨	
3	내고장문화유적답사	· 기간 : 2007. 3. 1 ~ 11. 30 · 대상 : 논산시민 · 참가인원 : 1,200여명	논산의 유서깊고 아름다운 문화유적지를 선정하여 여학과 종철의 고장 논산을 시민에게 알리는 문화유적답사를 실시 함	
4	논산시민사랑연주회	· 일시 : 2007. 3. 17. 14:00 ·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석인원 : 500여명	논산문화원이 주최하고 KB관악합주단이 주관하여 논산 시민사랑연주회가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많은 시민이 관람한 가운데 개최 됨.	
5	계백장군 제향	· 일시 : 2007. 4. 12. 10:00 · 장소 : 계백장군 사당 · 참가인원 : 500여명	논산시유림협의회가 주관하여 시민과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계백장군의 충절 정신을 기리고, 이를 후손에게 전하고자 거행 됨. 건양대학교, 감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함.	
6	제1회 논산시 여성백일장	· 일시 : 2007. 5. 12 · 장소 :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 참석인원 : 150여명	문학소녀들의 꿈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며 운에 창작활동을 통해 여성들의 정서적 함양 고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 의식을 도모하는 행사, 당일 글제 발표 백일장 개최후 7일내 심사 발표 함.	
7	연무병영체험축제 '백제문화탐방'	· 일시 : 2007. 5. 19~5.21 · 장소 : 논산관내 · 참가인원 : 150여명	2007년도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축제를 맞아 축제객을 대상으로 백제군사박물관, 견훤왕릉, 금곡서원 등을 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백제문화 탐방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음.	
8	논산 문화재 백일장 & 그림 공모전	논산시 각 초·중·고에 6월중 문화재와 관련된 작품을 공모, 심사.	논산시 각 초·중·고에 논산의 문화재와 관련된 주제로 그림과 원고 공모를 통하여 논산의 문화재에 대해 학생들이 많은 관심과 보호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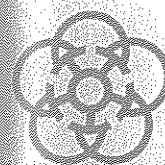
2007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9	논산시 읍·면·동 노인 장기 대회	· 일시 : 2007. 6. 28. 08:00 · 장소 : 놀이웨딩프라자 4층 · 참석인원 : 150명	논산시노인회가 주관하여 관내 읍, 면, 동 별로 각 노인정에서 추천한 선수 총 64명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개최 함.	
10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백제의 후에! 실버 도예가 양성 프로그램	· 기간 : 2007. 6 ~ 10 · 장소 : 자연체험학교, 건양대 · 참석인원 : 30명	통합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1단계 도예교육 과정, 2단계 사회 참여활동, 3단계 소득 창출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연합회 주최 2007실버문화사랑축제 참, 12월 15일 ~ 18일까지 논산문예회관 소전시실에서 전시회 개최 함	
11	제2회 청소년 문화제	· 기간 : 2007. 7. 9 ~ 7. 14 · 장소 : 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 1,200명	논산시 문화재 백일장·그림공모전 사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청소년을 위한 푸른음악회, 끼를 발산하는 무대인 "내마음의 푸른꿈" 개최 함.	
12	제18회 논산시 서예회호대회	· 일시 : 2007. 9. 29. 10: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참여인원 : 100명	논산 서예 발전과 서예인들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대회가 개최 됨. 11월 2일~11월 7일 논산문예회관 소전시실에서 시상식과 함께 전시 됨.	
13	2007 경전길축제 "축제연계관광"	· 기간 : 2007. 10. 12 ~ 16 · 장소 : 논산관내 · 참가인원 : 200여명	축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장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축제도 즐기는 동시에 여학과 종철의 고장 논산을 널리 알리는 등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음. 오전은 백제군사박물관, 오후에는 논산명제고택, 종학원을 답사 참가 함.	
14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자리	· 일시 : 2007. 10. 30 ·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관람인원 : 250명	논산시낭송인회가 주관하여 시낭송과 색소폰, 가야금, 통기타연주 등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가을 밤 행사가 개최 됨.	



2007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5	개원 50주년 기념행사	· 일시 : 2007. 11. 7. 14:00 ·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참석인원 : 200여명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관, 단체장 및 문화원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 념식, 다과회, 50주년맞이서예전 등 이 개최되어 반세기 역사를 뒤돌아 보고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여는 장을 마련 함.	
16	계간지 『논산문화』 발간	2003년 봄호부터 매회 8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로 편집위원회와 명 예기자를 구성하여 알찬 내용으로 연4회 계간지로 발간. 문화원회원, 전국문화원, 관내 기관 단체, 출향인 사 등 배포함	
17	『논산문예』제15집 『정경(내고장논산)』 발간	6월에 실시했던 논산시 문화재와 관련 된 원고 공모에서 입상한 우 수작을 모아 문예작품집으로 발간	본 원 주최로 시행된 논산시 문화재 백일장 공모에서 입상한 우수작품 을 모아 문예지 발간	
18	『논산의금석대관』 발간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1910년 이전의 논산의 비문, 암각 등을 탁본하여 원문과 번역문, 사진 과 함께 수록 발간 함.	
19	논산의 읍·면·동지 자료수집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논산시의 각 읍·면·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민속, 풍습, 전설등의 자료수집 정리 (가야곡, 노성, 별곡, 상월, 채 운)	
20	논산 고건축물 현판·현액·주련 조사 및 번역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논산 지역의 향교, 서원, 사찰 등의 현판, 현액, 주련 등을 조사하고 사진 촬영 및 원문을 번역 함.	



2007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개원50주년 기념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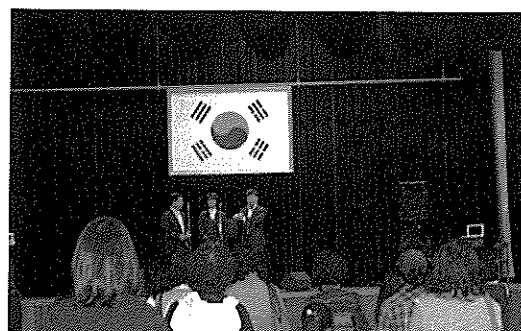
계백장군제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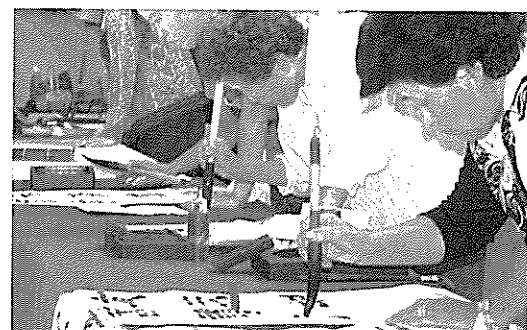
백제의 후예! 실버 도예가



청소년문화제



여성백일장



서예회대회

2007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 일시 : 2007. 2.23/3.4 · 장소 : 문화원/문예의전당 · 참여인원 : 1,200명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대보름 민속 놀이를 재현(웃놀이, 줄다리기, 소망쓰 기, 김덕수사물놀이 초청공연, 벚거리 대 세우기 등)	
2	해외문화탐방(중국)	· 일시 : 2007. 2. 28~3. 3 · 장소 : 중국 북경 · 참여인원 : 46명	중국의 북경 문화탐방 (만리장성, 명 13릉, 북경중화민국원, 천안문, 자금 성, 천단공원, 이화원 등)	
3	제1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 일시 : 2007. 3. 30 · 장소 : 전북 익산 · 참여인원 : 80명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향토유적탐방 (왕궁리 5층석탑, 보석 박물관, 미륵 사지 5층석탑 나바위성지)	
4	제2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 일시 : 2007. 5. 16 · 장소 : 충북 옥천·영동 · 참여인원 : 45명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향토유적탐방 (육영수여사생가, 정지용문학관, 난 계국악박물관, 영국사)	
5	제3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 일시 : 2007. 10. 5 · 장소 : 육군사관학교 · 참여인원 : 45명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향토유적탐방 (지역 노인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육 군사관학교 방문)	
6	제4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 일시 : 2007. 10. 23 · 장소 : 경기도 용인시 · 참여인원 : 80명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향토유적탐방 (정몽주선생의 묘, 충렬서원, 와우정 사, 상업박물관)	
7	제5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 일시 : 2007. 11. 9 · 장소 : 전북 고창 · 참여인원 : 45명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향토유적탐방 (선암사, 미당문학관, 고인돌유적, 고 창읍성)	
8	우등한그릇 연극공연	· 일시 : 2007. 9. 12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120명	문화소외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대학 로 유명극단의 방문공연	
9	남이흥 장군 문화제 기념 학생 백일장	· 일시 : 2007. 9. 10 · 장소 : 충장사 · 참여인원 : 2,000명	남이흥 장군의 애국 애족과 살신위 국을 본받을 수 있도록 매년 학생 백일장 개최	
10	당진문화원의 노래비 제막	· 일시 : 2007. 12월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100명	당진문화원 40주년 기념으로 작사, 작곡된 문화원의 노래를 비석으로 제작하여 보존함.	
11	「당진문화」 27/28호 발간	· 일시 : 2007. 7월 / 12월 · 발행부수 : 각 2,000부	문화원 소식 및 지역문화소식과 정 보를 수록하여 2회 발행	
12	향토유물 수집	· 일시 : 2007. 6. 30 · 유물 : 고서 · 수량 : 30점	향토자료관 조성을 위해 지역의 향 토유물 고서 30여점을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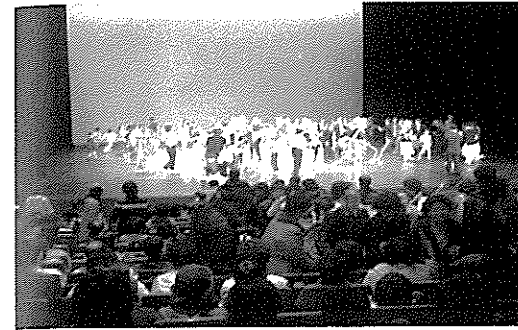
2007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3	숲체험	· 일시 : 2007. 10. 26 · 장소 : 남산공원 · 참여인원 : 20여명	주변의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 는 자연학습 프로그램(나뭇잎 손수건 만 들기, 나무목걸이, 하늘정원 걷기 등)	
14	작은 도서관 연찬회	· 일시 : 2007. 10. 29 ~ 30 · 장소 : 도비도 · 참석인원 : 100여명	충청지역 작은도서관 종사자 및 관 계자가 모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 안에 대한 토론	
15	문화예술이 향연	· 일시 : 2006. 12. 13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300여명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발표회와 더불어 여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	
16	「당진문화원 50년사」	· 일시 : 2007. 12. 30 · 발행부수 : 2,000부	당진문화원이 걸어온 50년의 발자 취를 기록하여 발간	
17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연중 · 강좌수 : 19개 운영 · 참여인원 : 연 25,000명	가요교실·댄스스포츠·대금·단전호 출·택견·민요장구·노인건강·고전무 용·미술·수채화·문인화·오카리나· 종이접기·펠트·생활영어·일본어·미 술심리·시낭송·민속놀이보존	
18	호원노인대학 운영	· 일시 : 연중 · 대상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주80여명	당진지역 60세 이상 노인계층을 대 상하여 강연, 체험 등을 주 1회 실시	
19	팽팽팽 실버학교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 려주는 내고장 이야기”	· 일시 : 2007. 6. 19 ~ · 대상 : 실버계층 · 참여인원 : 20명	복권기금 지원 사업으로 당진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미 디어 워크숍 진행 (발표회 8월 2일)	
20	한글교육	· 일시 : 2007. 1.9~12.31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참여인원 : 연3,000명	한글교육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가정 및 사회 적응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4개반으로 나누어 주2회 교육 실시 (화·금요일)	
21	미디어 워크숍	· 기간 : 2007.1.10~27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참여인원 : 15명	비디오카메라 작동법 및 컴퓨터 편 집교육으로 개인 단편영화 제작	
22	마음이 꽃피는 영화제 및 여성영화제	· 기간 : 2007. 1.10 ~ 27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참여인원 : 120명	미디어 워크숍에서 제작된 10여편의 단편영화 상영	
23	나눔영화제 “미녀는 괴로워” 상영	· 기간 : 2007.3.27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참여인원 : 120명	문화연대 찾아가는 나눔영화관의 이 주여성 대상 영화상영	

2007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2007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4	삼베교육	· 기간 : 2007.8.2~9.2 · 장소 : 고대면 슬항리 · 참여인원 : 30명	전통의 계승과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삼베교육	
25	문화탐방	· 기간 : 2007. 10. 30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참여인원 : 30명	결혼이민자들에게 지역의 문화를 체 험시키고자 함덕수리박물관과 전력 홍보관 탐방	
26	요리교실	· 기간 : 2007. 9~11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참여인원 : 20명	실생활에 필요한 요리교육을 함으로 써 한국행살 정착에 도움을 줌	
27	한글로 편지쓰기	· 기간 : 2007. 12월 예정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참여인원 : 50명	한글교실을 통해 배운 한글로 가족 에게 편지를 쓰고 정을 나눔	
28	한글강사육성	· 기간 : 2007. 10~11 · 대상 : 한국인 주부 · 참여인원 : 28명	앞으로 늘어날 이주여성의 한글교육 과 주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글 강사육성	
29	엄마랑 아가랑	· 기간 : 2007. 10~12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참여인원 : 15명	육아의 서툰 이주여성 엄마들에게 놀이를 통해 아이와 교감하는 법을 교육	
30	다양한 체험활동	· 기간 : 2007. 10~12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참여인원 : 15~30명	천연염색, 아로마비누만들기, 바느 질, 뜨개질, 종이접기, 도자기만들기, 허브농장체험, 초락도약쑥마을 찜질 방체험	
31	이주여성 발표회	· 기간 : 2007 12월 예정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참여인원 : 50명	각 체험활동을 통해 제작된 발표물 전시와 각국 춤, 노래등의 공연 발표	
32	다문화예술단 창단	· 기간 : 2007 12월 예정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출신국 : 각국	결혼이민자 교육생 중에서 문화예술 적 재능을 발굴하여 예술단 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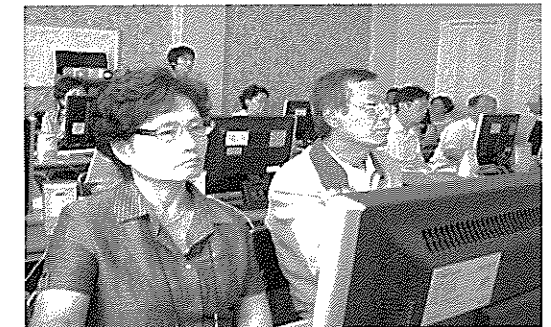
대보름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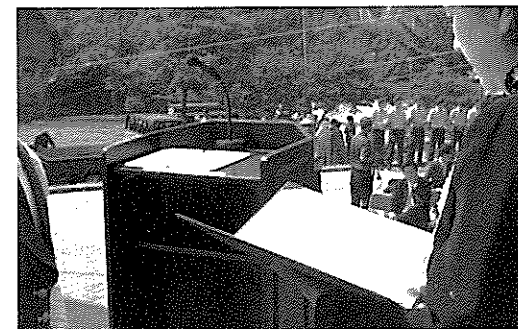
해외문화유적답사



향토문화유적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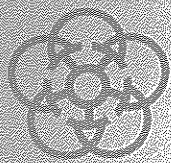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남이흥장군 백일장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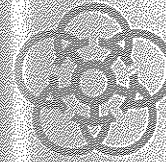


이주여성 삼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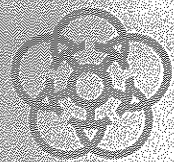
2007년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해맞이행사	· 일시 : 매년 1월 1일 · 장소 : 성주산 일출전망대 · 참석 : 보령시민 및 관광객 · 참여인원 : 2,000명	새해 첫날 시민안녕과 새해소망을 기원하며 새해 아침을 맞으며 시민 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	
2	신년교례회	· 일시 : 매년 1월 2일 · 장소 : 문화원 대강당 · 참석 : 유관기관 단체 및 문화회원 · 참여인원 : 300명	새해첫날 유관기관 단체의 화합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보령건설 다짐	
3	문화회원 문화가족 문화유적 답사	· 일시 : 2007. 8. 14 · 장소 : 강화도 문화유적답사 · 참석 : 문화원회원 110명	문화원 회원간의 화합을 통한 문화 원 회원 · 가족으로써의 자긍심 고 취 기회 부여와 우리 고장 문화와 역사성을 바로 알려 향토문화 가꾸 기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 마련	
4	고유우리 명절전통 민속체험행사	· 일시 : 2007. 9. 7 · 장소 : 대천문화원 · 참석 : 소외계층불우청소년 · 참여인원 : 100명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갖 는 계기마련과 추석명절 우리민속 체험 기회제공 자라나는 청소년들 에게 새로운 사회 적응 능력제고	



2007년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5	한내돌다리 밟기 민속축제	· 일시 : 2007. 10. 1 · 장소 : 대천천 한내 돌다리 현장 · 참석 : 기관단체 및 문화 회원 시민 1,000명	사라져가는 한내돌다리밟기 민속축 제 재현으로 시민들의 한내돌다리밟 기 민속축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주민 화합의 장 마련	
6	소외지역청소년 문화유적답사	· 일시 : 2007. 10 ~ 12월 · 장소 : 보령관내 문화유적 · 참석 : 소외지역 청소년(고3) · 참석인원 : 240명	우리고장 (수능을 마친 보령관내 고 3학생)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릴 기회 제공으로 고향사 랑과 애향심 고취	
7	마을단위 전통민속 행사지원	· 일시 : 2007. 12월 · 장소 : 마을단위 전통민속 행사장(서낭당, 다리, 고목) · 참석 : 마을단위 주민 · 참여인원 : 250명	우리고장 전통고사 서낭제, 다리제, 고목제, 등의 전통민속 행사 지원으 로 계승 발전	
8	문화학교 회원 작품 전시회	· 일시 : 2007. 12. 14 ~ 16 · 장소 : 장소문화원2층전시실 · 참석 : 유관기관단체 및 문화회원150명 · 전시내용 : 한국화, 서예, 서각, 사진	평소 문화학교에서 배운 기량 발표 기회부여를 통한 우리지역의 재능 있는 예술인 발굴 및 건전한 여가문 화 생활 풍토 조성	
9	시민국악 교실운영	· 일시 : 2007년 연중 · 장소 : 대천문화원 · 참여인원 : 300명	시민국악교실을 통한 국악 애호가들 의 여가활용 기회부여 및 우리 전통 민속 맥을 이어가는 국악 보급에 효 과 기대	



2007년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김좌진 장군 추모제향



복권기금 문화유적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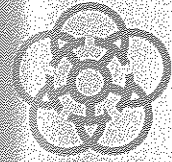
추석맞이 우리민속 체험행사



한내 돌다리 밟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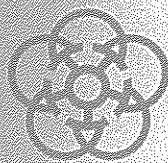


해맞이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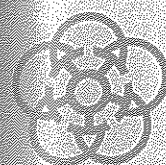
2007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제8회 성홍산 해맞이축제	· 기간 : 2007. 1. 1 · 장소 : 임천면 성홍산성 · 참여인원 : 5,000명	새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촛불기원, 새해소망기원제, 소원지 풍선날리기, 새해운수보기 등 실시	
2	신년교례회	· 기간 : 2007. 1. 2 · 장소 : 청소년소련원 · 참석인원 : 1,000여명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세배, 축하행사, 신년교례회 명부등 발간	
3	지역생활문화 자료수집	· 기간 : 2007. 3. 2~12.20 · 장소 : 부여문화원 · 수량 : 50여점	지역 생활문화 자료를 수집하여 남녀 교복사진 등 추억의 옛 자료전시	
4	주암리 행단제 발굴조사	· 기간 : 2007. 3. 2~12. 30 · 장소 : 부여문화원 · 부수 : 500부	내산면 주암리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는 행단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 발간	
5	2007 부여투어 버스운행	· 기간 : 2007. 4월~11월 · 장소 : 부여·공주 문화유적지 · 참여인원 : 400여명	부여·공주 백제문화재 공동개최함에 따라 백제문화권 관광패키지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	
6	국제결혼 이주여 성을 위한 우리문화 한글교실	· 기간 : 2007. 4. 6~11. 23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석인원 : 80여명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언어문제, 생활습관, 및 문화적 이질감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기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교실, 문화유산체험 등의 교육 실시	
7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 기간 : 2007. 4. 10~12. 15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25여명	노인세대들이 어린시절에 익혀 왔던 전통민속놀이이름을 자라나는 청소년과 관광객에게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전통민속놀이 지도사를 양성함	
8	제5회 홍산대첩 문화제	· 기간 : 2007. 4. 12 · 장소 : 홍산면 태봉산성 · 참여인원 : 2만 여명	고려시대 왜구격퇴의 3대 승리인 홍산대첩 관련행사, 최영장군 관련행사, 전통문화행사, 보부상관련행사 등	
9	어린이 역사교실	· 기간 : 2007. 4. 22~11. 10 · 장소 : 전국 주요 유적지 · 참여인원 : 120여명	군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월1회 사적 답사 및 영화감상 실시	



2007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0	2007 문화학교	· 일시 : 2007. 6. 1~12.30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150명	군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한국화, 일본어, 목공예강좌 개설 운영	
11	문화현장탐방교육	· 기간 : 2007. 6. 6~11. 2 · 장소 : 전국문화현장 · 참여인원 : 160명	문화원 회원의 교양증진을 위한 2007 한국농업 박람회, 추사고택, 한국고건축 박물관 등 답사	
12	제5회 시인 신동엽 추 모 백 일 장	· 기간 : 2007. 6. 15 · 장소 : 구드래 조각공원 · 참여인원 : 500여명	우리고장 출신인 신동엽시인의 문화적 업적을 기리는 도단위 청소년 대상 백일장	
13	제5회 공남지 연 꽃 축 제	· 일시 : 2007. 7. 20~8. 5 · 장소 : 공남지(사적135호) · 참여인원 : 50만여명	서동탄생설화가 있는 공남지에 연꽃 축제를 개최함으로 관광객을증진하고 연꽃 부채만들기 등 17개의 체험장과 축하공연, 사생대회 등 다채롭게 운영함	
14	우리는 문화가족	· 기간 : 2007. 8. 18~12. 30 · 장소 : 전국문화유적지 · 참여인원 : 480여명	가족단위 사적답사, 자연체험, 전통 민속놀이, 각종 공연 등 문화체험 활동 전개	
15	전국 백제 토기 물레 경연대회	· 기간 : 2007. 10. 13~10. 14 · 장소 : 구드래광장 · 참여인원 : 100여명	전국 도자(도예)관련 전공 대학생 백제토기 물레경연대회 실시	
16	『부여의 누정집』 발간	· 기간 : 2007. 10. 28~29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1만여명	군내 현존하는 누정 21기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17	우리문화 우리민속 한마당	· 기간 : 2007. 12. 22 · 장소 : 부여군민회관 · 참여인원 : 200명	동지 팔죽쥘먹기, 떡만들기 등 각종 세시 민속 재현	
18	교사를 위한 문화유산순례강좌	· 기간 : 2007. 12월 중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40여명	군내 초·중·고 교사의 향토사 연구를 위한 문화유적 현장 답사	
19	관광정보센터운영	· 기간 : 2006. 1. 1~12. 31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7,000여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에게 관광정보 제공, 유적지 현장설명 등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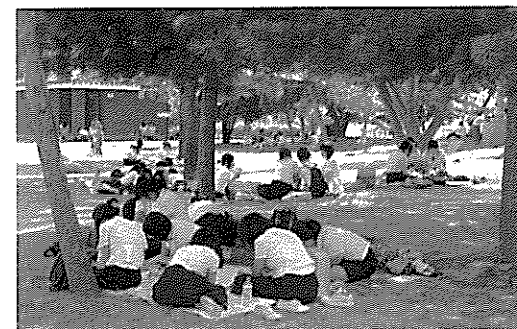
2007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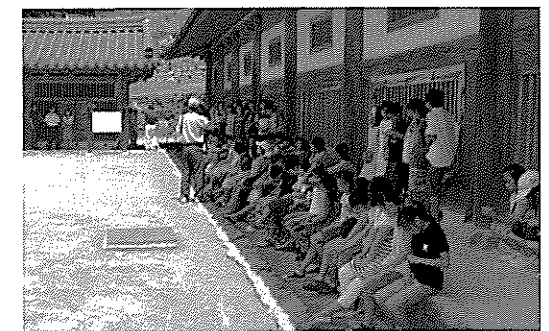
2007 신년교례회



전국 백제토기물레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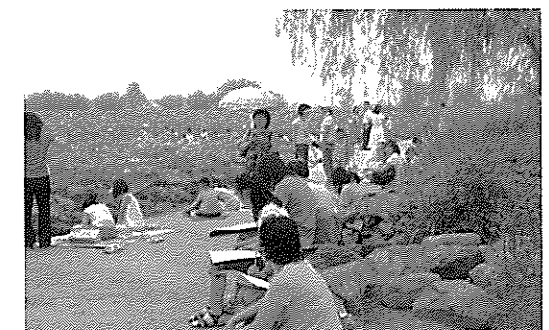
제5회 시인 신동엽 추모백일장



어린이 역사교실



우리는 문화가족



제5회 부여·서동 연꽃축제(연꽃사생대회)

2007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 일시 : 3월~7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인원 : 75명	서산지역 여성을 대상으로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천연비누, 우리춤조, 생태교실을 운영	
2	서산의 문화인물 기념행사	· 일시 : 4월 27일 · 장소 : 양주 · 대상 : 문화가족	서산을 연고로 하는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여 답사하고 그 분의 업적을 기림.	
3	노인일자리사업	· 일시 : 4월~10월 · 장소 : 서산문화원 외 · 대상 : 60세이상 노인 30명	서산지역의 경력및 특기를 가진 60세 이상의 노인 30명을 모집하여 지역아동센터, 노인대학, 기타 교육기관에서 강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	
4	성년례	· 일시 : 5월 21일 · 장소 : 부춘산 레포츠공원 · 대상 : 한서대 해양스포츠학과 학생	성년의 날 즈음하여 한서대 학생을 대상으로 성년식을 개최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5	서산의 민속산악과 마을제 영상자료 제작	· 일시 : 5월~12월 · 수량 : 6중	서산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22종의 민속산악과 마을제가 보존 계승될 수 있도록 그 중 6종을 영상자료화 함.	
6	문화의식 강좌	· 일시 : 8월 3일 · 장소 : 서산문화회관 · 대상 : 15개 분원 · 참석인원 : 600여명	각 분원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의식 강의를 개최하고 분원 간 교류와 활성화를 도모	
7	결혼이주여성	· 일시 : 4월~11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인원 : 50명	지역내 결혼이주여성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8	향학관	· 일시 : 11월 9일 · 장소 : 한서대학교 · 대상 : 한서대 문화제학과 · 인원 : 100여명	서산을 연고로 하는 학자 및 인사들을 초청하여 일반인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력 증대를 위한 초청강의를 개최 함.	
9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 일시 : 6월 1일 · 장소 : 서산시 대산읍	충남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민속경기를 치루고 시민간의 협동심과 애향심을 높임.	
10	청소년 문학제	· 일시 : 4월 7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초,중,고 학생 · 인원 : 600여명	서산 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학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백일장을 개최하고 격려함	

2007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1	문화유적 현장학습	· 일시 : 4월 13~15일 · 장소 : 일본 · 대상 : 서산문화원 이사 및 직원	서산문화원 이사를 대상으로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문화현장을 답사, 체험하여 문화의식과 주체성을 높임	
12	청소년 어울마당	· 일시 : 6월 30일 ·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 참석인원 : 500여명	서산지역 중,고등학교 동아리들이 한 무대에 올라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펼치고 학교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짐	
13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 일시 : 10월~12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참석인원 : 50여명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및 생활에 철교육 프로그램 운영	
14	명사초청 문화특강	· 일시 : 8월 17일 · 장소 : 서산문화회관 · 강사 : 전유성 · 대상 : 지역주민 · 참석인원 : 600여명	외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문화 특강을 개최	
15	새터민 프로그램	· 일시 : 10월 13일 · 장소 : 서산시 조각공원 · 대상 : 새터민 및 지역주민 · 참석인원 : 700여명	새터민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야외 음악회를 개최하여 어울려 화합하는 문화마당을 마련함.	
16	서산시 평생학습축제	· 일시 : 10월 18일~19일 · 장소 : 서산시 문화회관, 문화원 일대	평생학습기관, 단체가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축제 참가. 서산시 평생학습 실무를 대상으로한 워크샵과 사례발표, 성인 학습동아리 발표, 지역문화 학교홍보, 체험관을 운영.	
17	서산문화대상 시상	· 일시 : 11월 2월 · 장소 : 서산문화원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공이 많은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고장의 명예와 후생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함	
18	청소년문화상 시상	· 일시 : 11월 2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초,중,고 학생 (9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 예행, 선행 3개 부문의 문화상을 시상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	

2007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2007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9	제5회 내포바람전	· 일시 : 11월 23일 ~ 26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미술 교사	서산지역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	
20	정보자료실 운영	· 일시 : 연중	각종 신간, 영상물, CD, 각종 자료를 보관하여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	
21	사이버문화원 운영	· 일시 : 연중	문화원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지역 정보 홍보와 각종 향토자료 관리	
22	지역문화학교 운영	· 일시 : 연중 · 장소 : 서산문화원	지역주민의 문화감수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도교실외 6개 강의를 운영	
23	「서산의 숨결」 발간	· 일시 : 연중 · 매월 발간	서산문화원의 소식과 각종 향토문화 정보지로서 문화원 회원 및 출향인사 등에게 보급	
24	향토자료관 운영	· 일시 : 연중	서산지역 출토 유물뿐 아니라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전시 및 보존하여 지역 향토사의 산 교육장으로 운영	
25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 일시 : 9월~11월 · 장소 : 지역주민 · 인원 : 120여명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평생학습프로그램 진행	
26	문화교육지원사업	· 일시 : 10월부터 · 인원 : 10여명	지역문화학교 운영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함.	
27	서산문화원 50주년 기념행사	· 일시 : 8월 3일 ·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 대상 : 문화가족및 시민 · 인원 : 600여명	서산문화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그 동안의 문화원 발자취를 되돌아 보며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함.	



50주년 기념행사



결혼이주여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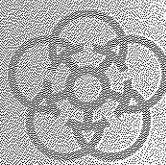
세터민프로그램(가을을 부르는 음악회)



서산문화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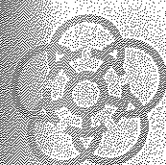


성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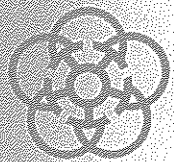
2007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문화교육프로그램	· 일시 : 2007.1월- 12월 · 장소 : 문화원 다목적실 · 참석인원 : 매회20여명	가족프로그램으로 문화향수를 조금 이나마 해소할수 있도록 중국어 강 의, 기초한문, 천자문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2	제9회 기벌포 대보름제	· 일시 : 2007. 3. 3 · 장소 : 서천문화원 · 참석인원 : 2,000여명	길놀이, 창작연 날리기대회, 전통놀이 한마당, 대보름전통 체험프로그램(부 럼, 액마기체함, 연만들기) 투호 및 인 절미 떡치기, 보름음식나누기등이 있었음	
3	상반기 문화가족유적답사	· 일시 : 2007. 4. 21 · 조사 : 전남 강진 · 참석인원 : 40여명	서천군민과 회원가족들을 대상으로 남도 답사의 일번지 "강진" 청자의 흔적을 찾아 그지역의 역사 와 유적 지, 옛 선인들의 생활상들을 돌아봄 으로 청자의 자취를 느낄수 있었음.	
4	2007. 봄 「질메다리 제3호」 발간	· 일시 : 2007. 4. 15. · 장소 : 서천문화원 · 부수 : 1,000여부	서천문화원에서 소식지 발간을 계획 하여 제3호를 「문화서천」을 「질메다 리」로 새롭게 개편 출간하게 되었음.	
5	제8회 학생 문화 유적 답사	· 일시 : 2007. 5. 26~27 · 장소 : 충남 일원 · 참석인원 : 40여명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충남 일대 1박 2일로 성주사지 - 남연군묘 - 남은 들상여 - 덕산읍성 - 예덕상무 - 김정희고택 - 건축박물관(1일), 현충 사 - 외암민속마을(2일) 옛 문화향 기의 흔적을 찾아서 선인들의 생활상을 살펴봄.	
6	학술대회 「진택집」 발간	· 일시 : 2007. 6월 - 2009년 9월 · 내용 : 진택집 번연 및 출간	서천의 역사 인물이 남긴 업적을 선 약하기 위해, 한문으로 작성되어 진 해지고 있는 진택의 문집을 한글로 번역하여 출간하는 것을 목적으로 먼저 입력작업을 함	
7	제34회 신석초 청소년문예백일장	· 일시 : 2007. 9. 13 · 장소 : 신석초시비일대 · 참석인원 : 100여명	신석초 문학정신을 가리기 위해 제 34회 서천문화원 청소년문예백일장 과 제7회 신석초백일장을 연계하여 초등부, 중,고등부운문, 산문으로 개 최하여 심사후 상장수여는 학교장에 위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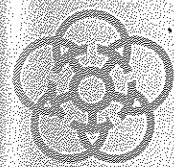
2007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8	하반기 문화가족유적답사	· 일시 : 2007. 9. 13 · 장소 : 전남 장성 · 참석인원 : 80여명	장성은 옛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빼어난 경관과 수려한 풍광에 옛 선 인들의 감탄이 서린곳이다. 필암서 원을 비롯하여 백양사등을 감상하며 옛 유적지를 돌아보고자 함.	
9	제3회 서천 청소년문화예술축제	· 일시 : 2007. 10. 26 - 30 · 장소 : 서천문화원 · 참석인원 : 2,000여명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함과 학생동아리 경연대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다양 한 끼와 재주를 맘껏 펼쳐볼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10	조각전 이필수 개인전	· 일시 : 2007. 11. 3~9 · 장소 : 서천문화원 · 참석인원 : 1,000여명	서천문화원에서 전시사업을 서천출 신인 작가를 공모하여 2007년 조각 전을 선발하였음. 이필수 개인 조각 전으로 「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테 마있는 전시를 하였음.	
11	제7회 기벌포예술제	· 일시 : 2007. 11. 8~10 · 장소 : 서천군민회관 · 참석인원 : 3,000여명	제7회기벌포예술제를 3일간 서예, 꽃꽂이, 회화, 사진, 조각, 한지공예 전과 이상재자료기획전등 상설 전시 로 펼쳐지고, 8일 제6회서리국악원 국악 한마당 경로위안잔치, 9일 무 대공연 "온 몸으로 소리쳐" 와 10일 "눈으로 보는 문학" 문학강연 등 주 제가 있는 예술제로 개최되었음.	
12	공연사업 "돌아온 장날"	· 일시 : 2007. 11. 17 · 장소 : 서천특화시장 · 참석인원 : 1,000여명	옛 시장을 추억하여 "돌아온 장날" 공연을 서천특화시장에서 흥겨운 소 리마당과 퍼포먼스, 어린이무용, 가 야금병창이 펼쳐짐.	
13	「석북 신광수선생 학술지」 발간	· 일시 : 2007. 6. 30 · 장소 : 서천문화원 · 부수 : 500부	2006년도 「석북 신광수선생의 삶과 문학세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던 논문을 정리하여 이기현문학박사, 충남대 박우훈교수, 이항배교수, 중 부대 신웅순교수, 동국대 강경호교 수 등의 주제 발표논문과 토론문등 을 수록하여 발간함.	



2007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4	학술대회 '진포구 대첩' 에 관한 학술대회	· 일시 : 2007. 11. 22. · 장소 : 서천문화원 · 참석인원 : 200여명	'진포구 대첩' 의 재조명과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1380년 '진포구 대첩' 에 관한 학술대회를 이영(방송통신대 일본학과 교수), 김기섭(부산대 사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이해준(공주대 사학과 교수), 오석민(충남역사문화원)의 패널로 토론의 장을 마련함.	
15	'금석문'발간사업	· 일시 : 2007. 1 - 2008. 12 · 장소 : 서천군일대 · 선별 : 108기	서천군 13개 읍.면의 전체의 금석문을 조사하여 108기를 선별, 30여개를 탁본, 금석문입력, 번역작업으로 발간할 계획임	
16	향토민속발굴사업 "서천말 연구"	· 일시 : 2007. 1 - 12 · 장소 : 서천문화원 · 참석인원 : 500여명	타자의 시선을 응시하는 어느 상황주의자의 그리움의 화폭을 담은 윤원진 제2회 개인전-수류화개(水流花開)를 전시함	
17	향토민속발굴사업 "서천말 연구"	· 일시 : 2007. 1월 - 12월 · 장소 : 한영목교수 · 부수 : 500부	점차 사라져가는 서천지역어 혹은 방언에 대한 연구 및 고찰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 즉 지역적 변별성을 확인하고 '말'을 통한 서천 지역문화의 독창성과 애郷심을 함양하고자 함.	
18	문화예술교육시범 사업	· 일시 : 2007. 1월 - 12월 · 장소 : 서천군내 학교 · 참석인원 : 1,000여명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현실과 문화, 자연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여 자료화하는 지역사회적 목적이고, 문화예술적 행위로 표출함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창조하는 판단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문화교육사업임.	
19	문화역사마을가꾸 기사업	· 일시 : 2006년 - 2008년 · 발간명 : 한산동자북마을 · 참석인원 : 60여명	동자북 마을을 거점으로 하는 문화.역사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한산소곡주' 의 고유 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나아가 유무형의 현대적 가치 생산을 통해 문화역사자원의 고유성을 활용한 지역거점마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2007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대보름제 행운상 추첨



연날리기 대회



보름음식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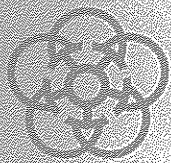
연날리기 대회 시상



제9회 기벌포 대보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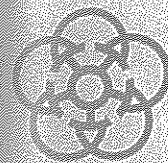


꽃꽂이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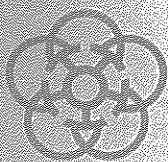
2007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세시풍속놀이	· 일시 : 2007. 2. 27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00명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 단결 및 민속 놀이 계승	년1회 문화학교
2	컴퓨터교실 「1, 2, 3」	· 일시 : 1회-2007.4.23~5.11 2회-2007.5.14~6.4 3회-2007.6.25~7.13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36명	컴퓨터 기초활용을 위한 윈도우 운 영 및 인터넷 정보활용 방법 교육	년45회 문화학교
3	서예교실(1)	· 일시 : 2007. 7. 23 ~ 8. 10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30명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 공체지 도	년15회 문화학교
4	여성취미교실 「1,2」 (꽃꽂이 강습)	· 일시 : 1회-2007.4.25~6.13 2회-2007.10.23~12.4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68명	생활꽃꽂이 지도	년14회 문화학교
5	청소년음악회	· 일시 : 2007. 11~12월 · 장소 : 관내학교 · 참석인원 : 800명	청소년 대상으로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정서함양 기회마련	년3회
6	제25회 내고장자랑 글짓기	· 일시 : 2007. 11.3 · 장소 : 문화회관성환분관 · 참석인원 : 450명	관내 초·중·고교생대상으로 내고 장자랑에 관한 글짓기 공모, 시상	시상은 11월중
7	제18회 애항의식 고취 그림그리기	· 일시 : 2007. 11. 3 · 장소 : 문화회관성환분관 · 참석인원 : 430명	관내 초·중·고교생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공모, 시상	시상은 11월중
8	제10회 경로효친 회화대회	· 일시 : 2007. 11. 3 · 장소 : 문화회관성환분관 · 참석인원 : 60명	관내 초·중·고교생대상으로 경로 효친에 관한 서예공모, 시상	시상은 11월중
9	입상작품집 발간	· 발행 : 2007. 11. 30 · 발행부수 : 500부 260작품(국판칼라)	글짓기, 그림, 회화, 대회입상작품집 발간	500부



2007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0	제17회 내고장 문화유적답사	· 일시 : 2007 11~12월 · 장소 : 천안시일원 · 참석인원 : 270명	유적지 답사를 통해 우리문화에 대 한 긍지와 애항심을 함양시킴	년6회
11	사이버향토 문화원관리	· 일시 : 연 중 · http://sunghwan.cult21.or.kr	각종 지역 정보 및 지역 문화 활동	매일
12	노인교양강좌	· 일시 : 2007. 5~7월 · 장소 : 성환노인학교 · 참석인원 : 60명	건강한 노인생활 및 레이크션 강좌	년20회
13	제8회 향토작가 초대전	· 일시 : 2007. 12월중 · 장소 : 문화회관성환분관 · 참석인원 : 600명	내고장 출신의 미술작가의 작품을 전시(25작품)	년1회
14	「역주 조선환여승람」 (천안군-인물편)	· 발행 : 2007. 12월중 · 발행부수 : 1,000부		1,000부
15	우리고장 문화 알리기	· 일시 : 2007. 5.7~8.10 · 장소 : 전북김제시 독립기념관,광덕사 · 참석인원 : 80명	백제의 문화 유산을 찾아보고 지정문화 재아 유적지를 중심으로 현장을 답사하 면서 향토의식 고취를 위한 설명을 행해 하고 향토문화 안내 책자 및 문화원소개 전단 배포	년5회
16	「향토문화9집」	· 발행 : 2007. 12월중 · 발행부수 : 600부 (4*6배판)	천안지방의 역사, 인물, 문화재 등을 연 구, 조사, 정리하여 올바른 우리고장의 역사를 알수 있도록 향토자료 책자 발간 함	
17	봉선홍경사지 학술세미나	· 일시 : 2007. 12월 · 장소 : 문화회관성환분관 소공연장 · 참석인원 : 100명	성환읍에 있는 국보7호 봉선홍경사 사적 갈비라는 문화재가 갖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에 대한 내용을 학계전문가를 초청 하여 학술세미나 개최	
18	문화사랑방 (지역문화홍보관)	· 일시 : 2007. 11월 · 장소 : 성환역, 직산역 구내 · 방법 : 이동식안내판교체 설치2개	성환역과 직산역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천안의 문화 안내판 자료 교체	년중
19	2007 복권기금 지원사업(향토문화체 합)	· 일시 : 2007. 7/6 7/10 7/13 · 장소 : 목천 기독교 만세운동기념 탑/입장기미독립만세운동기념탑/천 안읍내장터독립만세운동기념탑/ 아우내독립만세운동발상지/유관순열 사생가/유관순열사추모각/유관순열 사기념관/독립기념관 등 · 대상 : 관내 초, 중학생	“유관순열사와 천안지방 독립만세운 동 그 함성속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 고 국무총리복권위원회/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국문화원연합 회의 후원으로 개최	년3회



2007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세시풍속웃놀이



여성취미교실(꽃꽂이 강습)



우리고장 문화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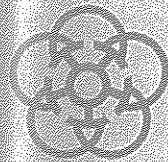
제25회 내고장자랑글짓기



서예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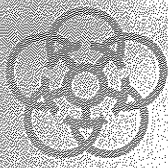


컴퓨터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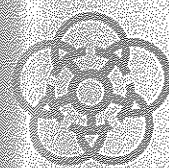
2007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단오절 민속 놀이경연대회	· 일시 : 6. 19 · 장소 : 아우내장터 · 참석인원 : 약2,000여명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하여 우리 고유 의 전통을 되살려 건전한 정신문화 를 함양케 함	
2	유관순열사 추모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	· 일시 : 9. 28 · 장소 : 유관순열사사우 · 참석인원 : 400명	초·중·고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 리고 창작활동의 기회를 부여함	
3	향토민속발굴	· 일시 : 12월 · 발행처 : 아우내문화원 · 발행수 : 500부	'동학혁명의 발자취' 세성산전투를 중심으로 한 동학혁명 연구	
4	허수아비축제	· 일시 : 9월~11월 · 장소 : 천안시 북면 남안리 · 참석인원 : 2,000명	남안리 들녘과 옛 폐교 부지(위례초 등학교)에 테마별로 허수아비를 제 작·설치, 볼거리를 제공하여 각 학 교 및 단체들의 참여로 지역경제 활 성화에 이바지함	
5	대보름 맞이 줄다리기	· 일시 : 3. 3 · 장소 : 광덕면 구정마을 · 참석인원 : 300명	600년 이상을 내려온 천안시 광덕 면 구정마을 줄다리기	
6	백전마을 씨름대회	· 일시 : 8. 9 · 장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참석인원 : 1,000명	70회를 맞은 마을 씨름대회. 마을 자체에서 개최하다 올해부터 아우내 문화원에서 향토민속보존의 일환으 로 개최기로 함.	
7	전입주민을 위한 문화유적체험	· 일시 : 6월~12월 · 장소 : 천안시 · 초청인원 : 80명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알려 주고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깨닫게 하여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높여줌	



2007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8	청소년 문화유적답사	· 일시: 10. 25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 참석인원 : 40명	천안에서 비교적 오지인 광덕면 보산원초 등학생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우리 선 조들의 숨결과 체취를 느끼며 민족의식 고 양	
9	작은도서관 운 영	· 일시: 상시 · 장소: 아우내문화원 · 참석인원: -	양질의 향토자료 및 도서를 비치하 고 지역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 열 람 및 대출을 통해 독서생활에 일조 를 함	
10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 상 식	· 일시: 10월 24일 · 장소: 아우내문화원 · 참석인원: 200명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선발하여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함	
11	요가 교실	· 일시: 1월~12월 · 장소: 본원 2층강당 · 참석인원: 40명	농사 및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주부 들을 대상으로 요가강좌를 개최함으 로 심신수양 및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함	
12	풍물놀이 교실	· 일시: 1월~12월 · 장소: 본원 1층회의실 · 참석인원: 40명	우리 고유의 악기를 연주함으로 정 서함양 및 각종 행사에 참여 봉사할 수 있는 문화가족으로 함께함	
13	꽃꽂이 교실	· 일시: 4월~12월 · 장소: 본원 1층회의실 · 참석인원: 30명	강사와 함께 매주 하나의 작품을 완 성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여 15주 동안 기초에서 숙련되기까지 진행	
14	남사당놀이 공연	· 일시: 4월~10월 · 장소: 문화원 앞마당 · 참석인원: 2,000명	아우내장과 연계하여 전통연희마당 과 줄타기 공연으로 볼거리 제공	
14	오카리나 연주단 양성·활동	· 일시: 5월~12월 · 장소: 본원 1층 도서실 · 참석인원: 1,200명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오카 리나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 후 연주 단으로 활동	
16	문화교실 종강식 & 송년회	· 일시: 12월 8일 · 장소: 본원 2층강당 · 참석인원: 150명	지난 일 년 동안 문화교실 수강생들 과 문화가족들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를 갖음	
17	원사 리모델링	· 일시: 10월~12월	노후된 원사를 개축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다양한 문화활동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	



2007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신년하례회 풍물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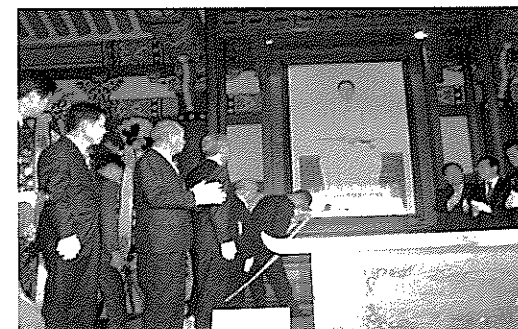
아우내만세운동 기념 타종식



청소년 문화유적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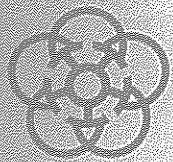
'남징엔판' 아우내장터 공연



유관순열사 영정 봉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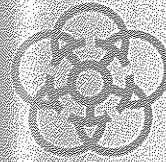


문화원 가족과 함께하는 유적답사 <경남 남해 보리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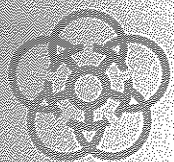
2007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2007년 신년교례회	· 일 시 : 1월 5일 11시 · 장 소 : 한일프라자 · 참석인원 : 300명	-예산군내 각 기관 단체 임직원 참석 -신년인사로 거행	
2	2007-1 이사회	· 일 시 : 2월 9일 · 장 소 : 문화원 회의실 · 참석인원 : 17명	-2006년도 결산서 작성 -2007년도 예산서(안)편성	
3	2007정기총회	· 일 시 : 2월 23일 · 장 소 : 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 대의원 45명	-2006세입세출결산서승인 -2007세입세출예산서승인	
4	갈산리장승제	· 일 시 : 음력 정월 5일 · 장 소 : 대흥면 갈산리 · 참석인원 : 100명	-민속제례거행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	
5	조곡리산신제	· 일 시 : 음력 정월 7일 · 장 소 : 대흥면 조곡리 · 참석인원 : 200명	-민속제례거행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	
6	교촌리행당제	· 일 시 : 음력 정월 보름 · 장 소 : 신암면 조곡리 · 참석인원 : 80명	-민속제례거행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	
7	난전시회	· 일 시 : 3월9일~3월10일 · 장 소 : 문화원 전시실 · 참석인원 : 300명	-난우회 회원전 및 초대전	
8	어린이연극공연	· 일 시 : 4월 10일 · 장 소 : 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 200명	-어린이연극공연관람	
9	문화가족문화탐방	· 일 시 : 5월 18일 · 장 소 : 이응로기념관 · 참석인원 : 100명	-예산문화원 문화가족 친목 및 문화 유적 탐방행사	
10	향토문화체험프로그램	· 일 시 : 7월 23일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 참석인원 : 90명	-문화소외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제공	
11	예당호반영화제 및 작은음악회 개최	· 일 시 : 7월 1일~8월 31일 · 장 소 : 예당호반무대 · 참석인원 : 2,300명	-다양한 영화와 지역의 예술단체들의 공연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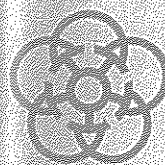
2007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2	청소년하계수련활동	· 일 시 : 9월8일~9월9일 · 장 소 : 충북괴산 일원 · 참석인원 : 80명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활기찬 2학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수련 프로그램	
13	예산의염장문화간행	· 일 시 : 하반기 · 장 소 : 예산군지역 · 참석인원 : 100명	-향토민속발굴사업으로 시행	
14	『예산문화제40집』 간행	· 일 시 : 하반기 · 장 소 : 예산문화원 · 참석인원 : 30명	-예산문화원 향토문화보존사업으 로 시행	
15	추사선생추모제	· 일 시 : 10월 13일 · 장 소 : 추사묘일원 · 참석인원 : 200명	-예산군 신암면 응궁리 소재 추사 김정희선생묘소에서 시행	
16	추사김정희선생추모전 국회호대회	· 일 시 : 10월 14일 · 장 소 : 예산공설운동장 특설과장 · 참석인원 : 700명	-전국의 서예인들의 서예 경연 당일 휘호 후 심사 및 시상 장원 국무총리상 수여	
17	추사체전국회호대회	· 일 시 : 10월 14일 · 장 소 : 예산공설운동장 특설과장 · 참석인원 : 200명	-추사체의 선양을 위하여 2006년 부터 시행	
18	청소년전국회호대회	· 일 시 : 10월 13일 · 장 소 : 추사고택 특설과장 · 참석인원 : 180명	-전국청소년 응모작품 중 특선이상 확보학생 초청 시필 후 문화관광부 장관상 시상	
19	예산군 학생미술실기대회	· 일 시 : 10월 13일 · 장 소 : 추사고택내 · 참석인원 : 380명	-예산군내 초·중·고등학생 참가 경시	
20	예산군 학생글짓기대회	· 일 시 : 10월 13일 · 장 소 : 추사고택 일원 · 참석인원 : 300명	-예산군내 초·중·고등학생 참가 경시	
21	예산군 학생풍물한마당	· 일 시 : 10월 13일 · 장 소 : 추사고택 화순옹주홍문 · 참석인원 : 150명	-예산군내 초·중·고등학교의 풍 물반 학생들의 풍물한마당	
22	수석전시회	· 일 시 : 10월 13일~14일 · 장 소 : 예산공설운동장 1층 · 참석인원 : 600명	-예산수석회 회원과 초대전으로 시행	



2007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3	나는새무용단 초청공연	· 일시: 10월20일 · 장소: 문화원 야외공연장 · 참석인원: 100명	-정옥조 나는새무용단의 현대무용 초청공연	
24	전국회화대회 수상작품 순회전	· 일시: 12월 8일~19일 · 장소: 예산문화원전시실 천안충청남도학생회관 · 참석인원: 500명	-추사김정희선생추모전국회화대회 수상작품	
25	월요서예강좌	· 일시: 매주 월요일 · 장소: 문화원 서예실 · 참석인원: 연인원 150명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서 시행	
26	한국화강좌	· 일시: 매주 화요일 · 장소: 문화원 서예실 · 참석인원: 연인원 90명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서 시행	
27	수요서예강좌	· 일시: 매주 수요일 · 장소: 문화원 서예실 · 참석인원: 연인원 140명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서 시행	
28	클레이강좌	· 일시: 매주 목요일 · 장소: 문화원 회의실 · 참석인원: 연인원 100명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서 시행	
29	주부노래교실	· 일시: 매주 목요일 · 장소: 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연인원 500명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서 시행	
30	어린이발레스쿨	· 일시: 매주 화·목요일 · 장소: 문화원 다목적실 · 참석인원: 연인원 250명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서 시행	
31	디지털카메라강좌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 장소: 문화원 회의실 · 참석인원: 연인원 100명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서 시행	
32	종이접기강좌	· 일시: 매주 목요일 · 장소: 문화원 회의실 · 참석인원: 연인원 100명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서 시행	
33	여섯줄회원공연	· 일시: 5월, 12월 연2회 · 장소: 예산군내 · 참석인원: 600명	-예산문화원 일반회원 정기공연	



2007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향토문화체험



어린이연극공연



나는새무용단 초청공연



예당 호반 영화제



청소년 하계 수련활동



여섯줄 회원 공연



2007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정해년 신년인사회	· 일시 : 2007. 1. 2 (11:00) · 장소 : 그랜드호텔 · 참석인원 : 250명	관내 기관 및 사회 단체장들과 많은 문화가족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2	독서논술 문화학교 운 영	· 일시 : 2007. 1. 4~2. 28 · 장소 : 온양문화원(2층) · 참석인원 : 30명	주제를 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글로 서술함.	
3	서예교실 문화학교 운 영	· 일시 : 년중 (매주 월, 목요일) · 장소 : 온양문화원(2층) · 참석인원 : 30명	문자를 표현하는 독특한 예술이다. 시용가치뿐 아니라 예술적 행위로서 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	
4	문화탐방	· 일시 : 2007. 1. 28 · 장소 : 서울 63빌딩, 역사박물관등 · 참석인원 : 45명	문화현장 답사로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5	아산타이딩 (소식지)발간	· 일시 : 2007. 2. 1 · 배부처 : 문화가족 및 출향인사 · 부수 : 1,000부	아산의 소식을 매분기 발간하여 문화가족과 시민 및 출향인사에게 배부	
6	이사회 참 석	· 일시 : 2007. 2. 9 (11:00) · 장소 : 온양문화원 (2층) · 참석인원 : 문화원 이사 30명	당면업무 협의	
7	간담회 참 석	· 일시 : 2007. 2. 12 · 장소 : 유성아드리아호텔 · 참석인원 : 도내 문화원장	도지사 초청 간담회 및 월례회 참석	
8	정기총회 개 최	· 일시 : 2007. 2. 23(11:00) · 장소 : 온양문화원 (2층) · 참석인원 : 문화원 임원 116명	200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07년 세입·세출 예산승인	



2007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9	문화탐방	· 일시 : 2007. 2. 25 · 장소 : 충북 단양 고수동굴, 구인사 등 · 참석인원 : 45명	문화현장 답사로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0	정월 대보름 민속 경연대회	· 일시 : 2007. 3. 3 · 장소 : 신정호 국민관광지 · 참석인원 : 300명	정월대보름 음력 1월 15일 우리민족 의 밝음 사랑을 반영한 명절로 윷놀 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엿치기등 다채로운 행사 제공	
11	밥로스 미술교실 문화학교 운 영	· 일시 : 2007. 3. 6 ~ 9. 30 (매주 월, 목요일) · 장소 : 온양문화원 (2층) · 참석인원 : 30명	덧칠기법, 독특하고 흥미로운 기법 으로 그림을 처음 대하는 초보자의 마음을 화폭에 쉽게 담을수 있음.	
12	이사회 개 최	· 일시 : 2007. 3. 23 (11:00) · 장소 : 온양문화원 (2층) · 참석인원 : 문화원 이사 30명	당면업무 협의	
13	문화탐방	· 일시 : 2007. 3. 30 · 장소 : 서울방송국, 국회의사당등 · 참석인원 : 45명	문화현장 답사로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4	제46회성웅 이순신축제 회 의	· 일시 : 2007. 4. 16 · 장소 : 온양문화원 (2층) · 참석인원 : 20명	축제집행위원회 대책회의 개최	
15	『아산타이딩』 (소식지)발간	· 일시 : 2007. 4. 18 · 배부처 : 문화가족 및 출향인사 · 부수 : 1,000부	아산의 소식을 매분기 발간하여 문화가족과 시민 및 출향인사에게 배부	
16	문화탐방	· 일시 : 2007. 4. 24 · 장소 : 경기도 포천 광물수목원 산정호수 등 · 참석인원 : 45명	문화현장 답사로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007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7	이사회 개 최	· 일시 : 2007. 4. 25 (11:00) · 장소 : 온양문화원 (2층) · 참석인원 : 문화원 이사 30명	당면업무 협의	
18	제46회성웅 이순신축제	· 일시 : 2007. 4. 27~5. 1(5일간) · 장소 : 현충사 국교천 일원 · 참석인원 : 495,000여명	애국애족정신과 충효정신을 기리며 그분이 일생동안 행해왔던 삶의 궤 적을 참여와 체험을 통해 배울수 있 게함	
19	문화탐방	· 일시 : 2007. 5. 25 · 장소 : 경상남도 진주논개제 · 참석인원 : 45명	문화현장 답사로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0	워크샵 참 석	· 일시 : 2007. 6. 4~6. 5(2일간) · 장소 : 대전 한화콘도 · 참석인원 : 사무국장외 1명	지방문화원 발전 방안	
21	연찬회 참 석	· 일시 : 2007. 6. 12~6. 13(2일간) · 장소 : 제주도 · 참석인원 : 도내 문화원장	지방문화원 운영에 관한 연찬회 실시	
22	생활염색 문화학교 운 영	· 일시 : 2007. 6. 15~12. 31 (매주 금요일) · 장소 : 온양문화원 (2층) · 참석인원 : 30명	염료를 사용하여 실이나 천등에 물 을 들어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 작품 으로 표현함.	
23	다 도 및 생활예절 문화학교 운 영	· 일시 : 2007. 6. 15~12. 31 (매주 화요일) · 장소 : 온양문화원 (3층) · 참석인원 : 30명	차를 달이거나 마실때의 방식이나 예의범절을 배우고 인간의 건전한 삶의 길을 걷자는 것을 말함.	
24	6.25전쟁 전 시 회	· 일시 : 2007. 6. 25(09:00~18:00) · 장소 : 온양문화원 주변	1950.6.25 새벽에 북한군이 북위 38도선 이남으로 기습적으로 침공 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함.	



2007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5	문화탐방	· 일시 : 2007. 6. 29 · 장소 : 경기도 용인 와우정사, 세종옛돌박물관 등 · 참석인원 : 45명	문화현장 답사로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6	렉 스 문화학교 운 영	· 일시 : 2007. 7. 19~12. 31 (매주 목요일) · 장소 : 온양문화원 (3층) · 참석인원 : 30명	다언어교실 & 문화교류교실 7개국 의 언어를 배워 자연스럽게 여러나 라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게 함.	
27	아산 타이딩 (소식지)발간	· 일시 : 2007. 7. 24 · 배부처 : 문화가족 및 출향인사 · 배부 : 1,000부	아산의 소식지를 매분기 발간하여 문화가족과 시민 및 출향인사에게 배부	
28	벤치마킹	· 일시 : 2007. 7. 26~7.29(4일간) · 장소 : 밀양연극축제, 포항불꽃축제 · 참석인원 : 1명	축제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발전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함.	
29	문화탐방	· 일시 : 2007. 7. 27 · 장소 : 전남 담양 대나무박물관, 죽녹원 등 · 참석인원 : 45명	문화현장 답사로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0	청소년여름 문화학교 운 영	· 일시 : 2007. 8. 1~8. 4 · 장소 : 온양문화원3층 및역사문화 탐방 · 참석인원 : 80명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들에게 교 양강화 및 취미생활을 실시하고, 문 화유적에 대한 지식을 함양케하기 위하여 문화탐방 실시	
31	이사회 개 최	· 일시 : 2007. 8. 9 (11:00) · 장소 : 온양문화원 (2층) · 참석인원 : 문화원 이사 30명	당면업무 협의	
32	여성발전 연구소 발기인 회의	· 일시 : 2007. 8. 9 (11:00) · 장소 : 온양문화원 (2층) · 참석인원 : 회원 30명	여성들의 활성화로 지역 문화발전 은 물론 자기개발을 하기 위하여 설 치함.	



2007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33	이사회 개 회	· 일시 : 2007. 8. 29 (11:00) · 장소 : 온양문화원 (2층) · 참석인원 : 문화원 이사30명	당면업무 및 온양온천문화 예술제에 대한 협의	
34	문화탐방	· 일시 : 2007. 8. 31 · 장소 : 전라북도 고창읍성, 판소리박물관 등 · 참석인원 : 45명	문화현장 답사로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5	중 국 해외탐방	· 일시 : 2007. 9. 14~9. 17(4일간) · 장소 : 상해, 소주, 항주 · 참석인원 : 27명	문화현장 답사로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6	산우회 발족식	· 일시 : 2007. 9. 28 (15:00) · 장소 : 온양문화원 (3층) · 참석인원 : 50명	산과 우정을 함께하며 자연을 찬미 하고 등산을 통하여 상호간에 친목 을 하기 위함	
37	제1회온양온천 문화 예술제	· 일시 : 2007. 10.12~10.14(3일간) · 장소 : 신정호 국민관광지 · 참석인원 : 20,000여명	설화예술제, 맹정승축제, 온궁행렬 재연 등 3대축제를 통합하여 첫회 행사함.	



2007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38	충청인 한마당 큰잔치	· 일시 : 2007. 10. 21(14:30~19:00) · 장소 : 서울 올림픽체육관 · 참석인원 : 270여명	충청향우회에서 주관하여 충청인들 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를 가짐.	
39	문화탐방	· 일시 : 2007. 10. 25 · 장소 : 강원도 영월 김삿갓문화관, 단종역사관 등 · 참석인원 : 45명	문화현장 답사로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40	향토사 대중화 시범사업 발표회	· 일시 : 2007. 10. 24 · 장소 : 송곡도서관 · 참석인원 : 50명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구비문학을 새 롭게 각색하여 동화책으로 만들어 지역의 구비문학을 계승.발전시키고 자 함.	
41	산우회	· 일시 : 2007. 11. 2 · 장소 : 강화도 마니산 · 참석인원 : 45명	산과 우정을 함께하며 등산을 통하여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첫 등반을 함.	
42	마을명칭부여 대한주택공사	· 일시 : 2007. 6. 25~12. 31 · 장소 : 아산신도시 · 진행사항 : 추진중	아산신도시(아산배방) 마을 및 시설 물 명칭부여 용역사업	



2007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국악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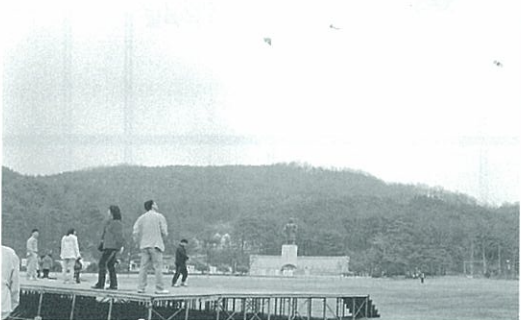
웃놀이



옛치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2007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어버이날 효 콘서트	· 일시 : 5. 30 화 · 장소 : 군민회관대강당 · 참석인원 : 300명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가 지고 있는 장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 그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 게 잘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2	새해맞이 우리소리 한마당	· 일시 : 1월 3일 · 장소 : 군민회관대강당 · 참석인원 : 500명	2007년 해맞이 우리소리 한마당을 통하여 군민의 화합단결	
3	농악교육 및 연습	· 일시 : 년중 · 장소 : 농악대사무실 · 참석인원 : 80명	매주 월~금 까지 옷다리 풍물, 사물 난타 교육 및 강좌	
4	국악단 교육 및 연습	· 일시 : 년중 · 장소 : 풍물사무실 · 참석인원 : 35명	매주 목요일은 남도민요 및 판소리 교실운영 토요일 경기민요 교육 각 종 초청 공연 및 봉사공연 실시	
5	대보름맞이 웃놀이 대회	· 일시 : 2월 24일 · 장소 : 군민회관소회의실 · 참석인원 : 50명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웃놀이를 개최하며 문화예술인의 화합을 할 수 있는 계 기 마련	
6	향토사연구 활동	· 일시 : 년중 · 장소 : 연기군내 및 군외 · 참석인원 : 20명	향토사료조사연구 활동 및 내 고장 문화교육	
7	문화유적답사	· 일시 : 5~10월 · 장소 : 연기군내, 도내 · 참석인원 : 250명	유적지 순례를 통한 내고장 문화 알 리기 및 유적답사	
8	경로효친의 달 행사	· 일시 : 5월 3일 · 장소 : 유성 우금치 공연관람 · 참석인원 : 350명	65세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적 답 사 및 청아청아 내딸 청아 마당극놀 이 관람	
9	주부교양강좌 (다도교실)	· 일시 : 년중 · 장소 : 1월 ~ 12월 · 참여인원 : 20명	주부들의 교양증진 및 취미활동을 위한 다도교실 운영	
10	제8회 매죽헌성삼문 축제 및 충효사상 백일장 개최	· 일시 : 10. 28 · 장소 : 금남면 문절사 · 대상 : 연기군내 초중고 · 참여인원 : 100명	군내 초, 중, 고 대상으로 충효에 대한 백일장 대회 개최	
11	2007년 노인학교 운영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군민회관소회의실 · 대상 : 연기군내 어르신 · 참여인원 : 40명	전래동요 교육 및 우리 춤강좌 (부채춤 아리랑, 살풀이 등)	



2007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2	성년의 날 행사	· 일 시 : 5. 30 · 장 소 : 군민회관대강당 · 대 상 : 관내고등학교 재학생중 시설아동 · 참석인원 : 8명	전통방식에 따른 우리 고유의 성년 식을 지역 고등학교와 함께 실시함 으로써 문화원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성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줌	
13	건전가요반 및 중창단운영	· 일 시 : 년중 · 장 소 : 군민회관소회의실 · 참석인원 : 100명	건전가요반 운영(매주 수요일 오후 2~4)까지 개최하며 매주 토요일 직 장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타반 운영 및 오카리나반 운영	
14	어린이 바둑교실	· 일 시 : 8 ~ 12월(방학기간중) · 장 소 : 연기향토사료실 · 대 상 : 연기군내 초등부 · 참석인원 : 40명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취미 활동 배양	
15	효자효부표창	· 일 시 : 5. 30 · 장 소 : 군민관대강당 · 대 상 : 8개읍면효자효부 · 참석인원 : 300명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효자효부를 선출하여 표창함	
16	독서실운영	· 일 시 : 년중 · 장 소 : 연기향토사무실 · 참석인원 : 연기군민	도서(고서)를 구입하여 독서실 운영	
17	충효사상고취 청소년 웅변대회 개최	· 일 시 : 10월 21일 · 장 소 : 연기대청공원 · 참석인원 : 80명	충효의 본고장으로서 자라나는 청소 년들에게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자 웅변대회를 개최	
18	연기군 지명유래집 편찬	· 일 시 : 실시하고 있는중 · 편찬인원 : 5명	연기군내 예부터 내려오는 지명도를 조사하여 책으로 편찬코자 함.	
19	찾아가는 무료영화 상영 및 특별공연	· 일 시 : 7월 ~ 10월 · 장 소 : 6개면에서 · 참석인원 : 연기군민	6개 면을 돌며 문화에 소외되어 살 고 있는 분들을 방문하여 영화상영 및 특별공연(어린이 뮤지컬-오즈의 마법사)을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친 밀감을 일깨워 줌	
20	이주여성교육	· 일 시 : 7월 1일~2008년 1월 · 장 소 : 문화원 강의실 및 피부 미용실 · 참석인원 : 이주여성	연기군내에 결혼하여 이주한 여성들 을 대상으로 교육 (한글, 댄스, 예절, 음식, 전통놀이, 노래, 비주공예, 피 부관리 및 네일아트등)	



2007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1	연맥서화 전시회	· 일 시 : 12. 21 ~ 26일까지 · 장 소 : 군민회관소회의실 · 참석인원 : 50명	연기군의 맥을 잇고 있는 서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시회를 개최코자 함	
22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특강	· 일 시 : 8월~12월 · 장 소 : 문화원교육실 · 참석인원 : 100명	어린이들의 방학을 이용한 바둑교실, 종이접기교실, 가야금교실, 난타교실, 사물교실, 연기역사알기교실등 교육	
23	제25회 백제대제	· 일 시 : 4. 15 · 장 소 : 전의면 비암사 · 참석인원 : 500명	백제대제의 기원은 계유년(673년) 4월15일 백제유민들에 의해 석불비 상 8개를 조성하여 비암사를 짓고 시납하여 국왕 대신과 철세부모를 위한 제를 올린제 기원을 둔(백제 의 역대제왕과 대신의 혼령을 위로 하고 백제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례)	
24	2007년청소년을 위한 뮤직 페스티벌	· 일 시 : 5. 18 · 장 소 : 연기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 700명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지 역 청소년들에게 음악공연을 펼침으 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축하 해 주고자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	
25	제7회 연기대첩제	· 일 시 : 10월 21일 · 장 소 : 연기대청공연 · 참석인원 : 80명	고려시대 몽고 합단적(哈丹賊)이 쳐 들어왔을 때 이들을 연기정좌산(嚙 岐正左山)에서 물리치므로 풍전등화 같았던 나라를 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 이에 연기대첩 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국난 극복의 충의정신을 상기하는 교육으로 삼고 자 하는데 있음	



2007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6	행복도시이주민을 위한 위안잔치	· 일 시 : 10월 21일 · 장 소 : 연기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 1500명	행정도 건설에 따른 예정지역 주민 들의 이주가 시작돼 조상대대로 살 아온 터전을 떠나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실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 해 위안행사를 개최하는 사항임.	
27	국립창극단 초청 시집가는날 공연	· 일 시 : 10월 18일 · 장 소 : 연기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 1500명	검증된 희극 맹진사택 경사를 새로 운 창극으로 만들어 우리시대를 살 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소리에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함.	
28	연기군민생활 강좌 개최	· 일 시 : 2007.7~2008. 1 · 장 소 : 군민회관내 강의실 · 참석인원 : 연기군민	연기군민 생활강좌 및 평생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와 지식의 고 속성장에 따른 그리고 세대간의 엄 청난 갭을 극복하고 특별시나 행복 시에 따른 도시민의 자질을 한 박자 빠르게 교육받는 과정 개인이 따라 가기 보다는 전문가의 지식에서 요 점을 듣는것이 교육에 효용성을 높 이며 군민간의 애정과 리더쉽 배양 에 큰 힘이 될것이라 믿어 평생 문화 교육을 실시	
29	문화학교 운영	· 일 시 : 7. 1 ~ 2008. 1 · 장 소 : 문화원강의실 및 피부미용실 · 참석인원 : 이주여성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성 개발 및 지식기반 창출 건전여가 문 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밝고 명 량한 사회 분위기 조성	



2007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연기대첩제 헌화식



소리봉사단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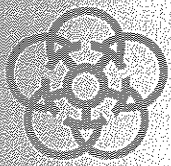
연기군민 생활강좌(유인경 기자 초청강연)



무료영화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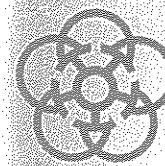


가야금교실운영



2007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1	2007 신년 교례회	· 일시 : 1. 3 오전1시 · 장소 : 아리랑뷔페 · 참석인원 : 300명	· 신년사 · 축사 · 상호교례 · 다과 및 오찬	새해를 맞아 군내 각 기관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사들 을 모시고 새해인사와 함 께 지역사회의 단결을 다 짐하는 신년하례식
2	문화학교	· 기간 : 1.4~2.2 · 장소 : 청양문화원 · 수료인원 : 76명	· 동계청소년문화학교 - 미술교실 - 핸드페인팅교실 - 종이접기교실 - 비즈공예교실 - 어린이한자교실(계5강좌) - 영화상영(무료)	문화적 기반시설이 미약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학기간중 다양한 문화강 좌를 개설함으로 청소년들 이 건전하고 유익한 방학 을 보낼수 있도록 하고 다 양한 문화체험의 장 마련
		· 기간 : 7. 23~8. 21 · 장소 : 청양문화원 · 수료인원 : 51명	· 하계청소년문화학교 - 피오피교실 - 미술교실 - 종이접기교실 - 고무찰흙교실 - 댄스스포츠교실 - 책 속놀이터교실 (계6강좌) - 영화상영(무료)	
		· 기간 : 년중 · 장소 : 문화원 · 수료인원 : 20명	· 일반인 문화학교 - 국악교실(가야금, 장구, 민요) - 풍물교실	
3	전시회	· 기간 : 3. 9~3. 10 · 장소 : 문화원전시실	· 제4회 청양군 한국춘란전시회	지역문화예술의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군 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지역출신예술인의애향 심 및 창작의식 고취시키 고자함
		· 기간 : 9. 30~10. 6 · 장소 : 문화원전시실	· 칠갑미술초대전	
		· 기간 : 11. 1~11. 3 · 장소 : 문화원전시실	· 제13회 청양칠갑사진회 회원전	
		· 기간 : 12. 6~12. 7 · 장소 : 문화원전시실	· 제5회 청양군서우회 서·화전	



2007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4	칠갑산 장승문화 축 제	· 일시 : 4. 14 10:30~17:00 · 장소 : 칠갑산 장승공원일원 · 참석인원 : 20,000여명	· 본행사 - 칠갑산장승대제 - 장승명문식 - 장승깎기시연 - 가족장승깎기 · 부대행사 - 학생그리기대회 - 가족하수아비창작공모전 - 나만의 우표만들기 - 소원성취기원문달기 - 윤금선무용단 초청공연 - 국악인초청공연 - 공예품 전시,판매 - 나무곤충만들기체험 - 청양구기자제조체험 - 춘포짜기체험 - 소달구지타기체험 - 전통민속놀이 읍.면대향경기 - 각설이공연, 마당극공연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한국제 일의 장승문화 보존지 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칠갑산을 연계한 관광 문화 축제로 육성
5	문화회원 유적지 순례	제1차 · 일시 : 5. 3 · 참여인원 : 31명 제2차 · 일시 : 10. 25 · 참여인원 : 32명	· 순례장소 강화도 문화유적지 - 강화역사관, 광성보, 초지진, 전등사 · 순례장소 경주시 문화유적지 - 천마총, 첨성대, 석굴암, 불국사	유적지순례를 통해 문 화재의 중요성과 가치 를 직접체험하며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
6	청소년 역사체험 순례	· 1차 : 6. 15 (64명) · 2차 : 6. 19 (64명) · 3차 : 6. 20 (63명)	· 충남권 문화유적지 및 현충(충의)시 설 순례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 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민 족정기선양과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자 함 · 순례장소 서산마애삼존불,간월도간월암,해미읍 성 김좌진장군생가, 한용운선생사당	· 1차 : 장평중학교 청남중학교 · 2차 : 대치초등 청송초등 · 3차 : 미당초등 장평초등



2007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7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 영	· 기간 : 8. 21~8. 22 · 장소 : 대치면 상갑리 가파마을 · 참여인원 : 66명	· 전통생활문화체험 손수건 쪽물 천연염색, 승경도놀이 체험, 다식만들기체험, 떡메치기체 험, 짚공예체험(금줄만들기), 쌍육 놀이체험, 굴렁쇠, 투호놀이, 모닥 불캠프(장기자랑, 감자 구워먹기)	
8	청소년 음악회	· 일시 : 10. 20 · 장소 : 청양문화예회관 야외공연장 · 참석인원 : 100여명	· 한사랑 가족음악회 꽃피, 아름다운 너, 마음을 다해 부르면, 보물, 타잔, 사람들은 모 두 변하나봐 등 (총 17곡)	노래와 음악을 통해 바른 심성을 배양하고 정서를 함양시키고자 함
9	문화가족 씨름운영	· 일시 : 5. 16 · 참여인원 : 12명	· 향토사연구위원회 조사활동 경남밀양 (운문사, 표충비, 영남문 등)	
10	문화가족 작 품 발 표 회	· 일시 : 12월중 · 장소 : 문화원전시실	· 수강생 발표(댄스스포츠) · 수강생 작품전시 종이접기(15작품) 고무찰흙교실(10작품) 피오피교실(20작품) 미술교실(20작품) 비즈교실(8작품) 핸드페인팅교실(10작품)	문화학교수강생(댄스포 츠, 종이접기, 고무찰흙, 비 즈, 피오피미술, 핸드페인 팅)작품전시 및 발표회
11	문화의밤	· 일시 : 11월중	· 시낭송과 함께 하는 문화의 밤	
12	고유민속 예술발굴 전 승	· 일시 : 12월중	· 제5회 청양군 바둑대회	우리고유의 민속놀이를 재현하여, 동호인 들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 마련
		· 일시 : 10. 29~11. 30	· 백제놀이문화교실 쌍육놀이, 다도, 승경도놀이, 장치기	학교 순회교육
		· 일시 : 12월중	· 강습회	
13	발간사업	· 발행부수 : 각 1,000부 (3종) · 발행일 : 11, 12월	· 향토민속발굴 · 내고장문화유산 교육자료 발간	· 청양의 오락과 놀이문화 · 청양의 두레 · 칠갑문화 17호
14	문화코너 운 영	· 기간 : 년중	· 자료열람실(전국향토자료집 및 일반도서)운영 · 영화감상교실 운영	영화 및 음악감상을 통한 청소년들의 취미생활과 정 서교육에 기여
15	향토자료관 운 영	· 기간 : 년중	· 향토자료전시관 역사인물관, 문화재관, 영상실 생활문화관, 민속 및 종교관 운영	민속사료를 통하여 옛 선인 들의 지혜와 당시의 생활방 식등을 알수 있는 계기 마련
16	사이버 문화원 운 영	· 일시 : 년중 · 홈페이지 주소 : cheongyang.cult21.or.kr	· 문화소식 · 청양의 역사소개 · 축제/행사 · 참여마당 등	각종 지역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지역문화 및 지역 정보센터로 운영 함



2007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제9회 칠갑산장승문화축제



문화학교 수료식



제14회 칠갑산문화제 기념 칠갑산미술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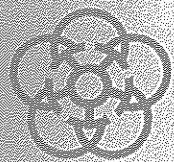
청소년 음악회



제2차 문화회원 유적지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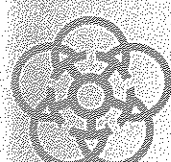


백제놀이 문화체험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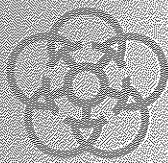
2007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중앙대제	· 일시 : 3.3.(음1. 14) 19:00 · 장소 : 경이정 · 참석인원 : 각급기관단체장, 주민100여명	태안의 고유한 전통민속 제례 의식 으로 태안군 각급 기관장 및 지역주 민들이 모여 국태민안 사회연풍등을 기원하는 대제	
2	이원면 벚가릿대놀이	· 일시 : 3. 19.(음 2. 1) · 장소 : 이원면 관리마울회관 · 참석인원 : 인근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100여명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정월 보름 전날에 긴 장대를 마당 한복판에 세우고 새끼줄을 꼬아 세 갈래로 지지해서 세워두었다가 머슴 의날인 음 2월 1일에 벚가릿대를 누 인다. 이때 장대끝에 매달아 두었던 곡식을 가지고 한해의 풍·흉을 점 치는 의식으로 한해의 풍년을 기원 하는 민속행사	
3	문화유적답사	· 1차 / 2차 / 3차 · 일시 : 6. 15 / 7. 13 / 10. 2 · 장소 : 강화, 대전, 영광권 · 참여대상 : 문화가족, 대기초, 대 의원	'태안군문화유적답사회'를 육성하여 인근지역과 문화교류를 실시하고 향 후 풍부한 답사경력을 바탕으로 지 역향토문화를 연구할수 있는 기반 및 육성 마련	
4	가족문화체험단	· 일시/장소/참여인원 · 1차 : 10. 13 (각경, 논산 - 40명) · 2차 : 11. 27 (도비산, - 25명)	가족과 자연,문화라는 테마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듦	
5	도서관자료관리	· 일시 : 연중 · 장소 : 문화원 · 참석인원 : 10명	수집된 도서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서관을 조성하여 향토유물전시관 과 함께 전국의 지역문화자료를 언 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문화관 련 전문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역의 각종문헌을 수집하여 제본으로 보관 한다	
6	당제및민속행사지원	· 일시 : 1월 ~ 12월 · 대상 : 남면 당암리, 원청리, 소원면 파도리, 고남면 누동리, 근흥면 신진도리	지역에서 전래되어 오던 당제를 전 승할수 있도록 지원함. 태안지역의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지 역의 당제행사를 계승 지원하여 그 맥을 이어 갈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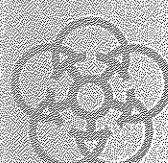
2007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7	청소년문화 체험캠프	· 일시 : 12. 7 ~ 8(1박2일) · 장소 : 남면초등학교, 테마학습장 · 대상 : 태안지역청소년 80명	연극반, 문예창작, 논술 프로그램등 다양한 청소년 교육문화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청소년 교육문화체험활 동을 실시한다	
8	주말영화교실	· 일시 : 4. 7 ~ 10. 20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 · 장소 : 문화원 · 대상 : 태안군민, 학생	다양한 문화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원 강당을 이용하여 매 주 토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하고 영 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 하여 매주 자료지를 발행하고 영화 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함	
9	제16회 소성백일장	· 대상 : 초·중·고학생 · 참가인원 : 150명중 100명 입상 12개학교	태안문화원 계속 사업으로 태안군의 학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생활문화를 주제로 지역문화와 문학 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자연과 생활 문화를 주제로 시와 산문을 학교별 로 접수하여 심사함	
10	초·중 미술실기대회	· 일시 : 10. 12 (금) 14:00 · 장소 : 군청어린이공원 · 참석인원 : 250명중 129명 입상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수 있도록 풍경, 경험화등 사상 대회를실시함	
11	움직이는 문화공연	· 1차 / 2차 · 일시 : 11. 2 / 11. 26 · 장소 : 삼성초등(200명) 태안고등(680여명)	지역적, 사회적 여건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초청 또는 방문을 통한 무 료문화공연을 실시함	
12	태안군 문화예술인워크샵	· 일시 : 11 월 3 일 · 장소 : 서초구 휴양소 · 참석인원 : 100명	지역문화예술인 현황과 활동사례발 표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관람, 지역 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토론, 지역문 화예술정책과 방향에 대한 강연, 친 교의 시간등을 실시	
13	사이버문화원	· 일시 : 1 월 ~ 12 월 · 장소 : 문화원 홈페이지 관리	향토민속문화의 발전기반을 마련하 고 다양한 지역문화정보를 사이버상 에서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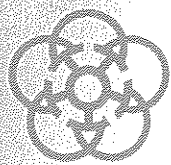
2007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4	어린이동요대회	· 일시 : 4월 28일 · 장소 : 문예회관 · 참석인원 : 500명(관객포함)	태안군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선을 실시한후 본선 진출 대상으로 대회를 진행함	
15	자염축제	· 일시 : 8월 8일~13일 · 장소 : 근흥면(남금마을) · 참석인원 : 800명	사전 개인이나 단체로 접수를 받아 소금과 관련된 전시장, 생태체험학습장, 종합갯벌 체험	
16	『소성의향기13집』	· 일시 : 12. 31 · 발간부수 : 1,000부 · 배부처 : 문화가족, 전국문화원, 군내 각기관 및 단체	문예작품, 향토문화, 특별기고, 각종 문화예술계소식, 문학작품, 우리고장 문화소식등을 수록한 책자발간	
17	지역문화학교	· 일시 : 4월~10월 · 장소 : 문화원, 미술학원 · 참가인원 : 250명	프로그램 수공예 : 4~10월 / 천연화장품 : 8~10월 리본아트 : 4~6월 / 사진 : 4~10월 요 가 : 4~10월 / 유 화 : 8~10월	
18	‘태안문화자원’ 홍보물제작	· 일시 : 3 ~ 11월 · 장소 : 태안문화원,향토자료전시실	태안문화원 연간문화활동 소개를 비롯한 태안군의 축제, 민속문화, 전시관, 명승지 문화재를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지침서 제작	
19	향토민속발굴사업 태안의성씨	· 일시 : 1월~10월 · 부수 : 1,000부 · 배수 : 문화가족,기간단체,도서관	태안지역 8개읍면의 성씨와 뿌리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성씨통계, 태안의 고유성씨분류, 씨족의 이동경로 등을 연구하고 기록하며 태안지역의 성씨백서	



2007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0	향토문화 도서관운영	· 일시 : 연중 · 인원 : 10여명	전담인력배치를 통한 도서분류 및 정리, 기존서고의 분류도서를 새로 마련된 도서관으로 이전하여 정리함	
21	전통행사제복구입	· 일시 : 1월~3월	현재 제복이 낡고 용도가 맞지 않아 구입하여 민속행사에 사용	
22	향토자료 전시관 운영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태안문화원	문화원에서 보유중인 지역의 향토자료, 유물, 서적 등을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자료로 적극 활용함은 물론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지역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함	
23	사진글씨 그리고그림전	· 일시 : 11. 23~27 · 장소 : 문화예술회관 · 참여단체 : 백화사진동우회/서예협회태안군지회/샘골스케치회/연목회/예술태안회/태안사진동우회/태안중등미술연구회	태안지역에서 10여 년간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 서예, 사진등을 예술단체에서 축적된 경험과 능력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연합전시회를 개최함.	
24	(바우처사업) 가족나들이	· 일시 : 10월 ~ 12월 · 인원 : 700여명 · 장소 : 전남 담양, 화순, 곡성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 단위 대상으로 테마여행 및 공연관람을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으로써 가족간의 대화와 체험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신뢰감 회복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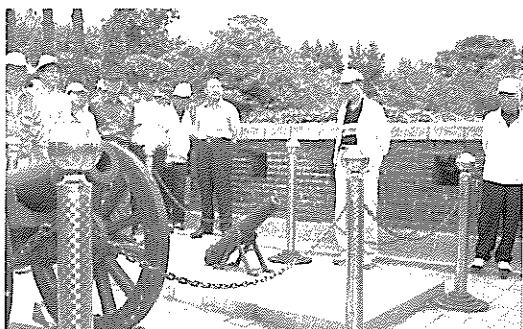
2007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2007 중앙대제



가족문화체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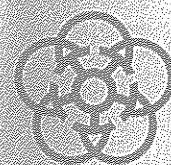
문화유적답사



문화학교-요가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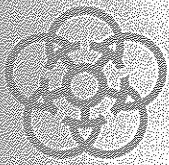


움직이는 문화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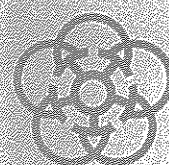
2007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신년교례회	· 일시 : 1월 3일 · 장소 : 홍성군청대강당 · 참석인원 : 300여명	신년인사, 신년사, 축사, 상호인사, 축시낭송, 폐회	신년을 맞아 관내 각급기관 사회, 문 화 단체장들간의 친 모도모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리를 문화원 주관으로 실 시함
2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 탐방	· 일시 : 1월 24일 · 장소 : 대전박물관 · 참석인원 : 50여명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역사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	
3	2007 정기총회	· 일시 : 2월 27일 · 장소 : 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 대의원 65명	· 2006세입 · 세출결산승인 · 2007세입 · 세출예산승인	
4	제6회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 일시 : 3월 3일 · 장소 : 홍주의사총 옆 하천변 · 참석인원 : 2,000여명	연날리기, 제기차기, 소원쓰기, 널뛰 기, 다리밟기, 쥐불놀이, 윷놀이, 달 집테우기 등	잊혀져 가는 전통 문화를 새롭게 조명 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하고자 달집태우 기, 쥐불놀이, 연날 리기 등 행사를 마 음 주민과 함께 공 동으로 실시함
5	올해의 예술상 공연 (김용우의 들노래, 도시로 가다)	· 일시 : 3월 15일 · 장소 : 문화원 공연장 · 인원 : 500여명	올해의 예술상 공연을 통해 주민들 에게 새로운 공연을 관람할수 있는 기회를 줌	
6	잉카 영혼의 소리공연	· 일시 : 4월 21일 · 장소 : 문화원 공연장 · 인원 : 500여명	잉카 문명의 음악 공연	
7	제9회 가족과 함께하 는 거리영화제	· 일시 : 5월 4일 · 장소 : 홍주의 사총 · 인원 : 800여명 · 일시 : 8월 31일 · 장소 : 광천하상 주차장 · 인원 : 900여명	쉽게 접할수 있는 야외무대에서 영 화를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양 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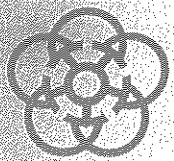
2007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8	전통 관례 및 계례 재현	· 일시 : 5월 21일 · 장소 : 해전대 노천극장 · 참석인원 : 700여명	성인된 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지키고, 행해야 됨을 가르치는 자리	
9	뮤지컬콘서트공연	· 일시 : 6월 9일 · 장소 : 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 300여명	뮤지컬 콘서트 무료공연	
10	찾아가는 우리문화 알아보기	· 일시 : 6월 28일 · 장소 : 보석박물관, 미륵사지 · 참석인원 : 45명	현장 학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됨	
11	복권기금향토문화체험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정신과 행적을 따라서	· 일시 : 7월 27일~28일 · 장소 : 백담사외 · 참석인원 : 80여명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만해 한용운 선사의 행적을 찾아다니며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삶의 방향 제시	
12	여름전통문화학교	· 일시 : 7월 30일~8월 3일 · 장소 : 문화원 · 인원 : 40여명	우리문화알아보기, 전통문화에절교실, 도예교실, 명상체험, 전통관례 및 관례체험, 영화감상하기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자기 발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
13	한여름밤의 무료영화	· 일시 : 8월 6일 ~ 10일 · 장소 : 문화원 공연장 · 인원 : 2,000여명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원의 이벤트	
14	역사문화탐방	· 일시 : 8월 25일 · 장소 : 공주 · 인원 : 40여명 · 일시 : 11월 9일 · 장소 : 익산 · 인원 : 50여명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줌	



2007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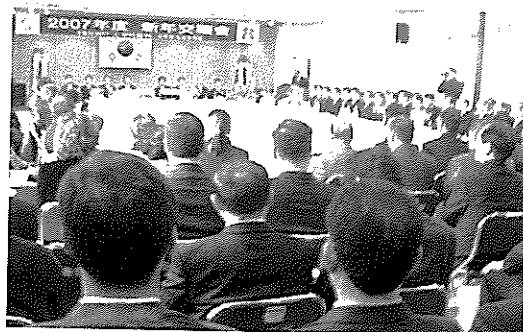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5	제13회 만해제	· 일시 : 10월 19일 - 22일 · 장소 : 생가지및 홍성군일원 · 참석인원 : 5,000여명	추모다례, 추모공연, 사진전시회, 만해탄본체험, 시조경창대회, 사생·취호대회, 문학의 밤등	만해 한용운 선사의 추모 및 행사와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마당 개최
16	찾아가는 영화 상영	· 일시 : 11월 2일 · 장소 : 홍동 · 참석인원 : 300여명	영화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을 찾아가 직접 영화를 상영	
17	문화학교	· 기간 : 년중 · 장소 : 문화원 · 참석인원 : 매회 15명	-서예교실 -전통풍수지리교실 -도예교실 -전통기수련교실 -아로마테라피교실	
18	「홍성문화」발간	발행부수 : 각 1,000부 발행일 : 6월, 12월	홍성의 문화소식을 주민들이 만들어가며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에 쉽게 접할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배포해 주어 문화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해줌	
19	주민과 함께하는 목요일영화	· 일시 : 매주 목요일 · 장소 : 문화원 공연장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무료서 상영.	
20	사이버 문화원 운영	· 일시 : 년중 홈페이지 주소 http://hongseong.cul21.co.kr/index.jsp	문화소식 홍성의 역사 소개 축제, 행사 등	
21	문화학교 작품 전시회	· 일시 : 12월 12일 ~ 18일 · 장소 : 문화원 전사실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전시 및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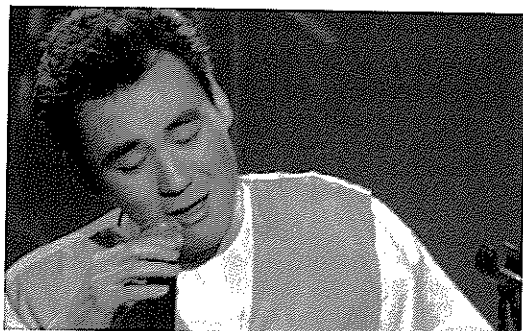
2007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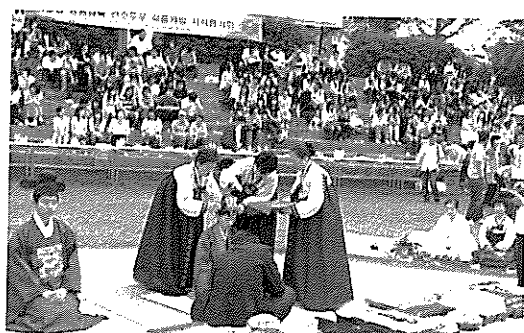
거리영화제



신년교례회



올해의 예술상 공연



전통관례 및 계례관례 재현



정월대보름



한여름밤의 영화

2007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인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 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 10. 10.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충청남도 사이버문화원

가나다순

- 공주 문화원 <http://gongju.cult21.or.kr>
- 금산 문화원 <http://geumsan.cult21.or.kr>
- 논산 문화원 <http://nonsan.cult21.or.kr>
- 당진 문화원 <http://dangjin.cult21.or.kr>
- 대천 문화원 <http://daecheon.cult21.or.kr>
- 부여 문화원 <http://buyeo.cult21.or.kr>
- 서산 문화원 <http://seosan.cult21.or.kr>
- 서천 문화원 <http://seocheon.cult21.or.kr>
- 성환 문화원 <http://sunghwan.cult21.or.kr>
- 아우내 문화원 <http://aunae.cult21.or.kr>
- 예산 문화원 <http://yesan.cult21.or.kr>
- 온양 문화원 <http://onyang.cult21.or.kr>
- 조치원 문화원 <http://jochiwon.cult21.or.kr>
- 청양 문화원 <http://cheongyang.cult21.or.kr>
- 태안 문화원 <http://taean.cult21.or.kr>
- 홍성 문화원 <http://hongseong.cult21.or.kr>

충청남도사이버문화원 E-book 자료관 구축

- 문화원 발간도서, 홍보책자, 업무책자, 행사사진, 동영상 등 E-book자료관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사이버문화원 및 도내문화원 홈페이지 하단 배너 링크”



충남도내 문화원 현황

가나다순

(2007. 12월 현재)

문화원명	소재지	창립일	원사총면적 (평)	문화가족			연락처	
				원 장	사무국장	직 원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 문 연 충남도지회	논산시 내동 279-4 (논산문화원)	67. 2. 20		지회장 박응진	사무처장 이준창	전현희 이승은	732-2395 730-4632	732-2394
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54. 12. 14	650	정재욱	현대수	김진완 우명란	852-9005 852-7600	856-6746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8	67. 11. 18	364	김호택	안용산	김현봉 석현숙	754-2724	754-6611
논산문화원	논산시 내동 279-4	57. 11. 14	20	박응진	이준창	전현희 이승은	732-2395 730-4632	732-2394
당진문화원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0-6	58. 3. 5	341	정정희	정제상	김현숙 백숙현 서재석	354-2367 357-2367	356-3850
대천문화원	보령시 동대동 983-16	62. 2. 4	287	임기석	오종화	김명희 임효선	934-3061	936-3071
부여문화원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2	54. 3. 1	125	윤준웅	김인권	이미영 송미형	835-3318	833-3318
서산문화원	서산시 읍내동 516	57. 6. 15	570	이준호	김영철	안지현 최윤경	669-5050 669-3306 669-3307	669-4567
서천문화원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62	65. 1. 26	300	유성열	김한중	최신희 정찬영 문은희	953-0123	953-0133
성환문화원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449-66	63. 5. 10	56	송용삼	신광식	김정선	581-2101	582-1725
아우내문화원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172	58. 4. 20	161	최영환	김성준	윤명자	564-1022	563-1021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대화리 247-11	55. 10. 15	344	이용면	김찬민	이향옥	333-2441 335-2441	334-4330
온양문화원	아산시 온천2동 206-24	57. 3. 20	298	김시겸	이강근	김미라 서은주 서성원	545-2222	542-4444
조치원문화원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1-1	64. 10. 14	603	임영이	이원재	길미숙 김혜자 이진세	865-2411 865-2412	864-0870
청양문화원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2-5	65. 2. 11	286	정재권	임두순	복은주 차승원 송미애	944-4774	944-1030
태안문화원	태안군 태안읍 남문3리 53-11	90. 5. 5	241	명수남	정지수	김유미 이연숙 오지혜	674-2192 674-1192	675-6968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89-4	54. 3. 31	605	전용택	김경식	강창식 임현경 신정아	632-3613 634-9659 631-3475	633-1199

충남 문화

2007 제11호
ChungNam Culture



韓國文化院聯合會 忠清南道支會